



문을

2 0 1 3 년 통 계 조 사 현 장 체 험 사 례 집

두드리다



기다림, 문이 열릴 때까지...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문을



2 0 1 3 년 통 계 조 사 현 장 체 험 사 례 집

두드리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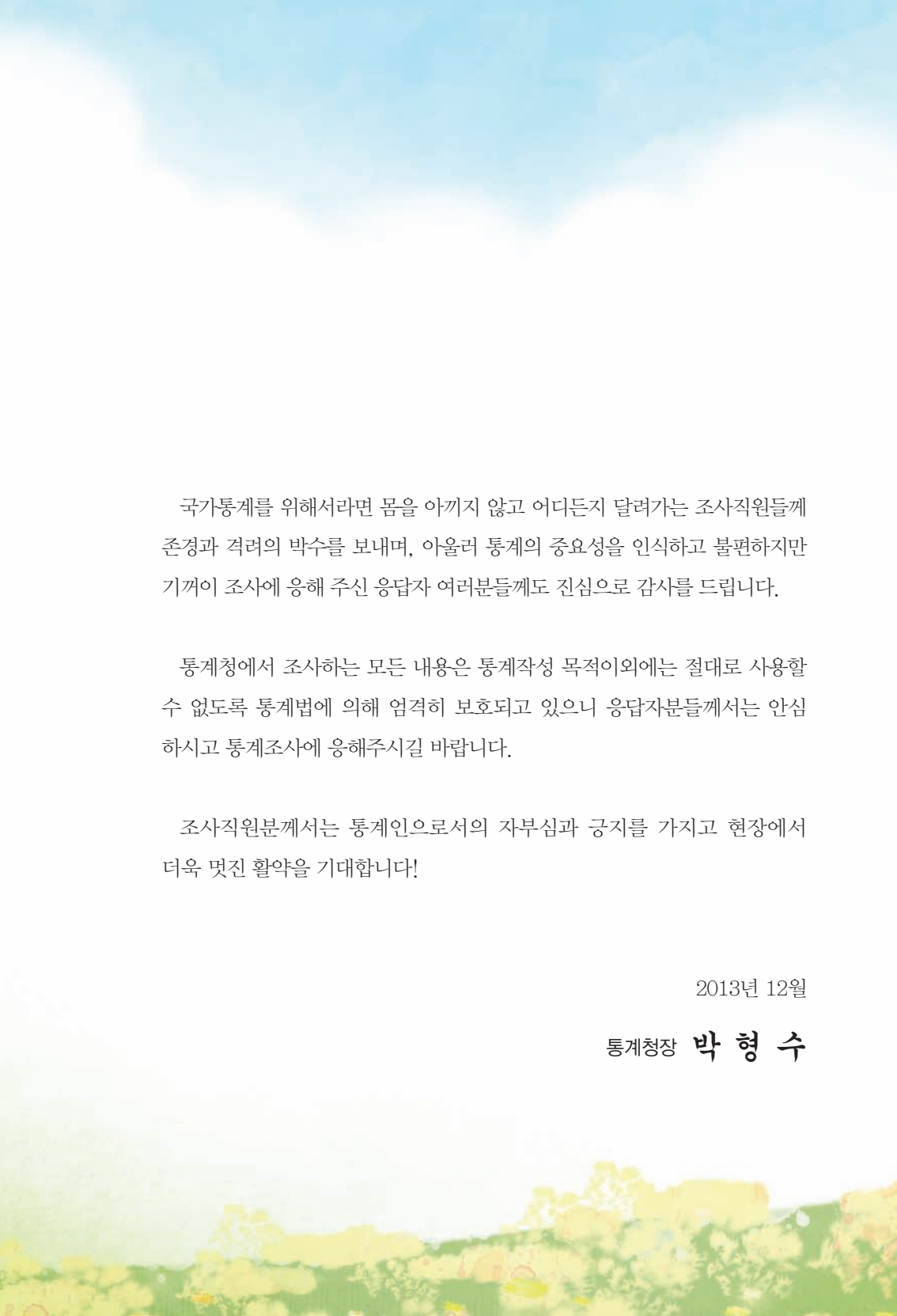
「문을 두드리다」를 출간하며...

통계생산의 최일선 현장을 누비는 통계조사 직원들의 애환과 보람, 응답자들의 경험 등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현장체험 사례집 「문을 두드리다」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조사 직원들만이 갖는 남모르는 희로애락과 더불어 응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가운데 통계자료의 소중함도 함께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정확하고 진솔한 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확한 통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막상 조사에 응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생산을 위해 우리 통계조사 직원들은 오늘도 응답자의 말 한 마디, 몸짓 하나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응답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를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조사직원들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편하지만
기꺼이 조사에 응해 주신 응답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응답자분들께서는 안심
하시고 통계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직원분께서는 통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더욱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통계청장 **박형수**

Contents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조사직원 부문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본청 우수사례



- 대 상** 신 정 선 | 회수율 100%에 담긴 인생철학 • 08
- 금 상** 박 해 원 | 내 가계부는 스마트하게 변신 중 • 21
- 은 상** 유 영 선 | 소중한 인연이 주렁주렁 나만의 행복주머니 • 31
- 은 상** 김 희 진 | 파란만장!! 통계공무원 생활 곡선 • 41
- 은 상** 김 은 경 | 다큐 365일!!! 울타리를 넘어서 • 51
- 동 상** 송 다 영 | 연동신규 20가구 4개월 동안의 대장정 • 64
- 동 상** 박 종 석 | 심금을 울려야 통계가 바로 선다 • 77
- 동 상** 배 은 경 | 나만의 설득전략과 Skill • 88
- 동 상** 배 선 미 | 첫 만남, 그리고 끝인사 • 102
- 동 상** 최 인 기 | 나 때문에 회사를 관둔대요 • 109

문 밖에서 내미는 따뜻한 손

지방청 장려상



- 장려상** 윤 용 복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들은 무화과 • 120
- 장려상** 윤 화 림 | 내 조사구를 DIY하라!(Do it yourself-손수 만들어가다) • 130
- 장려상** 조 성 미 | 거북이 달린다 • 142
- 장려상** 류 태 헌 | 청사초롱 불 밝히는 당신은 뭐요? • 149
- 장려상** 최 승 희 | 통할 통, 통계(通計)를 꿈꾸며 • 154
- 장려상** 신 정 미 | 당황하셨어요? • 159
- 장려상** 박 상 미 | 설득 실패! 그 쓸쓸한 기억 • 169
- 장려상** 박 봉 자 | 잠시만요~ 농가부채 확인하고 가실게요! • 181



장려상 고 민 정 | 내 마음의 아까징끼(빨간약) • 191

장려상 전 옥 순 | 전여사! 황금들판 논구디와 친구되다 • 200

장려상 손 선 옥 | 난 행운아!이다 • 208

장려상 문 영 선 |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닌 틀니가 있다!!! • 217

장려상 김 성 숙 | 행복한 Yes를 만드는 지혜의 심리학 • 224

장려상 이 경 민 | 연동조사구 첫 달 가계부 회수율 100%,
전자가계부 50% 달성기 • 231

장려상 이 영 미 | 아주무이에서 과장님이 되기까지 • 237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응답자 부문



내일로 함께 가는 길

응답자 부문 특별상

특별상 이 경 수 | 뽕질이가 달라졌어요 • 244

특별상 박 병 규 | 나라살림의 기틀인 가계동향조사 • 252

특별상 채 민 성 | 엄마의 소원 • 256

특별상 오 정 석 | 왜? 하필 우리 회사를...! • 268

특별상 오 정 석 | 왜? 하필 우리 회사를...! • 268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본청 우수사례 •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말문이 열렸는지 마음의 문이 열린 건지 여자는 자기의
넋두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잠자코 들어주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며
한 마디, 한 마디에 모두 공감해 주었다.

공감, 사소한 노력일지 모르지만 이 여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위로가 된 모양이다.

- 대상작 「회수율 100%에 담긴 인생철학」 중에서 -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하나

회수율 100%에 담긴 인생철학

경인지방통계청 이천사무소
신 정 선

세상에는 밤새도록 나눠도 모자란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의 군대이야기, 두 번째는 여자들의 출산 경험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계청 직원이 현장에 조사하러 간 이야기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는 조사현장에 나가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가구를 방문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라는 한숨 섞인 탄식과 더불어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겪은 조사원들의 애환 담긴 사연들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현장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안타까운 사연에 찢끔, 또 가끔은 허공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날리며 흘린 눈물이 이천에서 태평양까지 흐르고도 남았을 것이다. 특히, 표본조사 연동교체를 해본 사람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가구를 만나야 하는 설렘 대신 아! 이번에는 어떤 가구가 날 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본 그런 경험을 누구나 가져봤을 것이다.

정든 조사구를 떠나 새로운 가구를 만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통과해야 할 난관이 불 보듯 환하다. 통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응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의 분노를 나를 향해 폭발하는 사람들, 그 뿐인가?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앞에서 나의 존재감은 한없이 작아지고 가슴은 콕 막히게 된다.

하지만 눈물과 어려움 못지않은 보람과 감동도 있다. 또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덤으로 얻은 인생철학은 현장을 누벼본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나는 작년에 가계부 회수율 100%라는 위업을 이루어냈다. 지금은 내 삶의 자양분이 됐고 소중한 추억이 됐지만 조사현장 속에서 각양각색 불응사유로 울고 웃었던 사연들이 속속 떠오른다.



작년에 내가 맡은 조사구는 여주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나의 미션은 가계 조사의 적격 8가구 가운데 불응가구 4가구를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의기충천해 있었다. 대상가구의 대부분이 주택 소유자라는 점, 아파트가 아닌 대문 열린 집이 많다는 점 등이 힘을 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곧 깨달았다. 노인가구 4가구만을 빼고는 모두 불응이었다. 그것도 강력 불응! 나머지 3, 4구역의 경제활동 대상가구 역시 상상 이상의 적대감으로 100% 설득을 향한 나의 조사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문이 열리긴 하였으나 세입자가 많아 삶이 빈곤하였고 상처가 많은 조사구였다. 상황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은가?

통계청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해 본 사람은 세상 어디에 떨궈져도 곳곳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오기와 끈기로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지혜를 터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그 가운데 한사람이고 난관을 뚫고 회수율 100%의 고지를 정복했다. 불응가구 설득과정에서 인생철학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 나 뿐일까마는 비결이라면 비결이라 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인생철학 1 – 진심은 통한다

1구역의 첫 번째 불응가구는 가구주로 보이는 분의 첫인상이 체구만큼 후덕하셔서 감이 좋았다. 가계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더니 인적사항까지 한 번에 작성해 주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협조해 드려야죠!

앗싸, 신난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3년인 것과 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며 기록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자 남편분의 고개와 손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아뇨, 못합니다! 남편분은 또 말씀하셨다. 우리는 재산도 없고 수입도 적어 쓸 것도 없어요! 살기도 힘든데 수입과 지출을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치부를 다 드러내란 말 아닙니까? 싫습니다! 태도가 돌변하며 막무가내였다.

에구머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오만가지 생각이 왕복 달리기를 했다. 이렇게 설득했다가 안되면 저렇게 설득을 해보기도 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그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짧은 한숨을 쉬다가 방안을 둘러봤다. 그러자 벽에 걸린 교회달력이 눈에 띄었다.



나는 얼른 말했다. 어머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며 가계부 얘기는 일단 건너뛰고 교회 얘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 자녀들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였기에 이야기를 그 가구 자녀들의 신앙문제와 학습문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구에게는 종교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지만 그날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가계부에 대한 남편분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자리를 털고 인사를 드리고는 돌아섰다. 그때였다. 남편분이 내 뒤통수에 대고 말했다. 가계부는 안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돌아서서 웃으면서 남편분을 향해 말했다. 알겠어요. 오늘은 돌아 가고 다음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사원들에게 이 정도의 거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을 열어준 게 어디고 게다가 이야기까지 들어 준 것이 어딘가! 그 후 몇 번 더 방문하여 설득을 해 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도 있었다. 이 가구에는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가슴 아픈 둘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일을 하고 있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수입은 최저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그런데다가 과거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개인 파산자가 되었고 다달이 파산금을 갚고 있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있고 보증금 5백에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니 가계부는 커녕 대면도 하기 싫은 상황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롯이 정리된 깔끔한 가계부



아무리 내 직업이 조사원이라고 해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될 것 같았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다. 속수무책이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 저조한 회수율을 안고 전전긍긍하며 조사구를 오갔다. 참으로 암담한 날들이었다.

그렇게 얼굴인사만 하며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구하고 두드리면 열리고 길이 생긴다고 했던가! 그 가구의 다운중후군을 가진 아이는 장애인 학교가 파하면 동네 보육시설에 맡겨졌다가 엄마의 퇴근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오곤 하는데, 그 날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 아이 혼자만 있게 되었다. 그 아이를 보니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나 역시 두 아이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아이 얼굴에 흐르는 땀과 침을 닦아주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하고 놀아 주었다. 바로 그날이었다. 퇴근한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스스럼없이 대해주는 내 모습이 좋아보였는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슬그머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영수증을 모아 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시작된 가계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 담배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영수증을 챙겨주고 월급 명세서를 팩스로 보내기까지 했다. 이 가구는 연말에 성실가계부 가구로 인정되어 상도 타게



되었다. 아이를 통해 전해진 진심은 서로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인생철학 하나를 배웠다. 현장조사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 진심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 인생철학 2 - 공감해 주어라! 기회는 온다

두 번째 불운가구는 이혼의 상처가 있는 50대 중반 여자와 미혼이었던 남자동창생이 재혼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다. 이 여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이웃과의 지나친 경계심으로 왕래 없이 지내는 터라 속내를 드러내기 싫어하여 응답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조사구를 방문했는데 열린 대문 사이로 맥없이 앉아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를 건넸는데 매몰차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살그머니 여자 옆에 앉았고, 여자와 나는 이런 저런 세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말문이 열렸는지 마음의 문이 열린 건지 여자는 자기의 넋두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잠자코 들어주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며 한 마디, 한 마디에 모두 공감해 주었다.

공감, 사소한 노력일지 모르지만 이 여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위로가 된 모양이다.

다음 달에 나는 여자에게서 가계부를 받았다. 여자의 섬세한 성격만큼이나 꼼꼼하게 잘 정리된 가계부였다. 여기에서 배운 인생철학 하나, 공감해주면 기회는 온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해 주면 뜻이 이루어지나니!





∴ 인생철학 3 - 인맥을 활용하라! 궁하면 통한다

세 번째 불운가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 며느리 내외와 손자 한 명이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단란해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속을 들여다 보니 아니었다. 평생 돈을 벌어오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중풍을 앓고 있었고 할머니는 야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편분은 하나 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빚을 얻어 여러 학원을 보내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꼭 해주기 위해 또 빚을 얻는다고 했다. 어찌어찌하여 며느리가 가게부를 써주기로 했다.

하루는 가게부가 많이 부실하여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남편 몰래 기입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게부를 쓰면 부셔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난감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성실한 가게부를 쓰게끔 하기 위해 노점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 여러 차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하고 야채를 팔아주기도 했다.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새로운 직업을 얻어 자신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더 이상은 가게부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어쩔! 세상에 뭘 이런 일이... 하지만 어찌겠는가? 나는 새로운 곳에서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산 너머 산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순간, 산은 오르고 넘으라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수율 100%를 향하여



불굴의 정신을 불태우며 작전을 개시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나만의 각오를 다시 한 번 외쳤다. 내가 누구야,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오기 있고 끈기있는 대한민국 아줌마,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멋지게 살고픈 신정선 이거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한다. 며느리는 떠났으나 할머니와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 그날 나는 까무러칠 뻔했다. 할머니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했고 아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가게부에 대해선 당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연과 함께, 이혼한 남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앞이 캄캄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나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 가게부는 뒤로 하고 그 가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협조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과 속담의 의미를 나는 체험했다. 나는 이 가구에 대한 답답함을 직원들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던 중 직원 가운데 한 분이 이 가구주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우리 직원을 모를 수도 있다 하여 그 동창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동창생을 수소문해 넷이서 술자리 약속을 잡게 되었다.



결국 유머 있는 우리 직원이 동창생인 가구주에게 유머러스한 협박과 함께 가계조사의 고충을 토로함과 협조 부탁으로 또 하나의 회수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시작된 이혼남, 그러니까 홀아비의 가계부는 기대 이상이었다. 날짜별로 지출사항을 빼곡히 적었고, 전기요금 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세금 영수증과 품목이 불확실한 것은 친절하게 어떤 물건인지를 메모하여 놓았다. 나 같은 덜렁이 아줌마보다는 백 배 나은 완벽한 가계부였다.

나는 할머니의 아들이 써 준 가계부를 바탕으로 하여 수준분석표를 출력하여 이 가구의 지출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 알려드렸다. 이혼남은 교육비와 식료품비 등 막대그래프로 그려진 품목별 지출내역을 보며 통신비와 자녀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다고 크게 자극을 받는 것 같았다.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다짐도 했다. 아내가 쓰던 가계부를 부셔 버리겠다고던 남편이 내가 방문하는 날이면 거실을 말끔히 청소하고 상까지 펴놓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다. 누가 남자들은 가계부와 거리가 멀다 했나요? 유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조사현장에서 배운 인생철학 또 하나, 인맥을 활용하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 인생철학 4 -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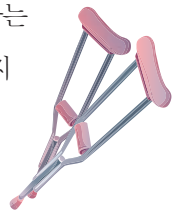
마지막 네 번째 불운가구는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동네 분들의 말로는 집 주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절어 목발을 짚는 장애인이라고 하였다. 부인은 노름을 하다가 담보를 잘못 서는 바람에 현재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집은 경매가 진행 중



이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도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2구역 첫 번째 가구 대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저녁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사람을 만나야 설득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에고, 힘들다! 는 푸념이 나도 모르게 흘러 나왔다. 밤에 그 집 앞에서 보초를 서기도 했다. 내가 형사나 경찰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기를 며칠. 어느 날 삐걱!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아저씨가 목발을 의지해 외출을 하시는 게 아닌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를 드리고 통계청 조사 때문에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다. 주인아저씨는 내 얼굴을 뵈히 보시더니 그동안 내가 방문한 것과 밤늦도록 기다린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들어오라고 했다. 야싸!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주인아저씨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저씨가 목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나는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다. 목발을 짚지 않으면 손을 방바닥에 짚어야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집안은 너무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저씨의 외모 또한 두문불출한 분답지 않게 깔끔하고 멋졌다. 나는 놀람을 애써 감추며 방문한 목적을 아저씨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아저씨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하소연을 하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협조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며 내가 밤늦게 방문한 것도 잘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상황이 너무 버거워 모른 채 했었노라는 고백도 했다.

일정한 수입이라고는 장애수당인데 그것도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로 나가고 그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 가계부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아내와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매우 복잡하다고도 했다.

충분히 공감하였기에 적극적으로 가계부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신에 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살림이 포착되어야만 그것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냐? 고 하면서 가계조사의 중요성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정리되면 영수증과 내가 여쭙는 말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는 말씀만 드렸다. 그리고는 가계부와 가계동향조사 안내장 등을 드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쌓인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의 간격을 두고 마음을 담아 위로가 될 만한 글귀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다른 가구에 가계부를 회수하러 조사구에 들를 때도 아저씨 집 방문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 또 얼마가 흘렀을까.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한 번의 노크로 스르륵 열리며 무스를 발라 더 깔끔해진 모습의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 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감사합니다! 를 연발했다. 아저씨가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내민 가계부는 나를 더 놀라게 했다. 장애수당과 친지들이 준 도움의 내용들이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고 그간 사용한 돈의 영수증들이 한 눈에 보기 좋게 붙여져 있었다. 홀로 있으니 외로워서 친구와 노래방을 가고 고스톱을 친 날도 있었다며 그것도 숨기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해 주셨다.

웬만한 가정주부의 가계부를 무색케 하는 훌륭한 가계부였다. 집이 정매 중에 있기 때문에 이사 갈 때





까지 최선을 다해 써보겠노라는 다짐도 해 주셨다. 나는 다른 가구에도 그랬듯이 한 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을 갖다 드렸다. 아저씨는 한 달 생활 규모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랐는데 계획성 있게 돈을 써야겠다며 오히려 고마워 하셨다.

아저씨에게는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저씨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조심스럽게 조언도 했다. 나는 중간 중간에 아저씨 집을 방문해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물었고 아저씨는 1년 이상 가게부를 써 주시다가 문막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 와중에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나를 만나고부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바깥외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전에 하던 구두수선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아저씨는 자기 자신을 누에고치에 비유하며 누에고치의 탈출담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뭔가 소중한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함이 밀려왔다.

동료가 나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뭐, 다른 비결이 있을까? 그 아저씨 성품이 무척 착한 분이였다는 것, 그리고 가구를 자주 방문하든 문자를 보내든 관심을 갖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 아울러 내가 아저씨에게 항상 드렸던 말, 힘내세요! 라고 했던 말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비결이랄까!

현재 아저씨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저씨는 문막 어딘가에서 구둣방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아저씨까지 협조를 해주어 가게부 회수율 100% 달성을 완수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조사현장에 삶이 있었다. 조사가구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짧은 시간에 금방 기쁜 사연으로 변하지는 않았으나, 함께 하면서 하나 둘씩 변화되고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었다. 그러한 과정은 힘들었으나 관심 밖에 있었던 타인을 조금씩 알아가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바뀌었다. 무작정 의심하고 경계하여 밀어내기만 하는 작금의 현실과는 다른 따뜻한 인간미,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만한 희망이 있음을 발견한 것은 더 없이 큰 소득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통계조사에 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조사가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공감해주며 이해하자 등의 인생철학을 배웠고 오늘도 되새긴다. 맡은 일에 대한 욕심과 직업의 자부심으로 시작된 작은 노력이 회수율 100% 달성과 함께 더 나아가 조사의 질까지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나를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한걸음 더 내딛게 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런 일을 통한 보람은 통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가구와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길을 달리고 있을 모든 조사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 가계부는 스마트하게 변신 중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
박 혜 원

1년 전 장만한 내 스마트폰 자랑을 하려 한다.

남다른 기능이 있거나, 최신 기기라서?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다. 아님 내 스마트폰이 특별해서?... 그래, 어쩌면 내 스마트폰은 아주 조금은 특별하고 남다른지도 모르겠다. 남들도 다 있는 스마트폰 자랑이 무슨 자랑인가 하겠지만, 내 스마트폰 그 안에는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나의 나를 귀여움이 있는 응답자들과 나만의 몽글몽글한 그 무언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부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변한 내 조사 현장을 살포시 공개하고자 한다.

내가 처음 스마트폰을 장만했을 때만 해도 남들보다 늦게 스마트한 세상이라는 곳에 입문했던 소리를 들을 때였다. 나 역시 스마트폰을 가지기 전까지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해야만 자료를 직접 얻는 줄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세상이 가까워졌고,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특히 조사현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조사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의 SNS의 가치가 얼마나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 나의 두 가지 체험을 이야기하려 한다.



●● 첫 번째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다

70대 노부부와 40대 노총각을 둔 가구 이야기다.

가계부를 노부부가 주로 작성하고 계셨으나, 미혼자녀는 가계부를 쓰지 않았다.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가 가계부를 쓴다는 건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반쪽짜리 가계부를 제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 아드님 좀 만날 수 없을까요? 가계부를 써야 하는데요...? 하며 말 꼬리를 흐렸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너무 바빠서 안 될 거여.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일하느라고 밤 쉼 때도 많아. 하시는데 막막했다. 처음엔 바쁜 아들 방해라도 할까봐 전화번호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아들 귀찮게 하는 것이 안쓰리워서 그러시는 줄은 알겠지만, 그래도 꼭 만나야 하는 나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금은 아쉽고 조바심도 났지만 천천히 느긋한 방법으로 가자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족했다.



그렇게 몇 차례의 방문을 했을 때쯤, 우연찮게, 아님 어머니가 나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넌지시 아들의 쉬는 날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과 면접을 하게 되었다. 처음 만난 아들은 무척이나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친해지려면 아주 오오~래 걸릴 것 같은 사람 말이다.

그래도 면접은 나름 순조로웠다. 조사 목적과 지금처럼 아드님 협조가 없는 반쪽짜리 가게부가 가져오는 비표본 오차와 문제점, 통계적 오류, 신뢰성 등을 설명해주었다. 처음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려웠을 설명에도 나의 말에 수긍을 하며 써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단 급여명세서와 고정적인 지출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처음의 면접은 성공적이었다. 나름 안심을 하였고, 밀고 기다렸다. 그런데 내 기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월초가 되어 회수를 할 때면 부모님의 가게부만 있을 뿐 아들의 가게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밥도 사먹었을 테고, 친구랑 영화도 볼 수 있고, 술 한 잔 마시기도 했을 텐데... 흠.

공장에서 기계조작을 하는 직업이라 전화 통화도 여의치 않았다. 그렇게 또 그는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헤집어 놓았다. 현장조사원의 애환을 가슴에 안고, 또 다시 그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면접을 시도하기를 수 차례. 그러는 사이 내 마음도 조금은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써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속고, 또 속고를 몇 개월을 반복하던 어느 주말, 내 카카오톡에 새 친구가 보였다. 나를 속이고, 또 속이는 그 아들이었다.

그동안 폴더폰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꾼 모양이었다. 기회다 싶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스마트폰 장만하셨네요? 축하해요. 가끔 카카오톡 해도 되지요? 하며
소심한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를 안받아주면 어쩌나 초조해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답을 보내왔다.

얼굴 보면서 대화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카카오톡에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아마도 스마트폰이 신기하기도 했을 것이고,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건 부담이 훨씬 덜 하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은 단순했다. 그날의 안부를 묻거나, 재미난 동영상이나, 유머를
보내주며 편한 친구처럼 다가갔고, 요금제 바꾸셨어요? 요금제 바꾸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까먹으셨죠? 하고 요금제 변경 기간을 알려주는 등의
그의 일상을 챙겼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에게 스마트한
세상을 알려주겠다며, 휴대폰의 여러 기능을 알려 주기 시작했다.

특히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첨부하는 기능을 알려 주었다. 위낙에 무뚝뚝한
사람이 이런 기능들이 신기하기는 하였는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했다.

조심스레 접근 중

유머 동영상 보내 주며 탐색 중





그렇게 해서 나는 그의 스마트한 변화로 급여명세서, 현금영수증 내역서, 마트영수증 등을 카톡으로 받기 시작했다.

매번 똑같이 적어야 했던 나의 가게부 급여명세서 내역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앱을 통하여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의 미완의 가게부는 점점 더 완벽해져 갔고 스마트해져 갔다. 나의 현장 조사는 조금씩 쉬워지고 있었다.

경조비는 없어요? 로또는 얼마나? 이발은? 조카들에게 준 용돈은?

처음엔 그런 것까지 뭐 하러 적어요? 라며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이 공간에선 순한 양이 되어 술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갔다.

아직은 수동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얻어낸 자료건수가 점점 늘어 평균 80건 정도의 자료에서 이제는 130건을 훌쩍 넘기는 알찬 자료가 되었다.

기능 알려주며 자료 수집 중

급여명세서는 기본, 중신보험 자진 신고중



구멍 난 것처럼 비어 있던 가게부의 내용이 한 줄 한 줄 채워질 때마다, 그 뿌듯함과 희열, 감동, 그 감사함이란!

조금은 저장하겠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조사원 생활에서의 여러 굴곡진 고개를 묵묵히 넘긴 데에 대한 값진 보상, 비표본 오차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나에게 내려준 선물 같은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통계조사원으로서의 질긴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작은 힘이 되는 등대 같은 존재일 것이다.



●● 두 번째 이야기 -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새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사가구였다. 60대 부모님과 결혼한 딸 내외와 손자로 구성된 대가족이었다. 가게부 구역이라 설득을 해야 하는데 대가족인 것도 부담이었지만, 딸이 서른 초반에 뇌출혈로 두 번이나 쓰러져 대수술을 받았고, 게다가 6개월이 넘는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언어마비와 편측 운동신경 마비의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더 고민스러웠다. 그리고 설득도 설득이지만, 뽐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미모의 소유자에 4살 난 아이를 둔 엄마라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아픈 아내 때문에 서울에서 일식집 주방장으로 일하던 아이 아빠도 혼자 힘으론 아내를 돌볼 수 없어 처가에 내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래 저래 쉽사리 가게부를 써달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 집이었다.

그래도 어찌랴. 이런 사정도 저런 사정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통계표본 조사원이 지닌 숙명이니... 대체할 만한 가구도 없으니 설득할 수 밖에...



여러 번의 방문과 설득 끝에 60대 부모님은 어렵사리 써주시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딸 내외가 문제였다. 아무리 함께 산다지만 결혼한 딸 내외의 살림 살이까지 노모가 알 수는 없는 법. 언어장애를 가진 딸과는 의사소통은 안 되었고, 사위는 활어차 운전을 하여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나 귀가하는 고된 일을 하는 형편이니 가게부를 써달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무리인 듯 했다. 그래서 사위되는 분에게 바쁘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보완해가며 가게부를 써 나갔다.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으로 통화시간도 짧고, 혼자서 생계를 다 책임지다 보니, 여러 가지를 물어 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서 보완은 보완일 뿐 마음이 찢찢하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사위가 활어차 일이 너무 힘에 부쳤는지 예전에 서울에서 하던 일식 주방장이었던 경험을 살려 조그마한 퓨전 일식집을 오픈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의 병원비로 빚까지 진 터라 그 흔한 오픈 광고도 하지 못하였고, 가게도 외진 곳에 위치하여 장사가 그리 잘 되고 있지는 않은 듯 했다.

카카오스토리로
가게 홍보 중

내 담당가구에서 개업을 했으니 팔아도 줄 겸 한 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는 사무실 직원들 몇 몇과 함께 가게를 찾았다. 음식이 나오자 가게 홍보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정갈한 음식들을 맛깔스럽게 찍어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민희 씨가 작성한 9월분 가게부 내용 중〉

같이 간 직원들도 동참하며 자신의 카카오토리에 나의 스토리를 공유해 올려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댓글 반응은 기대 이상이였다. 여기저기서 위치를 묻고 다음 약속 장소를 잡는 등 새로운 가게에 대해서 많은 지인들이 무한 호기심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하지 못했던 사무실 직원들도 알음알음 아는 분들에게 그 가게를 추천해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게부 회수를 위해 조사구를 가게 되었다. 그때 만난 사위는 나를 무척이나 반겨주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올린 스토리와 공유해서 다시 올린 스토리를 보고 오는 손님이 많다면, 본인도 카카오토리 홍보 효과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카카오토리의 홍보가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나 싶어 나 역시도 의아했지만 나의 스토리로 인해 부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사정이 어려운 가구에게 조사를 부탁했던, 조금은 미안하고 안쓰러웠던 마음도 가시는 듯했다. 꼭 내 스토리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미력하나마 홍보를 해 주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내 일처럼 기뻐다.



그 뒤로도 대상 가구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사무실 직원들도 자주 찾아 주어, 조사 가구에게 열심히 보탬이 되어 주시는 모습에서 진한 동료애까지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 폰 하나에 여러 따뜻한 마음이 내게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몽글몽글 무언가가 스마트폰에 만들어졌다. 조사에 협조해주기 어려울 만큼의 장애를 지닌 민희 씨가 스마트폰에 지출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고, 영수증도 모아주었다. 연필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손힘도 없는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자판을 힘들게 누르면서 스마트폰으로 가계부를 써 주기 시작한 것이다.

온 식구가 나의 작은 노력에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민희 씨가 어떻게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어렵게 자판을 눌렀을 모습을 생각하니, 또 한 번의 몽글함이 전해져 온다. 그렇게 어렵게 써주는 가계부와 함께, 다섯 식구의 엄청난 양의 가계부는 입력 중에 자료가 날아가는 불상사가 생겨 다시 입력 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했지만 민희 씨와 그의 가족이 써주는 가계부는 신뢰받는 통계생산에 무척이나 큰 일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난 SNS를 통해서 가족과 지인들과의 소통 뿐만이 아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조사자와 응답자와의 관계지만 내 가족처럼, 때론 친구처럼, 언니처럼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 그것이 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라는 훌륭한 자료를 받고 있다.

표본가구에서 본인이 국가통계를 위하여 이 한 몸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가계부를 잘 써주는 사람만 표본 가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열심히 쓰지 않는 사람.

아예 안 쓰겠다고 드러눕는 사람.

열심히 쓰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가계부 등...

아마도 가계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원들이라면 이런 사람들, 이런 가계부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것처럼,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이 이들에게 좀 더 쉽게, 아니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휴대폰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물리적인 거리를 벗어나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관심만 있다면 쉽게 친구가 되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고, 상호 신뢰 속에 저절로 질 좋은 통계생산의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세상이다.

내 손 안에 작은 휴대폰에는 나만의 현장조사 이야기가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응답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서, 또 다른 통계조사 자료만이 아닌, 뭔가 뭉클하고 뭉클한 것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조금은 구멍이 나 있었던 몇몇 가구들의 가계부가 변하고 있다.

스마트한 세상에서 나의 가계부 또한 스마트하게 변신 중이다.



| 내 가계부는 스마트하게 변신 중 |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셋

소중한 인연이 주렁주렁 나만의 행복주머니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유 영 선

매일 오가는 출근길, 소중한 인연이 주렁주렁 달린 나만의 행복주머니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2007년 8월 어느 날, 여행사에서 관광 가이드(중국어 통역)로 일을 하다가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통계조사 업무가 평생을 서야 할 나의 인생의 무대가 될 것 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응답자분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내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른다. 그분들 중에는 현장조사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나와 연락을 하고 있고 가끔씩 만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7년째 통계조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들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었고, 그들

과의 추억은 내 가슴속 깊이 자리하며 이렇게 내 행복주머니 속에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있다. 지금 나는 그 행복주머니 속의 많은 인연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몇 분을 살며시 꺼내본다.

광주시 도착면 진우리 조사구에 사시는 응답자 어르신과는 첫 만남부터 강렬했다. 어르신은 통계청의 통 자만 들어도 싫다고 진저리를 치실만큼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했는데, 난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10분 아니, 5분만 시간을 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려도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셨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왜 그럴까???를 수없이 되뇌며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던 그 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못내 아쉽고 서운하다. 그러나 그렇게 완강하셨던 어르신이 내게 처음 말을 걸어주셨던 그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머리를 예쁘게 잘라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있을 때, 내게 그리도 불응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집이 어디냐? 애는 몇이나? 하며 질문을 하셨다. 평소에는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시던 분이 밤이 늦어 집에 어떻게 가냐? 물으시며 차 위의 눈까지 치워주고 갑자기 자상하게 대해주시니 눈물이 왈칵 나올 뻔 했다. 그렇게 불응하시던 어르신의 호의를 감사히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돌변한 어르신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날 만큼은 칠흙과 같은 어둠과 수북이 쌓인 눈길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다.

집에 무사히 돌아온 안도감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기도 했다.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뭘까? 또 무슨 트집이라도 잡을 일이 생겼나??



왜일까???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불안 반 걱정 반으로 밤을 지새웠다.

사흘이 지나고 다시 방문했을 때 조심스런 마음에 눈치를 보며, 어르신 안녕하세요?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하며 인사를 드린 후 비로소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초혼이 아니었던 두 분은 재혼을 창피하게 여겨 마을 주민들도 모르는 일을 통계조사로 인해 주민들이 알까봐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것이다. 나는 통계조사에서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은 엄격히 법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저희 통계청 직원은 비밀보호를 철저히 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드렸다. 그리고는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제게 잘해주시게 되었어요? 하고 물으니 어르신은 내가 마을 어르신들을 친부모 같이 대하며 머리도 잘라드리고 안마도 해주는 걸 보니 너무도 마음이 예뻐 보이고, 착해 보여서 그랬다고 하신다. 이렇게 한 번 마음을 열어주신 어르신은 내 손을 맞잡고 이야기 삼매경에 빠졌고, 그날은 결국 저녁밥까지 얻어먹고 나서야 집에 올 수 있었다.

늦은 시간 나뭇가지에 걸린 달을 벗 삼아 돌아오며 너무도 행복했고, 내 행복주머니에는 또 하나의 행복인연이 주렁주렁 열려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면 정말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도처럼 조사구의 한 응답자와 신흥동 조사구의 한 응답자가 바로 그런 분들이다. 두 분은 모두 돌아온 싱글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계셨는데, 조사를 하며 몇 번을 보니 이렇게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 왜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으실까? 하고 안타까웠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생각에 살짝 운을 떼어 보았더니,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눈치가 보여 바로 만남을 주선했다. 다음날 사무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두 분은 처음부터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중매를 여러 번 해본 경험으로 비춰볼 때 웬지 잘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난 타고난 뚜쟁이 ㅎㅎㅎ)

결국 나의 응답자 두 분은 11월에 재혼을 결정하셨다. 항상 외로워 보이시던 두 분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잘 됐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두 분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은 내 행복주머니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연 중의 또 하나로 채워지게 됐다.

내가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내가 가진 장점을 현장조사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으로 학창시절에



미용기술을 익혔고, 또 중어중문학을 전공하여 통역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매우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져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재주가 있다고들 얘기한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연동조사구에는 중국의 한족 조선족이 유난히 많다. 난 그들에게 중국어로 통계조사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불이익과 차별대우로 퇴색되어버린 가슴 속 응어리들을 따스한 말로 위로해 주며, 푸근한 미소로 그들의 고충을 들어준다. 그들은 자신들과 소통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깊게 쌓인 응어리가 풀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쁨과 안도감을 느끼며 행복해 하고 새 삶을 위해 도전을 다시 시작하곤 한다.

어느 날 현장조사 면접기법 교육을 위해 소장님과 함께 동행 했을 때 응답자 어르신들께서 조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용봉사, 안마봉사, 노래봉사까지도 잘한다며, 항상 보고 싶은 영선씨~ 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들을 해주셨다. 소장님께서도 평소 그런 나의 유쾌한 성격을 아시는지라 영선씨의 장점은 조사구에서 역시 그 빛을 더 발휘하시는군요! 하시며 호호호~~ 매우 흐뭇해 하셨다.

요즘은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오늘은 오지 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널 와. 하시며 안부 전화를 잊지 않으시는 응답자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갑자기 어느 한 응답가구가 생각이 난다. OO지역은 워낙 열악한 곳이라 삶이 힘들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범지역으로 낙인이 찍힌 소문난 관리대상 지역이다.

어느 날 연동조사구에 예비조사를 갔었는데 온 몸에 문신을 한 젊고 외모가 준수한 남자분이 나오기에 통계조사 연동표본 대상이 된 것과 통계조사에 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낮빛이 서서히 바뀌면서 분위기가 이상해 지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순간 위협을 느꼈고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주춤했다. 10초까지 셀 동안 안 가면 내가 무슨 연장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설명은 불가능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사정없이 흘렀다. 나는 정신없이 뒷걸음쳐서 허둥지둥 옥상에서 어떻게 계단을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놀란 가슴을 안고 사무실로 바로 복귀해서 팀장님, 소장님과 상의를 했더니, 소장님께서는 TV 뉴스에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귀가 안전서비스 제도를 봤는데 활용해보자고 하셨다. 우리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시는 소장님께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님과 면담을 하셨다. 관할 경찰서장님께서는 여성 귀가 안전서비스 제도를 국민들이 잘 몰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구역이 워낙 우범지대라서 사건사고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청 성남사무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국가정책을 위해 통계청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직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저희가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관할 지구대에 적극 협조해 주라는 지시와 함께 여성범죄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켜준다 하셨고, 소장님은 약속 일자까지 받아오셨다.



그로부터 이틀 후 관할 경찰서에서 오셔서 전 직원(구리, 이천 인근사무소
여직원 포함)에게 여성 범죄에 대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 여성 귀가 안전서비스 제도 활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었다.

그 후 조사를 위해 밤에 그 가구를 방문할 때 여성 귀가 안전서비스 제도 를
활용하기로 하고 해당 경찰서에 전화로 신청한 후 조사구로 향했다. 입 안의
침이 마르고 손에는 식은땀이 자꾸 나고, 이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다.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왔다면 기분 나빠서 조사를 안 해 줄 까봐 경찰관들은
계단에 대기하고 있고, 나는 조사를 위해 옥상까지 살금살금 걸어가는 동안
내가 이게 뭘 짓을 하는 것인지?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하고 후회도 밀려왔지만 그 맘도 잠시 뿐. 문 앞에서 푹푹 노크를
하니 그 멋진(?) 응답자가 문을 벌컥 열어 주었다. 나는 침을 한 번 꿀~~쩍
하고 침착하게 통계조사에 관련한 설명을 했다.



그 문신이 멋진(?) 응답자는 비스듬히 서서 비웃
듯이 코웃음까지 치면서 나의 위 아래 동태를
살피는데 그 눈빛에 소름이 돋았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태연을 가장해 빠르게 설명하고
답에 또 조사하러 오겠다며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
오는데 뒤에서 꼭 칼로 찌를 것 같은 공포도 있었
지만, 계단에 잠복하며 내 신변을 보호해 주시는
고마운 경찰관님들이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감도 생겼다.



휴~~ 안도의 긴 한숨을 쉬는 나를 보며 경찰관님들은 정말 혼자 다니시면 무섭죠? 앞으로도 필요할 땐 연락 주십시오 하신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저희가 아니어도 평소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저희까지 괴롭혀드려서 죄송해요. 하고 정중히 감사인사를 드렸더니, 다 본인들이 할 일이라며 괜찮다 하시는데 경찰관분들이 그날만큼은 그렇게 멋지고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마운 경찰관님들의 도움까지 받으며 그 멋진 분을 조사하러 갔지만, 무서운 마음에 통계조사에 대한 설명만 급하게 대충 드리고 나중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허둥지둥 나를 지켜주는 경찰관들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온 내가 참 미련스럽고 싫었다. 그리고 내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왔다고 생각하셨을 경찰관님들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다.

공연히 경찰관님들만 고생시켜드렸네!!! 돌아오는 길에 때늦은 후회와 함께 다음에 와서는 미리 겁내지 말고 이 응답자의 맘을 꼭 움직여 보리라 다짐했다. 외모(항상 계슴츠레한 눈에 전신 문신)만 보고 선입견의 그물망을 내가 먼저 쳐버린 것은 옳지 않은 건데...라는 반성과 함께.

비록 설득은 못했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통계에 대한 설명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갈 수록 열악해지는 현장조사 시 두려움에 앞서 신변의 안전까지 염려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신변보호를 위한 여성 귀가 안전서비스 제도 를 늦은 시간까지 면접하며 조사해야 하는 가구부문통계조사와 접목해서 활용해보니 참 든든하고 유용했다.

며칠 후, 그 멋진 분도 내가 진심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잘해주시겠지 라는 기대와 함께 또 방문했다. 나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겁내지 않고 내가 방문한 목적과 통계조사의 취지를 자세히 상냥하게 설명 드렸다. 그 멋진 분은 역시나 폭~~ 쏟아진 눈으로 당장 나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문을 꽂 닫아버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참 어렵다!!! 무서운 마음의 선입견을 버리고 나부터 마음을 열고 찾아갔건만 마음을 열어줄 듯 하다가도 닫아버리고... 종잡을 수도 없는 그 멋진 분!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 이상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그 후 몇 번의 방문을 통해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얼굴을 익히는 정도의 인사만 건네고 있다. 그래도 나에게 포기란 없다. 언젠가는 꼬~~옥 그 멋진 응답자를 설득하리라 다짐해본다.

연동표본조사가 시작되면 응답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각박한 현실과 무언가 쫓기듯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강박감도 앞서지만, 그래도 친절히 응답해 주시는 가구들이 많기에 힘을 낼 수 있으며, 설렘 또한 생기는 모양이다. 오늘 성사가 안 되면 내일이란 희망이 있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다가갈 것이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무언가 그분들 개개인의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마음의 문을 자물쇠로 잠가 버렸을 것이다.

그런 그분들에게 통계조사 자료만 받기 위해 급급한 나보다는 그분들의 아픔을 진정 헤아려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길러, 그분들이 꺼내기 어려운 속 깊은 얘기도 함께 나누며 때론 상담사, 아들·딸, 선생님, 부모님 역할 까지도 대역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현장조사의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조사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00%의 통계조사를 위해 불응을 설득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장 조사관들의 의무이고 존재가치라고 매번 말씀하시는 우리 소장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꼭~~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또한 100%의 통계조사 실적을 이뤄내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나의 노력, 더 나아가 통계청의 노력이 함께일 때 커다란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걸 새삼 많이 느끼며, 나는 계속 쉬지 않고 파이팅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쁜신 응답자 어르신들!!! 감사합니당!!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약속~~) 오늘도 이렇게 외치며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재능과 자질을 통계청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오늘도 세상을 관통하는 통계라는 매력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해피바이러스를 뿌리며, 나만의 행복주머니 속의 새로운 인연의 설렘을 또 다시 기대해본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쟁~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의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조사구로 떠났니당~.

통계가족 여러분!! 우리의 분신인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기만의 소중한 행복주머니 속의 많은 인연들을...!



은 상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넷

파란만장!!

통계공무원 생활 곡선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김 희 진

입사 8년. 그 중 통계조사 6년. 현재까지 통계조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저의 인생 곡선을 그려 봤습니다. 행복으로 시작해서 깊은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저의 통계공무원 인생 곡선!! 시작합니다.



●● 통계조사 접하기 전 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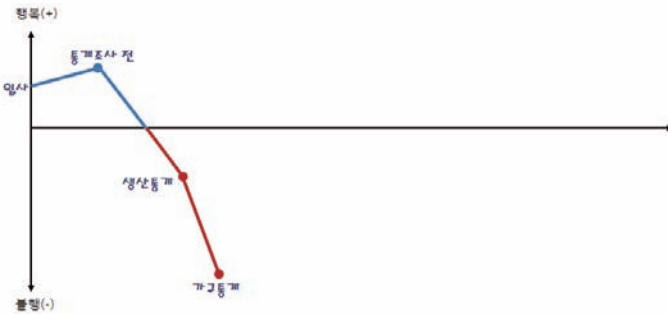


입사 초반,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다는 기쁨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성취감과 함께 기대감도 있었고, 신입사원에 대한 선배님들의 관심과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모두가 내게 먼저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사람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따뜻한 관심 속에 생활할 수 있었다.

그렇듯 나의 입사 초기는 모든 분들의 나에 대한 관심이 내가 잘난 사람 이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착각 속에서 도도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



:: 시련 그리고 충격과 공포!!!



나 잘난 맛에 즐기던 시간은 그 잠깐의 꿈이었을까? 내게 안락함과 행복감을 주었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혹독한 시련으로 나를 단련하기 시작했다.

농업생산통계,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르다

그 이름만 들어도 뜨거운 땀내로 머릿속을 가득 메우는 농업생산통계! 생산 통계의 꽃은 역시 곡식이 익어가고 가축 분뇨 향기가 진동을 하는 한 여름



부터 가을까지가 아닌가 싶다. 이글이글 피약벌 아래 논밭의 작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온 산속을 헤매다 보면 엉덩방아는 기본이요, 비탈에서 구르기는 옵션이다. 짹~ 소리 지르며 도랑에 침병 빠진들 구해줄 이 아무도 없이 꾸역 꾸역 스스로 기어 나오는 수밖에...

좁은 길목에서 차가 도랑에 빠져 움푹달락하지 못하기도 수 차례. 이제는 주위에 누가 있나 없나 확인 후 신속하게 불일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을 지닌 생산통계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한나절 돌고나면 점심 때. 미리 찜해놓은 마을 정자에 앉아 아침에 출장 나가면서 사들고 간 김밥 한 줄을 꺼내놓고 잠시 휴식~. 혹시나 뱀에 물릴까 더위에도 무릎 높이까지 신고 다니던 고무장화를 벗어 던지니 땀에 폭 젖은 내 다리가 허연 땀 마냥 익어있다. 김밥 하나 입에 물고 나면 이게, 이런 게 꿈꿔왔던 공무원인가 생각하니 자괴감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인내심의 끝을 시험하게 하는 가구업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누가 얘기한 걸까? 사회조사과에 발령받으며 새로이 접하게 된 가구 업무. 앞친 데 뒤흔 격이었다. 좋은 점이라면 생산통계업무를 하며 진력나게 입던 등산복 대신 예쁜 치마 입고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경찰주간 전 일요일 밤. 도저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일이 오지 말았으면... 한 달 중에 셋째 주는 통째로 없어져 버렸으면...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고 아침은 밝아왔다.

땡땡!!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아이씨~~ 안 한다니까 왜 자꾸 와~

선생님, 딱 1분이면 됩니다. 지난 주에...

참내... 안 한다고~!! 안하면 어쩔 건데~~ 고소라도 할래? 고소해!!

이딴 답례품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들고 있던 답례품을 내 머리로 향해 집어던지더니 쿵!! 하는 문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다. 내 머리에 멍한 울림을 준 뒤 때굴때굴 굴러간 답례품을 주섬주섬 챙겨든 후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 계단을 더듬거리며 주차해 둔 차를 찾아 들어 앉으니 태어나 처음 느낀 모멸감을 떨칠 길 없어 온몸을 덜덜 떨며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그 날의 사건은 내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불응가구와 신규 전입가구의 설득을 위한 방문은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차라리 아무도 없기를 기도하며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은 벌렁거리고 점점 더 자신 없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응대하기 시작했다.

(더듬거리며) 저기... 아, 아...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아... 네... (포기)

그렇게 잔뜩 주눅이 든 채 가구를 방문하니, 전과는 달리 응답자에게 더 많이 상처받고, 그러면서 더 많이 움츠러들며 결국 불응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하다

나를 반기고 기다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얻다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일에 대한 회의가 들 즈음 아파트 연동표본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내에 위치하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했지만 들어가는 출입문부터 비밀번호로 굳게 닫힌 그곳.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자,

왜 하필 106동인가요. 그 동이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협조 안 되고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운 동인데...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방송도 함부로 못해요~. 방송 한 번 잘못하면 자는 애 깬다, 시끄럽다 하면서 얼마나 항의가 빗발치는데요! 걱정하시는 말을 들으니 숨이 턱 막혔다.

그래도 새로 시작된 조사구를 망칠 수 없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부터 아파트 밑에서 잠복근무 시작! 방문사실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각 현관에 붙여두고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파트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후다닥 뛰어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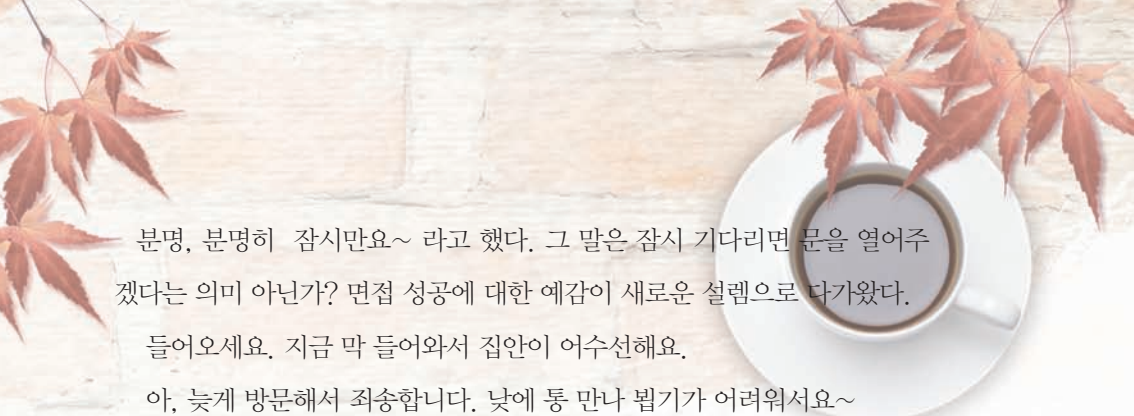
(두근두근) 땡동~~

누구세요?

통계청입니다. 방문쪽지 보셨죠~

아, 네. 잠시만요~





분명, 분명히 잠시만요~ 라고 했다. 그 말은 잠시 기다리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 아닌가? 면접 성공에 대한 예감이 새로운 설렘으로 다가왔다.

들어오세요. 지금 막 들어와서 집안이 어수선했어요.

아, 늦게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낮에 통 만나 뵙기가 어려워서요~

네. 저희 부부가 맛벌이를 해서요. 추운데 커피 한 잔 드세요.

내가 조사일 때문에 힘들어 할 때 누군가 그랬었다.

우리 일이 그래. 이 집 가서 상처받고 울고, 저 집 가서 따뜻한 말에 위로 받으면서 그렇게 버티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바로 오늘이 내가 그 따뜻한 말에 위안 받을 수 있는 날이구나 싶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추운데 고생이 많다는 말 한 마디에 그동안 얼어붙어 움츠렸던 마음이 사르륵 마술처럼 녹는 게 아닌가!

그 한 겨울 추위 속에서 건넌 그 따뜻한 말 한 마디가 내가 이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듯싶다.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었던 탓일까? 그렇게 다시 용기를 얻은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따뜻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고는

아유~~ 이 늙은이 혼자 사는데 이렇게 자주 자주 들여다 봐주고, 정말 고맙네. 고마워~

하시며 꼬깃꼬깃 모아놓은 가게부 영수증을 내놓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방문한다는 말에 떡도 사다 놓고 음료수도 사다놓고 꼬박꼬박 기다리시기도 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마음이 열리니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신 이 분들께 내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나를 위해 과자 한 봉지라도 준비해줬다 슬쩍 내미시는 그 분들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겼다.

내가 몸이 아파 몇 년 전부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당게~~

아~~ 그럼 전화요금이란 뭐 이런 저런 할인은 받고 계세요?

그게 뭐여?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뭐 깎아줘?

잠깐 계서보세요. 제가 전화국에 통화해 볼게요. 전화요금 뿐 아니라 도시가스랑 전기요금도 다 할인돼요. 여태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하며 전화국과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기도 했다.

어느 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가구에 들러보니 숨쉬기도 어려운 듯 꿈쩍 못하고 누워계시다가 내 인기척에 겨우 기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어머님~ 저 왔어요. 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응. 그제부터 몸살감기가 와서 아주 꿈쩍도 못했어.

식사하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꿈쩍 못 하니 밥을 어찌 먹누. 너무 배고파서 이거 요구르트 두 개 먹고 견디는 참이여.

방 귀퉁이에 요플레 두 개를 바닥까지 싹싹 훑아 드신 듯 껌데기만 굴러다니는 걸 보니 이러다 혼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찌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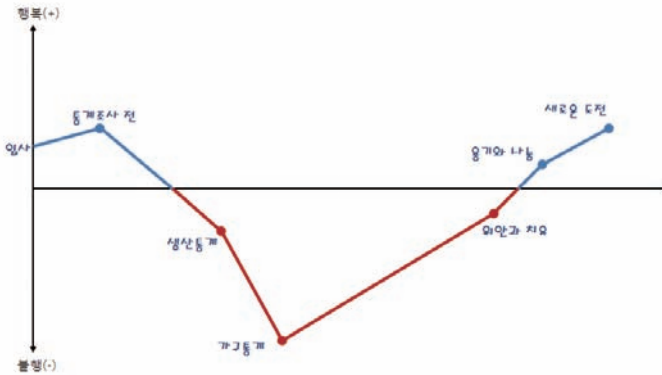
어머님. 많이 편찮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만 건 못해드려도 근처에 왔다가 어머님 병원 모셔다 드리는 거, 가까운데 가시는 거, 그런 거는 도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데가~ 일 년에 한두 번 보는 자식들보다 낫구면, 길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가.

하시며 요플레 하나를 손에 꼭 쥐어주실 때는 온갖 욕 먹어가면서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뜨거운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 수많은 물음표의 역습, 새로운 발전의 기회



그렇게 내게 상처와 위로를 동시에 주는 그들과 씨름하다보니 6년의 시간이 흘렀다. 평생을 이 일에 몸 담고 계신 선배님들도 계신데 나의 6년이란 시간이 그리 대단치만은 않지만, 조사업무를 시작한 처음 6년은 선배님들께서도 나와 같이 폭풍 속의 나날을 보냈으리라.



그들의 퍼런 날이 선 말 한 마디에도 애교 섞인 웃음으로 설득해 보려 애쓰는 내 모습이 낯설지 않을 만큼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니 오히려 뭔가 허전한 듯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무조건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단순히 입력할 때와는 다른 물음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는 없을까? 통계조사담당자로서 나 자신은 통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그냥 조사나갔다가 입력하면 그걸로 나의 할 일은 끝난 걸까? 나는 왜 질문하고 그들은 왜 똑같은 대답들을 나에게 하는 걸까? 내가 조사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나는 그냥 이대로 머물러 버리는 걸까? 등등 수많은 물음들이 내게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역시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니 잡생각만 많아지는 건가?

머무르면 썩는다고 했다. 이대로 만족하며 손끝 발끝에서부터 조금씩 썩어들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위기감 속에서 나는 공부 를 하기 시작했다. 지침서 공부, 설득방법에 대한 공부, 조사방법에 대한 공부, 내검 방법 개선에 대한 공부, 통계학에 대한 공부, 보도자료에 대한 공부...

하나씩 하나씩 내 생활의 여유 부분을 새로운 발전과 자아개발에 대한 노력들로 채워나가는 것. 그로 인한 결과가 내게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내 위치에서 45° 위를 바라보며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오늘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6년차! 앞으로 기분 좋은 일들로 스스로 채워나가리라는 의지와 자신감이 있으니 걱정 없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통계 곡선을 플러스(+)로 만들어 가리라.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다섯

다큐 365일!!! 울타리를 넘어서~

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김 은 경

5월 근로자의 날 즈음이면 주제로 떠오르는 감정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최근 우리 사회의 한 이슈가 되고 있다. 판매원, 외판원, 고객센터 상담원... 서비스 업계종사자라면 누구나 사람을 상대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며 늘 자기 감정과는 상관없이 고객을 향하는 스마일, 친절, 자기감정 절제로 심리적인 외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감정노동자』이다.

2013년 10월 현재 나의 직업은 통계조사원!! 이 역시 또 다른 감정노동자~!!

2009년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시작으로 한 개의 조사를 마무리할 때마다 일기처럼 써왔던, 그 힘들고 보람된 순간들의 감회가 서린 수기들은 인간 극장보다 더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다. 통계현장 속 이야기들을 읽어 보노라면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슴이 썩~아 코 끝이 찡~~ 해진다.

처음 통계조사현장을 누비며 자료수집, 협조요청, 비협조 불응에 순간들을 밤잠을 설치며 또 어떻게 접근해서 설득하고 해결할까 고민하던 그때의 절박함에 비하면 지금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 시간이 해결에 주겠지! 라는 조금은 무뎌진 칼 같은 마음이 아쉽기만 하다.

2011년 1월 서비스업동향조사 추가표본으로 경상조사업무를 하며 조사에 생소한 대다수 업체 설득하고 표본 안정정착화 될 무렵인 2012년 10월 사업체부분 표본개편이 시작되었다. 추가표본은 지수발표도 않고 시험조사라 표본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등 동시에 추가표본으로 채용된 조사원도 중도 해고될 수 있다는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였다. (무기직전환도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느끼던 때도 있었다.)

꼬박 2년을 내 울타리 가꾸듯 정성껏 관리해온 89개 추가표본사업체가 이번 개편에 70% 이상이 교체되었다. 또 다시 신표본과 맞서 이성과 지성 감성으로 다가가야 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당신! 이거 한 건하면 얼마 받아? 중식음식점업! 버거운 불응징크스??

추가표본시절 규모가 제법 큰 중국음식점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여 표본 대체를 한 적이 있다. 조사와 유대를 위해 끈질긴 방문과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직접 표본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전화를 본청으로 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표본대체가 가능한 조사이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대체 포기를 생각할까봐 처음부터 폐업, 조사대상 외가 아닌 경우는 배정받은 표본을 고집한다. 끝까지 노력, 설득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하는 의욕, 신념, 오기, 열정은 때론 생각지 않은 일로 번지곤 한다.

OO궁!! 또 중국음식집 그것도 성서공단에 위치한 1, 2층 길만 봐서도 한 눈에 고급 요리집이다. 출입구 다닥다닥 붙은 OO대학교 후원의집, OO호텔 자매결연, OO복지재단 후원, 등 다양한 홍보용 표지는 마음에 훈훈하게 와 닿았다.

1차 면담 >>>>

조사협조공문에 조사표, 조사기록부 2013통계청 다이어리까지 챙겨 다시금 맘을 다잡고 들어섰다. 화교인 여사장과 화교인 지배인 그리고 화교인이 절반인 종업원들... 주방장인 남편은 이 업계에선 알아주는 유명 중식 요리사란다.

조사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자 꼬리를 잘라먹은 말투!

왜 하필 우리 집을 조사하는데...

조사가 아니고 자료수집 협조요청 드린다며 거들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다. 세금도 정확하게 신고하고 대학교, 복지재단에 후원도 하고 구청 보건소 등 그 어떤 것도 협조해 주었다 자랑이다. 좋은 일 하시고 잘하고 계시네요. 들어주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2차 면담 >>>>

역시 바쁜 사모님이시라 사전 시간 약속 없인 면담불가! 지배인을 통한 내부 정보 얻고자 여분 다이어리를 한 권 안김.

3차 면담 >>>>

가다보니 점심시간~ 근처 사는 동생 조키들 불러 점심 한 끼 사주자 마음 먹고 내 사업체가 될지 어떨지 앞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비싸디 비싼 요릿집 탕수육에 짜장면, 짬뽕 주문. 조사는 뒤로한 채 얼굴 익히기엔 이만한 것도 없을 듯. 사장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4차 면담 >>>>

면담 가능한 시간과 사장님 성향 등 사전파악을 한 후 작심하고 향한 날. 동향조사라 매달 해야 하며 종사자수, 매출액 조사한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골치아픈 거 싫은데 1억 이하~ 대충 적어가라며 손사래를 친다. 대충이 어느 정도인지도 안 가르쳐주는 무심함. 오늘도 이만~~

5차 면담 >>>>

좀 더 정확히 할 욕심으로 상품권까지 한 장 챙겼다. 조사표 내놓기 전 우선 상품권부터 내민 손!! 코웃음 친다. 손이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고급 요릿집! 만 원짜리 한 장에 기대를 한건 아니지만 나름 세심하게 챙기며 다가서기위한 것들이 조사표 쓸어안고 일어서는 맘만 씹쓸하게 한다. (차라리 소박한 영세업체에 주면 반기며 고맙게 받고 인사나 듣지~~)

6차 면담 >>>>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대구시내 동종 경쟁업체 다 물어봐도 이 조사해주는 곳은 없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주 이유는 매출과 종사자수 노출이 싫어서란다. 그럼 노출되는 세무서 신고금액으로 해주셔도 된다고 해도 가우뚱.



통계법상 비밀보장 등 법조항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도 당시엔 끔찍하다고 돌아서면 또 제자리 원점이다.(대구시내 규모가 큰 중국음식점은 대부분 표본사업체임에도 응답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사여부는 모르는 것이다.)

7차 면담 >>>>

어느새 표본개편작업이 완료되어가며 명부도 시스템에 탑재 마무리가 되어간다. 표본으로 자리 잡아 원활하게 조사 가능한 건지 판단해야 될 시점. 재차 조금함으로 방문했다.

가끔씩 올그락푸르락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던 주방장(사장 남편)이랑 함께 계신다. 표본 확정을 생각하며 다시 재확인 간 날, 영영 표본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날이 되었다.

Q 당신! 이거 한 건 하면 얼마 받아? (보험아줌마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

Q 당신 돈 벌려고 영업집에 이렇게 귀찮게 해도 돼? (최대한 영업에 지장 안 주려고 바쁜 시간 때는 피하고 음식도 팔아 줘는데...)

Q 당신 도대체 소속이 어디야? (명함 전해준 지가 언제데... 무관심?)

Q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구청 세무서 가서도 할 말 다하는 사람이야. 통계청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마도 팔뚝에 용문신??이 있을 듯.)

영업장 접근금지, 영업방해로 고소하기 전에 당신 월급 받는 만큼만 하라는 억지스런 소리로 물러서게 만든다.

커질 대로 커진 언성에 샷대질 섞인 주방장(사장 남편)의 상식 밖의 행동은 안절부절 사모님의 만류로 잦아들긴 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설명도, 서 있을 힘도 없다. 원하는 대로 조사협조 못해줘서 미안하단 사모님을 뒤로한 채 차에 올랐다.

이런 거 필요 없으니 갖고 가라며 뒤이어 주방장 손에 들려있던 다이어리 상품권이 차 안으로 툭 던져지는 순간! 이 사업체는 미련 없이 포기하기로 맘먹었다. 어떤 불응에도 끄덕않던 감정이입 금지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OO궁에는 절대 안 가리라!

또 하나 깨달음이 있다면 불응, 설득 실패는 나의 능력, 노력, 성의 부족이라는 스스로가 쳐 놓은 울타리를 뛰어 넘은 것이다. 불응도 통계조사에 응답의 한 유형이란 걸 알았다.



🌈 매너리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 소비자물가조사 3시장 장돌뱅이로~

2012년 2월 이후 1년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출퇴근 기름값 절약은 물론 틈틈이 집안 살림에 애들 키우며 나름 편리와 익숙함이 몸에 젖어갈 무렵 한편으론 직장간 단절 소외된 느낌, 출근하는 날이 오히려 낯선 생활리듬이 또 다른 우울감으로 업무와 일상에 대한 슬럼프, 매너리즘으로 다가왔다.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표본개편과 동시에 업무분장, 광동과 서비스를 섞어 맡게 되고 소비자물가조사로도 지원 가능하단 기회가 주어졌다.

거론되는 소비자물가조사로 지원의향을 묻는 질문에 앞뒤 눈치 보지 않고 의사 표현한 것이 수많은 오해와 유쾌하지 않은 말들, 화젯거리 중심에서 가시방석이었다. 결국 지원자들끼리 제비뽑기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로 낙점되었다.



소비자물가조사 업무변경



월 농축 3일, 공업제품 2일, 서비스 2일 그리고 예비조사까지 영락없는 장돌뱅이다. 조사순기에는 아파도 안 되고 휴가도 교육도 순기일을 피할 수 밖에 없는 물가업무특성은 가격조사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한 물가새내기엔겐 버겁기 그지없었다.

인수인계 후 180여 개 대상처 위치 확인, 481개 조사규격, 품목 확인,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출장, 물처럼 쓰는 기름, 출장정비에 입안이 혈도룩 힘들어도 내색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기에... 처음 채용된 추가표본서비스업 동향조사 전용(?)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데 이 정도 짬이야 견뎌야지!

통계를 처음 접한 통합조사 후 가구조사 대행조사를 하며 불응하는 사람을 마주 한다는 게 엉성스러워 농어업과 쌀생산량조사 보조를 지원 한 적이 있다. 논밭의 작물들은 나를 밀어내지 않고 불응하지 않을 것 같았다. 즉, 몸으로 때우는 조사 그 후 2년 동안 쌀생산량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예취에서 탈곡 시료 재현과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뜰하게 체험한 때가 있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떤 일에, 조사에, 회의가 느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땐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신선한 에너지 재충전과 적당한 긴장으로 극복되리라 본다.





●● 절대반영시기 놓쳐서는 안 되는 공공서비스요금! 부문 조사누락 착오~

3월 11일 업무 변경 후 공업제품순기조사와 OECD-PPP가격조사 시즌까지 겹쳐 정신없이 진행되는 인수인계에 어느 것이 조사우선이고 신경써야 하는지 감 잡을 수 없이 시간은 훌쩍 훌러 지나갔다. 차곡차곡 대상처 확인과 품목규격 확인, 담당자 변경 인사차 방문한 곳에서 조사 착오 사항이 발견되었다.

조사가격 반영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공공서비스부문 납입금(대학교 등록금)이 3월 중순경에 확정되면서 2월에 조사한 기책정조사금액(미확정)에서 1.7%인하된 것이다. 대부분 2월이면 등록금 변동여부가 확정되어지는 자료가 각 학교 내부사정에 따라 연기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 대학원 등록금, 유치원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교복구입비 등 공공부문엔 반드시 가격변동 반영 조사시기가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과 초보자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중대한 착오를 범한 것이다.

변동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미 가격반영 시기는 지났고 다음 조사 시기(반기조사)까지 가슴에 돌덩이를 안은 부담감 속에 9월 납입금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연히 변동(인하) 있음에 대한 본청 질의와 함께 공공요금담당자와 그간 상황을 설명하고 인하 근거상황을 메모 보고 하였다.

일찍 맞는 매가 낫다고 하지 않던가! 가격반영 시기는 지났다 하더라도 본청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경우 발생되어선 안 되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라면 그 당시 바로 알려 주세요. 안고 있는 건 해결도 안 되고 괜히 맘고생만 하시잖아요. 라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은 우유부단하며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머뭇거리던 나에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힘이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반드시 가격반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특히 공공요금 공공기관 유관기관을 통해 받는 자료 경우 문서화 하여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수집한다면 어떨까?

또한 OO대학교에서조차도 먼 거리까지 방문한 조사담당자에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시대적방식으로 현장 면접조사 나오느냐는 따가운 시선에 시간, 인력, 세금 낭비하는 기관으로 취급한다. 등록금 인상 인하 관련 변동 근거자료라도 받을라치면 학교 내부문서를 통계청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며 기관 차원의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한다.

권역별 조사담당자는 있지만 대학교 초·중·고교 그리고 구청 기관을 통한 서비스공공요금 조사 경우 조사방법 개선을 통하여 통계청을 홍보, 소비자물가조사 정확성 이미지 인식 등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하며 구청과 도서관 등에 통계자료를 공문으로 수집한 사례가 있다. 면접조사 당시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집행한 통계자료 작성을 두고 취합할 부서가 많아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이어서 각 담당자들이 자료수집에 애를 먹었다.

당시 담당팀장의 일괄공문으로 자료제출 요청 및 지속적인 협조설득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조사 기일에 정례화 습관화된 자료가 메모 보고로 제출되는 걸 보며 내가 맡은 사업체 수 줄어드는 거 아닌가? 사람이 하는 일 기계가 하다보면 우린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한심한 걱정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올타리를 넘어 지금은 스마트한 시대인 걸!



●● SNS 통한 스마트한 조사전략~~ 품목앨범집, 서비스대상처관리집



〈카카오앨범 품목앨범〉

자기계발계획서에 나열한 것들 중에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조사규격과 제품 실물 사진을 접목한 품목 앨범제작이다.

처음엔 단순히 헛갈리는 제품구분을 눈에 익히기 위해 찍었던 것이 이젠 481개 품목 중 최소한 조사하는 품목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과 훗날 인수인계할 후임자가 낯선 신규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하는 바람으로 시작되었다.

그 수 많은 걸 어떻게 다 찍어? 물가 초보담당자보다 더 물가 조사에 대해 잘 아는 10년 이상 오래된 대상처 사장님들은 대충 하시지. 역시 여자라서 꼼꼼하고 세심하네요. 라며 한 마디씩 거든다.

제가 초보라서 제품이 낯설어 눈에 익히려구요. 조사하는 품목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할듯 해서요. 품목앨범집 만들어 업무 인수인계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제가 영원히 물가 조사한다는 보장 못하잖아요. 별별 구실로 양해를 구함에도 호의적이고 고개를 끄덕여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사장님 또는 매장담당자 허락을 받고도 찰칵 소리에 주위 손님들이 쳐다보며 이상하게 생각하여 단속 나왔나?~ 뭐지? 라는 통에 신경이 쓰여 지금은 무음 카메라 앱을 활용하여 촬영을 한다.

조사 제품리뉴얼로 바뀔 때마다 보완, 업데이트 해가며 특히 여느 사업체조사처럼 조사기록부가 따로 없는 소비자물가조사에서 대상처관리집을



어버이날 카네이션사건
페이스북에서



공업제품품목앨범



대상처에서 힐링 홍보

똑똑한 스마트폰 속 카카오프렌즈에서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장 담당자간 앨범 앱 공유를 통한 조사품목의 정확성 확인, 권역 간 품목비교 등 조사업무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하리라 본다.



진정한 감정노동자가 어버이날에 벌인 작고 소박한 향연

아케이드 설치로 현대화된 시장입구와 달리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스무 살 대구로 자취 유학 왔던 1990년대 봉덕동! 옛 시장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시장 안 생닭집, 생선가게 그리고 반찬가게, 신발가게, 문방구, 떡집... 20년이 훌쩍 지나서 소비자물가조사 담당자로 방문한 봉덕시장은 낯설지 않은 고향 같은 느낌으로 다가선다.

올해 어버이날은 시가, 친정 가는 휴가대신 대상처가 옹기종기 몰려있는 시장으로 향했다. 업무 바쁜 지 2개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맘으로 올해 카네이션은 또 다른 나의 부모님들과 함께하고자 발길을 옮겼다. 대상처

꽃집에서 카네이션을 사들고 부모님 같은 응답자 가슴에 달아준 카네이션 소동은 그날 하루 봉덕시장을 활짝 웃음바다로 만들어주었다.

서울 있는 내 딸도 직장 땀에 전화만 왔던데. 아이고 세상에.. 딸 대신 이런 것도 해 주고. 고마워서 우야노~ 하시는 고추 방앗간 어머니. 통계청 딸내미가 달아드린 꽃이 시들까봐 얼음물에 담가 다음 농축조사 때까지도 보여주며 자랑하는 콩치집 어머니! 꽃 달아드리며 한 컷씩 찍은 사진을 다음 출장 때 인화해서 드렸더니 가게 입구에 붙여놓곤 늘 싱글벙글 차 한 잔을 권하는 인심 좋은 닭집 어머니! 인수인계 후 조사하며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무심하게 약값 변동 없다던 OO약국 약사님! 포켓에 꽂아준 카네이션 소동 그날 이후 썩~~ 변화했다. 직접 냉장고 속 드링크도 따서 주시고 먼저 눈인사로 말문을 트신다. 이것이 진정한 상호 힐링이 아닐까! 다 같이 행복 하다면~.

작고 소박한 이벤트였지만 그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잠시나마의 활력소로 소비자물가 가격조사 하는 통계청 색시(조사담당자)를 확실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2013년 10월 어느덧 차곡차곡 거둬들일 수확의 계절. 더불어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통계공장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향연(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 하는 잔치)인 현장조사 체험사례 발표대회를 계기로 지난 시간을 여유롭게 돌아보게 된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울타리로 넘어선 해! 서비스업동향 조사에서 소비자물가조사로의 이동!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작년 이맘 때 사례 제출 발표한 『설득은 현장조사의 종합예술』이 2013년 4월 27일 아시아경제신문에 『통계청 어느 조사원의 달콤 씹쓸한 하루』라는 기사로



아시아경제신문 보도자료 <통계청 어느 조사원의 달콤씹쌀한 하루>

게재된 일이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영광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통계조사원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고 겪는 일, 어찌면 더 묵묵히 매진하고 진솔한 감동적인 통계 현장 속 다큐멘터리는 수없이 많음을 잘 알기에 송구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하였다.

때론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져 현장으로 향하는 길이 멀고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조사원으로서 가졌던 초심은 정신무장을 강요하는 책임감이라는 회초리가 되어 마음을 다 잡게 하는 당근과 책찍이 된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성실과 배려, 열정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조사현장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배움터 같은 통계와의 인연으로 소중한 나의 삶 한 페이지를 달콤 씹싸름한 추억들로 채워간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라!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어느 강사의 강연처럼 통계조사현장은 인생, 삶과 같이 문제해결의 고달픈 과정이고 연속이다. 나는 기꺼이 이 일을 하며 앞으로 다가서고 넘어야 될 새로운 울타리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연동신규 20가구 4개월 동안의 대장정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송 다 영



:: 겁 없이 시작했다가 점차 겁이 나는 연동신규조사

안녕하세요! 통계청 송다영입니다! 라는 첫 인사와 첫인상으로 통계청의 이미지는 이미 결정나는 듯하다. 제2의 고향이 된 제주,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난 거울을 보며 얼마나 인사 연습을 했는지 모른다. 나의 매력 포인트인 시원한 미소로 승부를 걸어야지.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옷은 어떻게 입을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리스타일은... 이런 고민들만 수없이 했으나 이젠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걱정거리였다. 푸름이 더해가는 5월에 첫 임용을 받고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가계고용팀으로 발령이 나서, 곧바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새로 표본 설계된 신규 20가구를 가가



호호 방문해 첫 만남을 갖고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선배들은 옆에서 모두 다 한 마디씩 맘 단단히 먹어라. 연동신규를 안 해 본 사람은 통계조사에 대해 논하지 마라. 눈 큰 다영이 눈에 눈물 뿜을 일만 남았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20가구를 4개월에 나눠서 만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지?, 공문을 우편으로 미리 보내니까 무조건 다 잘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한 나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 아니 정말 쉬운 일이라 생각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은 제주의 상큼한 바람을 느끼며 5월 어느 봄날, 내게도 첫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간이 다가왔다. 팀장님과 함께 새로운 5가구를 만나는 두려움보다 설레는 맘으로 옷도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고 명함도 준비하고 첫 조사구로 갔는데, 첫 방문한 가구부터 텅 빈 집만이 나를 반겨 주고 있었다.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한 결과, 몇 가구를 만날 수 있었고, 팀장님께서 조사에 필요한 질문을 하시며 아주 스피드하게 명부에 꼼꼼하게 적으셨고, 그렇게 적고 있는 팀장님과 나를 응답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지만 말씀을 잘 해주셨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휴~ 겨우 한 가구 명부 작성하는데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며 한숨이 절로 나왔고, 앞으로 남은 1구역의 4가구를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했다. 2가구를 조사하는 데에 하루가 지나갈 정도니, 다른 가구는 언제 어떻게 만나나하고

기약 없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퇴근을 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간인 주말은 내게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나마 주말을 이용해 주중에 못 만난 가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공무원이 주말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며 일하냐고 여쭙보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하는 분도 간혹 계셨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기간에 꼭 응답자를 만나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힘들게 주말까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쉬는 주말까지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나며 통명스럽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다.

한 가구에서 첫 조사를 시작하면 물어보아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응답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 난 말문이 턱 막히며 얼음이 돼 버렸다. 하지만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계속 질문을 하시는 팀장님을 보며, 나와는 확실히 다른 현장조사의 노하우가 보였다.

나의 첫 연동표본 1구역 6가구를 조사를 마치고 벌써부터 다음 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간이 두려워졌다. 나답지 않게 왜 이러지? 다음 달이 두려워지면 향후 35년 어떻게 공무원 생활 할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통계청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지. 라고 나를 위로하며 나 자신을 다독였다.

아직 새내기라서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새 응답자를 설득하는 일은 내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도 맘처럼 되지 않아서 더 약해졌는지도 모른다. 무관심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대화를 안 해본 나한테는 이런 환경이 너무 생소했고, 적응 또한 어려웠다. 차가운 표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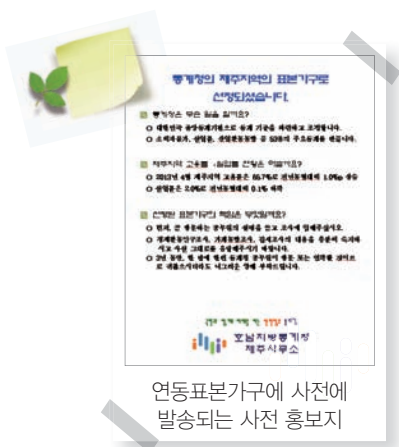


때문에 더욱 더 연동조사구에 발걸음을 하기 싫어했는지도 모른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응답자의 인생을 듣다

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힘찬 구호 아자아자! 으쌰! 으쌰! 를 외치며 연동표본 2구역역을 동행 없이 나 혼자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나섰다. 2구역 첫 가구에 들어서면서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60대의 여자 분께서 한걸음에 나오시며 나를 보더니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다. 순간 나를 기다렸다는 한 마디에 그동안 두려웠던 나의 마음이 한순간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우편물에서 제 얼굴 보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조사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말에 웃으시는 얼굴은 긴장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인사가 끝난 후 협조용 답례품 커피믹스 상자를 건네 드렸더니 보시고는 뭐 이런 걸 들고 오냐며 부엌으로 가시더니 바로 맛있는 커피를 타서 주셨다. 솔직히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였지만 그날 마신 커피는 내가 태어나서 마신 커피 중 제일 달달하고 향기로운 커피였다. 맛 좋은 커피만큼 인심도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셨다. 어머님께서는 내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해서 아가씨 사진만 보고 있었지~. 아들이 통계청에서 조사 올 거라고 말 해줘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하셨다.

그러시며 당신이 신문에 나온 거 한 번 볼 거냐며 방으로 들어가신 후 한참을 뒤적이는 소리가 나더니 예쁘게 코팅된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나오셨다. 기사에 자신이 실린 사실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았고, 나 또한 반갑게 맞아주시고, 첫 출발이 좋아서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맞장구 치며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코팅해 놓은 기사를 난 한참동안 읽었다. 어머니는 글을 몰라서 대충 내용만 아시는 정도였고, 내가 읽는 동안 인터뷰할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 주셨다. 정말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두 어린 아들을 둔 채 아버지(남편)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을 지키며 자식들을 돌봐야했던 어머니는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빌딩 청소 일을 하시며 두 아들 모두 반듯하게 키우고 가르치며 대학도 보냈다고 하셨다. 평생 청소 일을 하시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커가는 자식들을 보며 일을 한시도 놓을 수 없었고, 지금은 두 아들 모두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성공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 사지가 멀쩡하고, 아들들한테 기대고 싶지 않다며 청소 일을 놓지 못하고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 그 기사의 요지는 이러했고 강하고 강한 어머니상을 실은 글이었다.

어머니께서 기사를 다 읽은 나에게 내 사진 예쁘게 나왔냐면서 수줍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소녀처럼 수줍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릿했다. 기사 내용에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 그 인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인증샷~~~엄마와 딸^^



어머니께서 주신 골과 참외

알게 되니 그새 아주 가까워진 느낌이고,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가 문득 생각이 났다. 청소 일 안 힘드세요? 이제는 좀 돈도 쓰시고 쉬시면서 뭐도 배우고 그러세요. 라는 나의 한 마디에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다. 난 뜨거운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 드렸다. 당신한테 이런 말 해주는 내가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당신은 아들밖에 없어서 살면서 힘들 때 가끔 투정도 부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나를 보시며 딸을 하나 얻은 기분이라고 너무 좋아하셨다. 그동안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일밖에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맡게 된 3년 동안 딸처럼 살갑게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가는 줄 모르게 수다를 떨다보니 두 아들 모두 퇴근하고 한자리에서 가족 모두를 만날 수 있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음 신규가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명부조사도 무사히 끝내고 두 아들의 연락처도 모두 받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나섰다. 오늘 첫 출발이 성공적이라서

다음 집도 거뜬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금은 3개월째 가게부를 쓰고 계시는데 어머님께서는 글을 몰라 영수증만 모아주시고 큰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 주고 있다. 어머님과 아들이 함께 만든 가게부를 받고 돌아올 때 기분은 정말 흐뭇하고, 많지도 않은 2만원 상품권을 드리면 그것조차도 받기가 미안하다고 하시며 도리어 집에 있는 과일이나 빵을 싸 주신다. 덕분에 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볍지만 양손은 항상 무겁다.



∴ 애견사랑으로 통한 마음

산 넘어 산. 이제 가게부를 설득해야 할 가구를 방문할 차례가 되었다. 지난 달엔 경제활동인구조사만 해서 조금은 수월했는데, 이번 달엔 가게부를 써달라고 해야 하는데 입안에서만 맴맴 돌 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두려움으로 대문을 여는 순간 무섭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는데 조그만 강아지였지만 혹시라도 물까봐 무서웠다.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면 아예 그 집 대문 안으로 한걸음도 발을 들여 놓지 못했을 것 같다. 강아지와의 첫 번째 만남은 무서움으로 시작되었지만 두 번째 만남은 미리 간식과 장난감을 챙겨가서 강아지와 나 사이의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풀어 주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안아달라고 난리다.

나랑 친구처럼 노는 모습을 본 가구주께서 강아지 좋아하나, 어떤 강아지 키우냐 등등



나를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



강아지에 관해 여러 가지 물어보셨다. 애견인들끼리만 통하는 애견 얘기를 하다 보니 가계부 작성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아주 냉정하고 까칠했던 사람도 어떤 한 가지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가까워질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깨닫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강아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아주 얼음처럼 차가웠던 응답자의 얼굴이 점점 웃는 모습으로 바뀌더니 편안해졌다. 그 후로 난, 나를 좋아하는 강아지를 보러가는 것도 그 가구를 방문하는 것도 부담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집에 갈 때면 지금도 꼭 강아지 간식은 잊지 않고 챙겨간다. 잠깐 조사만 하고 가는 통계청 직원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사람이 마실 오는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 같다.



🌈 건강하셔야 돼요. 아버님

가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구 중엔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 가구도 있다. 처음 그 가구를 방문했을 때 손자를 재우고 계시던 중이어서 술찌기(조용히) 고라서 되어(말해야 돼)~~ 라고 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난다. 통계청에서 갖다 주는 건 아무 것도 받지 말라했다며 이웃들의 얘기만 듣고 극구 반대 하며 손을 절레절레 내저으셨다.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여서 아주 천천히 이해가 쉽도록 통계청에 대해 설명 드리고, 답례품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지금 하는 통계조사가 유용하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설명하던 중 눈치를 보니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모습과 점점 통계청이 하는 일에 흥미를 보이셨다.

그러나 우리는 버는 돈도 없고, 쓰는 돈도 없고, 매일 나가는 돈도 똑같아서 통계에 도움도 안 돼 라고 하시며 가계부 쓰는 것은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나는 두 분을 설득하기 위해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두 분께 표본에는 여러 유형의 가구들이 포함되어야 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나가는 돈이 별로 없으면 가계부 쓰는 것은 더 단순하기 때문에 가계부 기입이 어렵지 않다고 설득하였다.

한참이 지나 조용히 옆에서 듣고만 계시던 아버님께서 내 마누라는 돈 관리 안하니까 내가 할게. 남자가 가계부 써도 되는 거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라시며 가계부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계부 쓰는 것이 즐겁게 해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이 종이를 보시면 훨씬 쓰기 수월하실 거예요. 노인분들이 손쉽게 가계부를 적을 수 있도록 만든 큼지막한 종이에 작성한 필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보여드렸다.

내가 드린 종이를 받아 드시면서 아버님께서 내가 몸이 많이 아파.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써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계부 두고 가. 아가씨도 이거 안 해가면 회사에서 혼날 것 같으니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 써 볼게. 잘 써질지는 장담 못 하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셨는데 많이 아프시다는 말에 걱정도 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난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왔다.

나는 가계부 회수기간이 되자 가계부를 회수하기 위해 가구를 방문하였고, 예상했던 것보다 노인들이 쓴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글씨와 정리 정돈된 영수증, 고지서들이 가계부에 나란히 줄을 지어 붙여져 있었다.



아버님과 찰칵

이 멋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상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가게부였다.

가계부를 회수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회수한 가게부를 정리하는데, 가게부엔 매일 종합병원 진료서와 처방전이 붙여져 있었다. 가게부를 정리하는 내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매일 병원 다녀와서 저녁에 가게부 정리하려고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아버님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렸다.

지출사항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가게부에서 많이 나온 지출사항 중 하나가 멜론인 것을 보고 난 아버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달콤한 멜론을 들고 방문한다. 이런 걸 왜 자꾸 사오냐며 뭐라고 하시지만 아픈 몸이 잘 치료가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사셨으면 하는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아픈 아버님께 가게부를 써 달라는 게 죄송해서 영수증만 잘 모아주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쭙볼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어찌나 꼼꼼하신지 완벽한 가게부를 석 달 째 계속 주시고 계신다.



❖ 차에서 대기 하는 건 도둑 잡는 경찰이랑 똑같네!

조사 가구를 모두 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조사기간이 휴가철과 겹쳐서 집에 며칠 동안 안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렵게 만났지만 지금 휴가 간다며 바쁘니까 나중에 하라며 내쫓다시피 하시는 분도 계셨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하는데... 하면 시간은 벌써 일주일의 끝을 달리고 있고 벌써 일요일이 되어 버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업무를 맡은 후로 나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과 다를 것이 없었으며, 토요일도 대기조, 일요일도 만나지 못한 몇 가구를 위해 내 금쪽같은 휴일을 모두 반납해야 했다.

무더운 여름 이글거리는 더운 차 안에서 부채질 하면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혼자 셀카놀이를 하며 기약 없이 누군가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도 한참을 동정을 살피고, 내 시계 바늘이 10분이 경과되었다고 알려줄 때 웃는 모습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만났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반응뿐이다. 일급 비밀인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고 겨우 얻은 전화번호 하나. 그래도 전화번호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반질 않는다.

결국 이번 달은 불운이구나. 하지만 기필코 다음 달은 설득에 성공해 내 조사구 명부에 이름 석 자를 등재하리라. 꼭 성공해야지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사람의 첫 만남과 첫 이미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듯하다. 처음부터 나중에 해준다고 하신 분들은 설득에 성공해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사생활 노출 운운하거나 내가 꼭 취조 받는 기분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거절한다.

나중에 오세요. 바쁘다니깐요. 참! 샤워 중이라구요! 내일 오세요.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요? 누굴 믿고 말을 해줘야 돼요? 통계청이 뭐 밥 먹여주나. 이유도 참 가지가지다.



이렇게 거절하는 유형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참고 또 참고 또 다시 설득에 나서는 날 보며 가끔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 자신을 위로한다. 나의 매력적인 미소를 보시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아들에게 쫓아 내보내라고 소리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통계청 업무를 설명하고, 가계조사를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정답은 하나 밖에 없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미운 놈(?)이지만 자꾸 자꾸 얼굴을 내밀고 부딪치다 보면 미운 정도 정이라고 미운 정이 들겠지. 조사에 응해 주는 이웃가구의 응답자들께도 부탁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또 하고 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노력 해봐도 현재까지 불응하는 가구도 있지만, 난 오늘도 그 집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다.

푸름이 더해가는 5월에 내 생애 첫 조사가 시작되고 푸른 나뭇잎이 울긋 불긋 물들고, 하나둘씩 떨어지는 가을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깊어가는 가을. 예전보다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상처를 덜 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내 스스로 대견스럽고 놀랍다.

易地思之(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다). 응답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불응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응은 내게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존재인건 인정 안 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있듯이 그들도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있을 텐데, 통계청 표본가구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해달라고 떼를 쓸 수만은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니는 현장업무를 해보지 않으면 통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법. 통계청에 합격해서 신규과정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현장업무를 다한 느낌과 멋지게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나를 상상했었다. 하지만 지침서로도 설명할 수 없고, 정답도 없는 단지 경험만이 정답을 말해주는 현장업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무언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것이 현장업무라는 사실. 하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오답 속에서 응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딸처럼, 친구처럼, 여동생처럼 다가가고 진실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씩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청, 통계청 직원으로 남고 싶다.

통계, 끝도 없는 나와 의 싸움!

그 싸움 속에서 나는 오늘도 울고 웃지만 더 많이 웃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난 불응가구의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일곱

심금을 울려야 통계가 바로 선다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박 종 석

농수산통계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아 농가경제, 어가경제조사 등 다양한 통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뻐던 일, 불응과 비협조로 가슴 아파했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24년 세월동안 한결같이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은 일들 중 불응과 비협조로 항상 마음 졸이며 혼자 속앓이를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지금도 문득 문득 그때의 설득을 위한 몸부림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다. 지금은 산업의 발달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핵가족화,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과거의 조사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통계조사 경험이 쌓이면서 조사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고 대인조사를 어떻게 해야 응답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렵פות이 알게된 것은 오랜 통계조사를 함으로써 얻어진 큰 수확이라 여겨진다.



∴ 첫 번째 이야기

- 어류동향조사!!! 나는 이렇게 불응을 극복 하였다

2013년 2월 통영사무소로 전입하여 처음으로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이전까지는 경제, 농업분야에서 사업체와 가구를 대상으로 대인조사를 하였다. 최초로 접하는 어류양식동향조사는 경력이 많다고는 하지만 생소한 업무 관계로 신규자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우선 출장 가기 전에 가구원 현황과 가구주의 성격을 전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일일이 체크하여 기록해 두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내가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가구 중 상당히 억세고 항상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가구가 몇 집 있었다.

방문하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마음가짐도 달리하고 미리 방문 약속을 문자로 알려 드렸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무장하여 드디어 그 가구에 방문을 하였다. 처음이라 나로서도 상당히 긴장되었지만 특유의 경륜으로 일단 만나는 것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번엔 담당할 조사공무원이라고 인사를 했다. 초면이라 그렇게 외면하지도 않았고 소문과는 달리 잘 응답도 해주었다.

매월 1회 조사하는 어류생산동향조사를 몇 번 마치고 2013년 7월, 6개월마다 조사하는 반기조사인 어류양식동향조사 시기가 찾아왔다. 예전처럼 사전 방문 예약 메시지를 보내고 가구주를 만났다.



반기조사인 어류양식동향조사는 매월 조사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와는 달리 항목이 많고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이 많아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 한참 조사를 하고 응답도 잘해 주셨는데 갑자기 조사 도중에 화를 내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말들을 연신 쏟아내더니 집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난 몇 번의 조사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가구주의 돌발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통계공무원으로서 큰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 집 아주머님께 오늘 저로 인해 아저씨께서 화를 많이 내고 나가버린데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사실 잘못된 것 없지만). 그리고 조사를 그만두고 온종일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았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조사 내용 접근이 잘못되었는가? 나의 태도가 잘못 되었는가?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조사하는 곳은 집단적으로 가구가 같은 동네에 있었던 탓에 어느 한 집에서 불응을 할 경우 그 여파로 다른 가구까지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조사 환경이었다. 또한 전수조사이기에 대체도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설득을 하여 반드시 조사를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문자메시지로 먼저 방문을 일방적으로 알리고 찾아갔다. 하지만 만나주질 않아서 다시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한 번은 정영주를 만나기 위해 밤늦도록 기다리기도 했었지만 허사였다. 그 이후로 몇 번 더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하였다.



제1단계: 가구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이런 저런 궁리를 하다가 그 가구의 사람 중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없는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주위 마을 사람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그 가구원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가구원 중 칭찬할 만한 사람과 애로사항이 뭔지, 또 멀리 객지에서 떨어져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잘 하는지, 평소 어떤 대화를 좋아하고 즐겨워하는지 등등...

그래서 찾은 것이 가구원 중 그 집 아주머님께서는 평소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이란 것을 알았다. 그리고 치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체크했다. 또한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따님은 평소 방문 했을 때 함께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친근감 있게 대해 주었기에 따님의 도움을 받으면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경영주와 대화하고 조사를 했기에 아주머님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었기에 다른 사항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응답을 해준 적도 없었다. 어찌랴! 이젠 아주머니를 설득 시키는 수 밖에... 오늘은 제발 잘 되기를 나 스스로 나에게 마법을 걸면서 무작정 찾아갔다.

때마침 아주머니와 따님만 계셨다. 좋은 시간의 선택이다 싶었다.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를 해야만 하는 목적 등과 더불어 나의 절박한 심정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응답현황은 경영주만이 해 줄 수 있다고 거부하였다.



제2단계: 나의 진정성이 응답자에게 보이도록 하라

가슴으로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번 조사는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응답할 때 짜증 낼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나로서는 개의치 않음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도 그때 남편이 좀 심하게 대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겸연쩍어 하셨다. 이때다 싶어 집안의 좋은 점에 대해 일사천리로 칭찬하고 또 치아에 관한 일반적 상식과 치료법 등을 설명해주고 효과가 좋은 치약도 소개해 드렸다. 또한 함께 일하고 있는 따님에 대해서도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더니 따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조사에 응답해주도록 도와주었다. 사실 처음 맡은 업무이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가구이기에 매월 조사 때마다 작은 성의품을 항상 준비하여 찾아가곤 했었다. 예를 들어 따님이 평소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나 일반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치약, 비누 등을 구해서 갖고 갔다.

그런 나의 정성을, 마음을 아주머니는 알고 계셨던 모양인지 조사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따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인지 나를 이해하고 거부하던 태도에서 협조적으로 대해 주셨다. 차후부터는 경영주에게 물어보지 말고 아주머니에게 직접 여쭙라고까지 하셨다. 드디어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통계조사를 할 수 있었다.

제3단계: 한 번 마음의 문을 연 응답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조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평소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는 가구일지라도 조사공무원이 조금만 빈 틈을 보이고, 바쁠 때 조사하면 금방 비협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다. 그러기에 우리 통계조사공무원은 가구

방문 시 전문적 지식은 기본으로 갖추고 항상 긴장해야 한다. 또한 설, 추석, 생일 등에 통계활동비를 활용하여 작은 성의품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폭 넓은 유대강화책을 항상 겸비하고 조사가구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위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



∴ 두 번째 이야기

— 천재지변! 적조피해로 얼룩진 어가의 마음을 움직이다 —

2013년 7, 8월 남부지방은 유난히도 기나긴 가뭄이 이어져 전국적으로 농어업부문에서 대단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특히 그 중 어류양식어가의 적조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물론 전국적으로 적조피해가 조금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남부지방에서, 그것도 통영사무소에 관할하는 통영시 산양읍 일대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중앙언론을 통해 연일 피해상황이 보도되었으며, 경남도지사께서도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여 어민들을 격려하였다. 대통령께서도 통영시 산양읍 피해 일대를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어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가셨다.

제1단계 : 주변사항을 먼저 파악하라!

통영사무소 관내 어류양식어가는 500호로 경남의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조피해 당시 피해액으로는 경남 전체 피해액 중 94.3%를 차지, 거의 대부분 통영시 산양읍 일대 약 220호 어가가 피해를 입었다.



통영시의 적조피해 상황은 전국적 큰 관심으로 연일 신문지상과 공중과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방송·전파 보도되고 있었다. 우리 관내 적조피해 가구 모두가 우리조사가구이었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내 어업진흥과에 매일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해 두었고 그 사항을 소장님, 지방청장님께 보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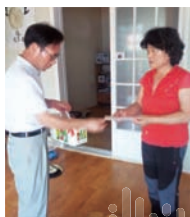
제2단계 : 뭔가 특이한 방법으로 조사에 임하다(팀장역할-조사환경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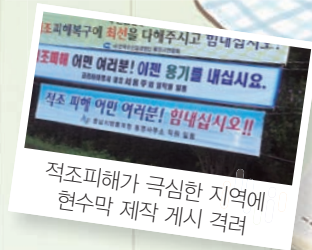
적조피해가 한창인데 조사기간은 다가오고 우리 통계조사 공무원은 마음으로만 함께 걱정하고 어떻게 할 뾰족한 방법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어류양식어가는 전수어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응하고 비협조적이라도 무조건 설득하여 조사해야만 하는 어려운 환경이다. 즉 불응한다고 대체하여 조사할 수가 없는 어가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어가에 영구적인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평소에 조사하는 방식대로 접근하면 협조적 이었던 어가도 크나큰 불응과 비협조적인 환경으로 바뀔 우려가 대단히 많은 참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어류양식어가는 양식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가의 피해 규모 또한 억 단위 이상의 피해로, 특별한 조사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팀장으로서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통계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방안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묘책을 찾고자 매일 아침 팀원들과 대책회의를 하였다.



▲ 적조피해 어가 현장과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 어민과 아픔을 함께하다



적조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현수막 제작 게시 격려

우선 팀장으로서 우리 팀원의 가장 어려운 지역 가구를 함께 동행출장을
가자고 권유하고, 호응이 좋으면 원하는 팀원에게 계속 함께 동행출장가는
것을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제일 피해가 심한 조사원의 지역인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연대도
일대 10호가 위치한 현장과 가구를 직접 조사원과 격려를 하였다. 그리고
동네 어촌계장 및 어민들의 고통을 듣고 그 아픔을 함께 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향후피해보상 등)은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전달하였다.

제3단계: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통계청

팀원이 담당하는 극심한 피해지역에 일차적으로 동행출장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어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팀장 혼자서 팀원의 전 가구를 갈 수 없어 전체적으로 어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 결과 통계청이 조사만 하는 기관이 아닌, 어민들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임을 알릴 수 있는 수 있도록 피해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격려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했다.

제4단계: 아픔을 함께하면 작은 성의에도 감동!

현수막을 게시하여 어민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결과 우리 통계청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가 방문 시 통계청에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줄 정말 몰랐다면 단순히 통계조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였다.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감동이란 것이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란 걸 깊이 깨달았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하면 오랫동안 그 고마움을 느낀다. 그래서 적조피해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말로 작은 성의를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어가와 더 유대가 돈독해지면 어려운 조사환경을 극복, 정확한 통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무소장님께 통계청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작은 마음의 격려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피해 어가 전체에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전달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였다.

소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피해 사항을 상세히 상부기관(동남지방통계청장)에 보고, 마침내 동남지방통계청



에서 특별 예산 660,000원(2013 동남청 농어업 생산량조사 수용비)을 배정 받아 우리사무소에 타올을 제작, 피해 어가 220여 가구에 통계청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참으로 감동하면서 따뜻이 맞이하는 응답자를 대하면서 현장 조사 공무원으로서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더더욱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해 계속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체험담을 마치면서

일반 행정공무원은 머리와 가슴, 손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통계공무원은 머리, 가슴, 손, 이외에 발로 뛰어 국가 발전의 기초자료인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점점 더 열악해져가는 조사환경을 온몸으로 극복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남모를 어려운 환경을 제각기 나름대로의 조사기법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불응과 비협조적인 가구, 사업체를 설득하여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하는가? 현장 조사공무원의 사명이고 또한 애환이라 생각된다. 불응하고 비협조적이고 우리를 통계공무원으로 대하지도 않고 무시해도 정성과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 어려울 땐 격려를, 기쁠 땐 무한한 축하를 주면서 응답자



에게 심금을 울린다면 통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여 국민행복 일류 선진통계기관으로 우뚝 자리 잡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오늘도 어가 방문 지도를 위해 바닷가를 지나고 있다.

겉으로 보는 바다는 참으로 평화스럽고 평온해 보인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들은 실로 그 마음의 안식처를 얻은 것처럼 바다를 보며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반면에 무수한 고난과 애환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 현장 통계공무원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리라!

국가를 위해,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이바지할 것을 푸른 바다를 보며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본다.

동 상



나만의 설득전략과 skill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
배 은 경



●● Prologue 미리 두려워 하지 말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된 도로에서 나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한다. 마침 내가 가야할 오른쪽 차선은 천천히 차가 빠지는 중이라 어느 차도 나에게는 틈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지기 시작하지만 시간과 경주를 벌일 일은 없어. 서두르고 조바심을 내면 나만 손해인 걸.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하며 마음을 다 잡는다.

이런 안정감이 충분히 제 몫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어업통계 표본개편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온 긴 여정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것 같다.



지난해 가로수들이 점점 짙은 단풍색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10월부터는 일주일마다 3일은 하루에 100km를 이상 운전하며 진해구 용원부터 마산 심리까지 출장을 다녔는데, 평소 운전 눈썰미도 좋지 않고 운전이 겁이 많았던 나는 긴 장거리의 이동 중 사이드 길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를 보고 당황해 급히 그 차를 피하다가 옆 차선에서 가고 있던 다른 차들의 기세에 눌려 겁에 질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은 장거리 운전과 공포감을 이겨내며 운전을 잘 하고 있다.



chapter 1. 첫날

이가정제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제덕동 신표본 가구를 찾아가던 날 어제 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고 거친 바람이 불어 대낮에도 어두웠지만 지금은 오래 간만에 화창한 날씨였다. 사무실에서는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지만 막상 출장지인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조사하기 힘든 때도 있다는 걸 떠올리며 쾌청한 날씨에 힘을 더 얻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00-00번지로 향하였다.



가을 제덕동 풍경

이번 표본개편에 따른 신표본 어가경제 특성은 조사구 단위가 마을 대상이 아니라 가구가 사업체 대상 표본처럼 똑똑 떨어져 있는 리스트 샘플링 방식의 표본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전처럼 마을지역으로 조사구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차량 이동시간이 배가 되었다.

어가경제조사대상 가구 제덕동 00-00번지의 파란대문 집에 찾아 들어섰지만 가을 막바지 낙지 철이라 모두 바다에 나가서 어로 활동 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집 안은 여기저기 쌓아놓은 그물과 어구 도구들이 작은 마당 한가득 쌓인 어수선했던 분위기였다. 빈 집을 뒤로 하고 우선 마을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위판장 앞으로 나가 보았다. 그런데 이곳은 마산 진동면 고현이나 심리 같은 활기와 생동감 넘치는 전통적인 어촌의 분위기는 없고 무엇인가 황량하고 위판장 큰 도로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짝 바다 내음이 전부였다.

제덕동은 경남 진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깔따구(파리)로 불리는 해충이 창궐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이었다. 이후 해충 마을로 알려지면서 여름철 성수기에도 낚시꾼과 관광객들이 끊겨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계속되었지만 배상이 계속 늦어지자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여전했고 진해수역 소멸어업인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했다. 아마도 경남일대에서 가장 조사하기가 힘든 곳 일거라며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했던 팀장님 말씀이 생각났다.

깔따구? 깔따구라니,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인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카락이 주뻗 서게 하는 비호감의 공포, 날씨가 꽤 쌀쌀해진 가을 문턱에서도 제덕동의 길옆의 공터에 서 있으니 깔따구떼를 만날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2012년 가을 제덕동 풍경

제덕동 방파제를 한 바퀴 돌아보고 가을철 갈치 낚시를 나온 낚시객들의 모습도 보며 몇 시간을 보낸 후, 제덕동의 파란대문 집 마당으로 들어서니 아동용 신발과 여성용 어른 운동화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현관의 신발만 보기만 하면 재빨리 문을 두드리는 직업병에 얼른 문을 두드렸다. 내가 너무 살짝 현관문을 두드렸는지 방 안에서는 아이의 소리는 들렸지만 어른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다시 현관문을 열며 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며 열어보니 작은 체구의 50대 후반의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손자처럼 보이는 남자 아이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가 김OO님 맥이죠? 저는 통계청 직원인데 제가 오전에도 방문했었지만 아무도 안 계셔서 다시 배가 들어올 즈음 시간을 맞추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하며 통계청에서 어업통계 조사 때문에 오늘 방문한 목적을 말씀드리려 하니 누워계신 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30분만 눈을 붙이고 지금 옆에 있는 손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해요. 오늘 낚시를 잡으려고 새벽 4시에 바다에 나가서 일하다가 손자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어린이집에 가서 손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머니는 잠깐 동안이지만 이 시간은 누워 계시고 싶은 눈빛이 역력하였다.

나는 힘 없고 피곤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손에 들었던 어가경제조사표(가계부)를 다시 가방에 넣고 어머니,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오면 꼭 제 말씀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덕동 파란대문 집을 나섰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내가 몸이 안 좋아 집에 잠시 쉬려고 누워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누가 찾아와 무엇을 부탁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도 우리 집 문조차 열어주지 않을 것 같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하는 도시가스 검침원의 주말 방문에도 나는 넉넉지 못한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던가!



chapter 2. 두 번째 방문

다음날 제덕동 파란대문 집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다 보니 어제 봤던 그 어머니가 힘들게 손수레를 끌고 오셨다.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직 사춘기를 막 지나지 않은 가냘픈 소녀 같은 작은 체구였다. 뒤에서 덜경거리며 따라오는 손수레가 어머니를 압도할 것만 같았다.

어머니, 저, 어제 뵈었던 통계청 직원이에요. 하면서 손수레를 같이 끌려고 하니 손수레 안에 어제 같이 있었던 손자가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 유치원 다니는 손자를 업고 오기가 힘들어 이렇게 손수레에 태워 온다고 하시며 힘없이 웃으며 오늘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나 시간이 별로 없어. 손자랑 병원에 가야 되거든. 통계조사라면 몇 가지만 물어보면 되겠네? 얼른 물어봐. 하면서 시간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셨다.

문 앞에서부터 왼손은 조사 가방에서 어가경제조사표(가계부)와 안내 리플렛을 꺼내며 오른손은 재빨리 신발을 벗었다. 어머니께서는 조사표인 가계부를 보며 아니 이걸 내가 써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집에 몇 명 사는지,



어선 이름은 무엇인지, 일 년 중 가장 많이 잡는 고기는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해주면 조사는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 공책에 매일 매일 집에서 지출한 내역을 적으라고 설명드리자 본인께선 지금까지 가계부를 써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공책에 무엇을 적을 만한 배움도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어가경제조사표(가계부)를 요모조모 살펴서더니 매일 잡아오는 고기를 적는 어획량 기입표를 보며 더욱 더 놀랜 목소리로 한 톤 높여 본인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동네에서 어느 누구도 작성하지 못할 어려운 조사라며 고개를 저으셨다. 작은 체구의 심성이 반듯하게 생긴 어머님께 나의 통계작성은 극히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고 마치 어머님은 옳은 말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는 흡사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상황이 역전될 기세였다.

나는 정신을 더욱 더 바짝 차리며 어가경제조사표(가계부) 쓰기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 구입 후 영수증을 모아 두고 바다에서 고기 잡은 것은 수협에서 판매한 위탁판매 계산서를 모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수협의 위탁 거래 자료를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주시면 제가 수협에 가서 매월 면세기름 구입 내역과 어획량을 확인하고 또 제가 매주 방문하여 최대한 불편함을 줄여 드릴게요. 생각처럼 걱정할 큰 어려움과 번거로움은 없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찬찬히 나를 바라보며 본인께서는 집에 들어와도 잠시라도 설 시간도 없이 바쁘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집 내부 사정을 다 공개할 수 없다며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다른 집엘 가보는 게 낫겠다면서 손자와

*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말함

병원에 갈 준비를 서두르며 서로 갈 길이 바쁘니 어서 일어서자고 말씀하셨다. 아픈 손자와 시간이 빠듯함에 힘겨워 하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준비한 리마 신드롬**의 역할도 꺼내 보지 못하고 나는 다시 가계부를 조사 가방에 넣으려다 슬며시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으며 가계부는 두고 갈게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청 조사 안내 자료도 있으니 한 번만이라도 잠깐 읽어주세요. 하며 어머니가 대답을 할 틈도 주지 않으며 어머니. 병원이 어디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시간이 없고 저는 오늘 어머니를 만나는 목적으로 왔으니 저는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손자 병원 진료가 우선이니 모셔다 드릴게요.

한사코 괜찮다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다. 병원은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었다. 이야기할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 먼 거리의 운전도 기뻐다. 가는 동안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여섯 살 된 손자의 일 년 열두달 감기 이야기, 어머니의 제덕동 어촌계 이야기 등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바다 일로 늘 피곤함의 겉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어머니는 일상에서 굉장히 반듯하고 또 어떤 면에선 고지식할 정도로 바른 생활의 느낌이 들었다.

가구를 만나다 보면 대부분 무안과 무반응이 답례였는데 파란대문 어머니는 일일이 어가경제조사표 가계부를 꼼꼼히 읽어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어도 보고 누가 이렇게 잘 기입을 해주는 분이 있는지, 통계는 어떻게 만들고 누가 왜 사용 하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온 듯한 호기심도

** 리마 신드롬(Lima syndrome): 인질범들이 인질들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



있으신 분이셨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조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며 아니, 제덕동에서 이 조사에 응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당당한 말씀을 되풀이 하시길래 전국에 1,000여 개 어가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었지만 이미 차는 병원 앞에 도착했다. 병원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서로 신변의 이야기를 하였다.

재승이(외손자) 엄마는 어디 직장 다니신다고 바쁘셔서 어머니님 이후에는 돌봐 주시는 거예요? 라며 여쭙보니 따님은 제덕동 속천향 근처에서 사위와 함께 24시간 편의점을 한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부부가 억척스럽게 아르바이트생도 안 쓰며 열심히 해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가을 태풍 산바로 인해 속천향 방파제 위로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 피해가 있었고, 방파제에 오는 낚시객들도 줄어든데다가 가게는 수리를 하고 있어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재승이를 이후에는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와서 돌봐주셔야 된다고 힘없이 웃으셨다. 환절기 철이라 감기 환자가 많아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져 나도 내가 통계청에서 통계 작성을 위해 생전 처음 모르는 곳도 운전해서 찾아다니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 해드렸다.

어머님께선 내 이야기가 신기해하며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잘 응답 해 주신지도 궁금해 하며 또 매월마다 꼬박 꼬박 응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더욱 더 놀라는 눈치였다. 진료가 끝나 다시 제덕동 파란대문 집에 모셔다 드리자 어머니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셨다. 어머님께서 여기 다시 올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하라며 죽은 낙지라도 몇 마리 꼭 주고 싶다 하셨다.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게 되어 있고 오늘도 가게부 이야기는 끝을 맺지 못했지만 다음에 뵈는 꼭 연필을 같이 쥐고 가게부를 써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덕동을 떠났다.



chapter 3. 세 번째 방문

신표본 개편 작업은 어가경제조사만이 아니라 비계통조사도 병행 중이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부터 마산 심리의 방문 대상 어가가구마다 내가 살기 어려운데 무슨 통계냐, 우리 집은 어가가 아니니 제발 오지 말라 하며 예상 외로 무뚝뚝하고 폐쇄적인 어르신들이 많으셨고, 어쩌다 대화가 통할 것 같은 가구원의 젊은 자녀들도 별 걸 다 조사한다면 외면하기 일쑤여서 나는 처음의 의욕과 각오가 점점 꺾여 가고 있는 중이었다. 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끼며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늦은 오후쯤 제덕동의 파란대문 집으로 향하였다. 병원에서 뵈었던 날 이후에 가계부 진행 과정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한편으로는 가계부에 관심이 많이 보이셔서 살짝 기대도 있었다.

파란대문 집으로 들어서니 오후 4시 반이 넘는 시간인데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도 보이질 않았다. 어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바다에서 작업 중일 것 같아서 하지 못하였다. 바다 위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서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보통 휴대폰은 벨이 울리면 우리는 간편히 받을 수 있는 전화이지만 바다 위에서 작업 중엔 손 장갑을 벗고 배 모터 소리의 기계 소리에 더욱 집중하며 목소리도 높여 통화를 해야 되고 통화가 끝난 후에도 바닷물에 젖지 않게 바닷물이 튀지 않는 곳에 잘 두어야 한다고 들었다.

다시 파란대문 집을 뒤로 하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셨던 어머니의 딸이 운영한다는 속천항의 편의점을 찾아가 보니 태풍 산바로 깨진 창문이나 벽의



금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태풍 위력은 대단해 보였다. 따님에게 통계청 직원이며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니 오늘은 바다에 늦게 나가셔서 저녁 시간 쯤 돌아오신다고 하였다. 낙지철도 한철이라 일 년 중 가장 돈벌이가 되는 시기여서 배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낙지를 잡는다고 하였다. 비계통조사를 위해 마산 구산면에서 진해 용원까지 다녀오며 이곳 제덕동을 들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덕동으로 왔지만 늦게까지 작업 중이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간다고 생각하니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내 다리에도 힘이 빠져 나가는 듯 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늦추어서 와야지. 생각하며 가게 안에 있는 따님과 혼자 편의점 안에서 놀고 있는 재승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서려 하는데 재승이가 어가정제조사표(가계부)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재승아~ 왜 이걸 재승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이걸 할머니 댁에 있어야 하는 건데. 통계청 이모가 이 공책 다시 회사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재승이가 할머니 집에서 그냥 가지고 나온 거야? 하며 단호하게 다시



물어보니 재승이가 아니야. 이거 할머니가 버린다고 한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숫자 쓰고 있었어. 라며 대답했다. 가게 매장을 정리하던 따님도 이런 상황에 놀라 눈이 동그래지며 어머니께서 버리려고 하다가 재승이가 숫자를 쓰고 싶다고 해서 주신 거라고 했다.

재승 어머님. 저, 통계청에서 이 가게부 한 권 때문에 피곤해 하시는 어머님께 미안해하며 가게부를 기입해 주시길 기대하며 매번 이 곳에 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간 이 가게부를 재승이가 낙서하도록 그냥 주신 걸 보니 참 섭섭해요. 섭섭한 내 감정을 표현하면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하니 지금 재승이가 가지고 있는 어가조사 경제조사표는 앞으로도 그냥 낙서나 하는 하찮은 공책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다.

나는 오늘은 어떻게 하든 잘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몸이 많이 지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괜히 따님 가게까지 와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처음 가게에 들어섰을 때 반가워하던 재승이에게 어색하게 잘 있으라는 인사를 하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제덕동을 나오려고 하다 이렇게 그냥 가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 댁에는 내가 드린 어가 경제조사표가 없는 거고, 그럼 어머님께서도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표도 주지 않으니 우리 집은 조사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거야.

나는 다시 파란대문 집의 어머님 댁으로 가서 현관 입구에 어머님. 저, 다시 올 거예요. 이 조사표만이라도 잘 보관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조사표를 두고 돌아섰다. 내가 집에서 만든 빵과 쿠키도 작은 박스에 담아 같이...



chapter 4. 네 번째 방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할 때도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은 난포리와 심리 그리고 도중에 다구리를 거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 까지, 저녁 퇴근길에는 오늘 어디 어디를 다녀오지 못했구나! 집에 들어가면 방문 못한 가구에 꼭 전화를 해야겠다는 동선과 전화 생각으로 하루를 마치고,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제과 재료를 잔뜩 사와 어가에 드릴 빵이나 쿠키를 만들었다.

어가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면 바다 위에서 힘든 노동의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간식 중 빵을 많이 선호했다. 다행히 빵과 쿠키를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어서 주말에는 빵과 쿠키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워 신표본대상 가구 어르신들에게 바다에 나가실 때에 간식으로 드시라고 일일이 빵과 쿠키에 날개 포장을 해서 드렸다. 이른바 배양표 수제 쿠키 빵이었다.

이것 정말 배양이 만들었나? 제과점 빵보다 몇 배 맛있다! 배양아! 통계청 그만 다니고 빵집 차리라. 금방 부자가 될기다. 라며 칭찬과 환영을 받으니 빵과 쿠키를 구워 가져가는 동안은 서툰 내 조사방식을 도와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였다.



배양표 빵과 쿠키



지금은 어촌에 척척 손발이 맞아가는 초사가구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한가 보다. 늘 방문할 때마다 웃으면서 어서 오라며 반겨주는 집은 지나가더라도 일부러 더 들르고 싶고, 말 그대로 문전 박대의 뽕쫂함과 일단 통계청 직원은 무조건 싫음, 이런 조사 대상 가구는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가고 싶지 않는 데가 많이 있다. 제덕동 파란대문 집도 나에게 후자에 속하는 집이 되어 버렸다. 집에서 만든 빵과 쿠키를 챙겨 나는 다시 제덕동으로 향하였다. 이미 늦은 시간이 되어 도착한 제덕동 파란대문 집은 방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이 있어 일단 좋기는 했지만 문제는 늦은 저녁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 늘 시간에 쫓기는 어머님께서 한창 저녁 준비와 손자를 챙겨야하고 이 시간에는 편안히 쉬어야 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더욱 더 들었다.

일단 현관문을 열어 재승아, 재승이 있니? 손자 이름을 부르며 집안에 계실 것 같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아, 어서 와요. 라며 처음으로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의 인사를 건넸다. 저번보다는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어 어머님 저번에 제가 다시 현관문 앞에 두고 간 가게부 보셨어요? 제가 다시 두고 갔었는데 어머니가 조사표를 버린 것 보고 참 섭섭했어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어머님이 제가 드린 가게부를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줄은 몰랐어요. 라며 말씀드리니 어머님께서 그건 내가 미안했어. 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싫은 소리도 일절 안하는 사람이야. 지금 보다시피 살림이 어려운 상황(보충금 5백에 30만원)이라서, 내 주위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우리 딸도 엄마 왜 그랬냐며 그랬어. 마음이 안 좋았고 미안해! 내가 마트나 병원에 가서 쓴 것은 영수증을 모아 두었어. 그러면서 수협에서 산 면세 기름 그리고 수협에 판매한 위탁판매 영수증과 새로 두고 간 가게부에 서툰 글씨로 일기를 쓰듯이 기록한 지출 내역과 어획량을 보여 주셨다.



어머님께서서는 조사표 기입 방법을 보고 혼자서 연구 하신 것이었다. 처음 뵈고 두 번째 뵈었을 때 침침한 눈으로도 가게부를 꼼꼼하게 보시더니 왜 이렇게 적는지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 어떤 뜻인지 물어보신 것을 기억하며 작성하셨다고 한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덕동 파란대문 집 어머니는 늘 한결 같은 피곤한 모습으로 가게부를 적고 계신다. 물론 가끔씩 꼭 우리 집이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다른 집하면 안 될까? 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꼼꼼하게 적어 주신다.



재승이는 재승이 조사표에 일기를 쓰렴 (재승일기장)



●● Epilogue. 무작정 공을 들이자

내가 공들였던 것을 하나씩 이룬 지금이지만 작년 어업통계 신표본 대상 가구들을 만나 설득할 때마다 나는 참 많은 욕을 먹었다. 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는 속담처럼 눈물 없이 벗기지 못하는 것이 양파라고 한다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욕먹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신표본 개편작업 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나의 조사에는 화려한 기술이 없다. 무작정 공을 들이는 것 말고는 없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에도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세월의 빠름은 늘 놀랍다. 세월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지만 나이 먹는 것은 그리 두렵지 않다. 세월 속에 결과적으로는 나는 최고의 성과를 얻어 갈테니까 말이다.



첫 만남, 그리고 끝인사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
배 선 미

2013년 여름날의 햇살이 따사롭다. 한 손엔 감사편을, 다른 한 손엔 빨간 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말들로도 잘 표현되지 않는 감사함에 연신 몸을 낮추어 인사를 건넨다.

2010년 7월 통계청에 현장조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꼬박 3년이 지난 2013년 7월에 나의 첫 가게 동향 조사구와의 아쉬운 작별을 하는 중이다. 가슴 한 구석엔 작은 후련함도 함께 하리라.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박수도 보내보지만 위안도 잠시 뿐 새롭게 맞이할, 또다시 온 몸으로 부대껴야 할 연동조사구를 생각하면 아득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연동을 끝내며 드린 감사카드와 감사떡

2010년 8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모든 신입 사원이 그렇듯 나는 혈기왕성에 의욕 충만 단어 그 자체였다. 멋모른 채 난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겁 없이 43평 아파트에 가계부를 들고 열심히 계단을 올랐다. 그러나 나의 이런 믿음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딩동, 땡동... 대답이 없다.

어디 나가셨나? 땡동, 땡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조사원입니다.

아니 안 한다고 오지 말라고 저번에 얘길 했는데 왜 자꾸 오셔서 귀찮게 하세요.

어머님, 잠시 얼굴 뵙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됐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어머님, 어머님~.

더 이상 인기척이 없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개그 유행어가 있듯

그야말로 그 순간 나는 많이 당황했다. 전임 담당자로부터 503호는 가계부 말하면 잘 해줄 거예요 라는 말만 전해들었기에 더했던 것 같다.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그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불응과 면접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주 원초적이다. 조사구에서 말 그대로 죽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면접 거부하는 가구들은 메모를 붙여도 편지를 써 봐도 감감 무소식일 뿐 얼굴을 마주하기가 너무 어렵기에 조사구 죽순이가 되어 오며가며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기대할 뿐이다.

그 날도 조사구에서 이 통로, 저 통로를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가계 통로에서 나오시는 낯선 어머님. 분명 인터폰으로 나를 거부하셨던 503호 어머니시다!

우산을 쓸 새도 없이, 나를 보고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빠져 나가시는 어머님 뒤를 따랐다.

안녕하세요. 503호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저랑 잠깐만 얘기 좀 해요.

.....

어머님,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잠깐만 시간 좀 내 주세요. 5분만요.

나 바빠요. 얘기 할 시간 없어요.

그럼 가시는 동안 얘기 할게요.

.....

비를 맞으며 어머님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뛰다시피 걸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어 나를 바라보신다.

야호! 이제 됐어.



어머님, 집에서 쓰시는 영수증이라도 모아서 주세요, 전기요금이랑 관리비 등만 가르쳐 주심 될 것 같은데~.

내 말에 대꾸도 없으시고 다시 종종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신다. 또 따라 걷는다. 자꾸만 따라붙는 내가 부담스러우셨는지 발걸음을 다시 멈추셨다.

자꾸 따라오지 마세요. 저 바빠요. 지금 가야돼요.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제가 통계청 와서 처음 맡는 일이에요.

솔직하게 부탁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만 따라 오시면 영수증 모아 드릴게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시 방문 드릴게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대꾸도 없이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그렇게 서 있었나 보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제법 굵어졌고 젖은 옷에 젖은 머리에 물결이 말이 아니었다.

정말 해주시려나? 안 해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문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여기서 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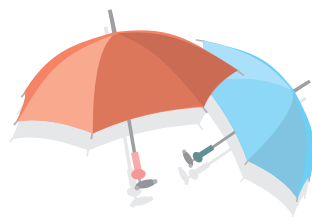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총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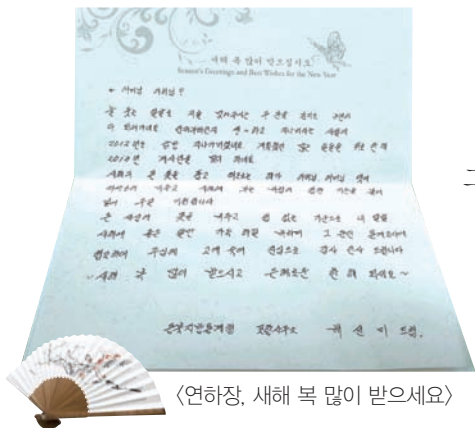
503호 어머님 좀 뵈려고요.

가게로 가면 되지. 가게도 멀지 않은데, 쫓쫓.

가게요? 저기가 어딘데요. 몰라서요.

요 앞에 큰길로 나가서 시장 쪽으로 좀 걷다보면 주유소 옆에 OO열쇠라고 있어.





〈연하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야?

다음 주에 경제활동조사기간이니까
그때 갈게요.

뭔가 잘될 것 같은 예감과 함께
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그
후에도 총무아버님은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셨다. 가끔은 팔만 셋인
나에게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이이구, 제주도 없지. 어떻게 딸만 낳노? 옛날 같으면 쫓겨났다!

놀리기도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조사구에서 어슬렁거릴 때면 저녁 먹고
가라며,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 밥도 안 먹고 간다고 애정 어린 불호령도
내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도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보면
연하장도 버리지 않으시고 소파 옆 가장 가까운 탁자에 늘 놓아두시고 한 번
씩 다시 읽으신다고 하신 아버님이시니 어찌 아니 그러할까?

503호 어머니는 그 후로도 한 동안 나를 피하시긴 하셨지만 연동이 끝날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가계부를 적어주셨다. 알고 보니 동생이 예전에 통계청
가계부를 써서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던 터였다. 귀찮고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부정적 측면만 알고 계셔서 문제였지만 말이다.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넬 즈음 어머니는 내게 수고했다고,
시원하기도 하고 자기 이제 못 봐서 아쉽기도 하다고, 그리고 처음에 안 한다고
고집을 부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의 첫 조사구.

청와대에 민원 넣겠다고 으름장 놓던 병원장 사모님도 헤어짐이 주는 아쉬움에 눈물지으시고, 전입 와서 우린 3년 다 못했다며 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야 내 얼굴 더 보지 하셨던 104호 어머니,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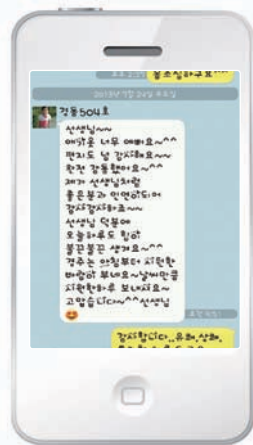
너무 꼼꼼하셔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노라고 가계부 끝난다니 시원하다 하시는 103호 아버지.

부모님을 대신 해 꼬박꼬박 종이가계부 적어준 203호 노총각 형태씨.

늘 향기로운 차를 대접해 주셨던 차보다 더 향기로운 304호 어머니.

그리고 입사 초기 좌절하는 나에게 한 번의 거절 없이 친절히 응해주서 내게 용기 백배 힘을 실어줬던, 연동을 끝내며 건넨 감사 편지에 완전 감동이라며 선생님처럼 좋은 분과 인연이 되어 감사하다며 내 덕분에 힘이 불끈불끈 생긴다며 감동어린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준 504호 이쁜 새댁.

이쁜 새댁의
감사한 카톡메시지



내게 2010년 8월 그날의 비는 좋은 일만 가져다 준 행운비였나보다. 불용 가구의 거친 항의에 눈물짓기도 하고 당신 미구(천년 묵은 여우가 변하여 된 짐승을 뜻하는 매구의 부산사투리)새끼요? 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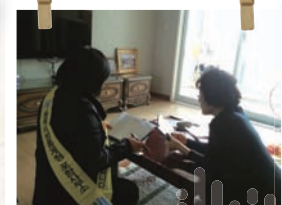
누가 나에게 연동을 끝낸 소감을 묻는다면 긴 터널을 막 나와 환한 빛을 맞이하는 기분이라고 할까! 저기에 또 다른 터널이 보이긴 하지만..... ㅎㅎ

이제 또 다른 시작.

새롭게 연동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꿈속에서도 불응가구를 만나 몹서리 치며 잠에서 깨기도 하지만 나의 현장조사는 오늘도 계속 된다.

I.N.G~~!

새로운 연동 조사구에서
오늘도 열심히!!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

나 때문에 회사를 관둔대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최 인 기

:: 농가경제팀에서 경제조사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어요

지난 10월 1일은 통계조사를 시작한지 만 7년 되는 해이다.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결혼과 출산 이후에 전공을 살려 몇 년만 해보자 하며 도전했던 일이 이젠 천직이 되어 나의 미래를 설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하면서 울고 웃는 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응답자 불응으로 인해 힘들어서 살이 쏙 빠져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 체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농가경제만 7년 이상 담당하던 내가 우연한 기회에 2013년 2월 경제조사로 업무를 변경하게 되었다. 농가경제팀에서는 나름 베테랑으로 통하고 신규

조사관들이 들어오면 적잖은 도움을 주기까지 했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 나는 이제 농가를 떠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기대감과 업무를 빨리 배워서 어떻게든 경제 조사 업무에서 인정받아야지 라는 욕심에 다가올 암흑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

경제조사 업무를 처음 한다는 것도 두려운데,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사이버쇼핑동향조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더욱 헛갈리는 심정이 되었다. 농가를 하던 때와는 조사 용어가 전혀 다르고, 응답자를 대하는 방식도 차이가 많았다. 농가는 호칭부터 어머니, 아버지 인데 반하여, 사업체는 선생님, 사장님 으로 불러야 했으며 어쩔 때는 그전 방식으로 40대 젊은 사장님을 보고도 아버지! 이라는 호칭이 무심코 튀어나와 어린 사장님들을 당황시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사업체의 응답자는 대부분 젊고 세련되며 도시적일 것 같았고, 나도 스타일이 변하여 웬지 더 싱그러워지고 재미있어 질 것도 같았는데 나의 사업체 도전기는 곧 막막한 현실에 부딪치고 말았다.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진상 응답자를 만나게 되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업무 인수를 받으러 다니는 날이었다. 이 지역은 우연찮게도 업무담당자 변경이 사무실 사정으로 최근에 두 번이나 있었고, 대상 사업체들은 2012년 표본개편으로 인해 10월부터 조사가 들어간 신규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인수를 받는데 사업체 대부분의 응답자가 저 통계조사 못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곳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통계 목적을 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성실히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사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겨우 바쁘는데... 하, 참내... 라는 말에 약간의 안도 한숨을 쉬고는 역시 나의 실력 (설득기술)은 어디 가나 빛이 나! 하며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커다란 복병이 나타났다.

인계인수가 잘되고 있을 무렵 OO테크라는 사업체를 방문 했을 때 사건은 터졌다. 이곳은 자동차관련 계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로 종사자 3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었는데, 인계자와 방문 첫날 응답하는 박모 계장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통계조사 못해요. 저번 담당자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와서 왜 힘들게 해요.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며 매몰차게 우리를 대하였다. (참고로 박 계장은 여자다.)

그날은 처음 대면하는 날이니까 속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다음 번에 나와서 잘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나름대로 스스로 위로하며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서 통계청에서 이전에 준 수첩이며 우산 등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것이었다.

쓰잘데기 없이 이딴 거나 주면서 시간 뺏고 그래. 통계청의 통! 자만 들어도 지겨우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너 명 쯤 앉아있는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안에 있던 이사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사는 50대 전후로 뿔테안경에 운동으로 다부진 몸매인데, 험하게 인상을 쓰고 고압적인 분위기로 샷대질을 하면서,

가라고요 가! 이런 빠리리, 꺼지라고! 아저씨, 아줌마 빨리 가라고!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까? 우리가 못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남의 사업장 방해를 해! 잔소리 말고 꺼! 지! 라! 고! 하면서 막말로 욕박질렀다. 길가다가 마주치면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이사라는 사람은 한 술 더 떠, 남자 직원들을 앞세워 우리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인가? 옛말에 동냥은 못 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고 했는데 답례품을 저렇게 던지고, 조사표를 팽개치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축산물 생산비 대상 농가인 돼지농가와 한우농가, 농가경제, 농민회 출신의 힘세고 억센 응답자들을 상대해서 나름대로 통계청 조사에서 일어나는 불응이나 못된 말에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겪었던 일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어이없고 기가 막힌 핵폭탄 급이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홀대를 받으며 과연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여태까지는 그래도 조사를 해줬는데 내가 맘에 안 든 걸까?

아이 참,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사업체가 걸리다니... 하며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다.

혼자서 다시 사업체를 방문하기까지 몇 번이고 망설여졌다. 그런다고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일이어서, 맘을 단단히 먹고 다시 사업체를 방문했다. 결과는 KO패로 박 계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 혼자서는 안 돼! 조사 베테랑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면전에서 아는 체도 안하니 전화를 걸고, 메일도 보냈지만 여전히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다. 광공업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이 사업체는 결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업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경제조사팀장님에게 보고드렸고 팀장님은 열 일을 제쳐놓고 진작 말했어야지. 하면서 나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다.

팀장님과 함께 가니까 함부로 그렇게까지 대하진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박 계장을 만났다. 그러나 박 계장은 요지부동으로 죽어도 못하겠다며 이제 지원군까지 데리고 왔냐는 식이었다. 시끄러워지자 나타난 흥분한 조폭 같은 이사님도 또 다시 그전처럼 먹살을 잡을 것처럼 우리를 나가라고 밀어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면 옥해서 만사 제치고 한 번 붙어서 싸울 텐데, 역시 팀장님은 베테랑이셨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포커페이스로 점잖고 알만한 분이실 것 같은데... 통계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르고, 슬쩍 위협해도 통할 리 없었다.

박 계장은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서 현장에 없는 전 담당자를 찾으며, 저번에 조사해 간 직원 오라고 하세요. 한 두 번 협조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나?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통계조사는 절대 못 해줘! 라며 전 담당자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울고불고 고함을 질렀다. 같이 밥 벌어 먹고 사는 처지에 저게 무슨 해괴한 막장 모습인지...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에 열이 올랐다. 오기가 났고,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 포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끈질기게 맞서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팀장님과 나는 이 사업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다. 먼저 공문을 만들어 해당 사업체에 우편으로 보냈으며, 토씨 하나에 따라 꼬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했다. 공문을 보낸 뒤 일주일 후 경제조사팀장님과 또 다른 지원자인 조사지원팀장님을 동행하여 사업체에 방문했다.

세상에 여태까지 방문 했을 때는 앉으라는 말은 고사하고, 소 닭 보듯이 한 사람들이 그날은 웬일인지 접견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여러 이야기 끝에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보낸 공문과 회사 직원들의 입소문이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고, 간접적인 사항은 그리 모질게 굴었던 담당인 박 계장이 결국은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했단다.

쾌재를 불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때문에 박 계장이 정말 그만 두면 어쩌지? 두고 두고 통계청을 원망하며 살 텐데... 조금 더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볼까? 라는 생각에 문자를 보냈다.

좋은 인연으로 시작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거 일은 잊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내봐요. 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2주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해당 사업체를 방문했을 때, 박 계장의 자리에는 비슷한 동년배의 여성 한 분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박 계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만 것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 계장과 회사의 협약(?)한 인상의 이사님과 갈등이 많았는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우리 통계청에 화풀이를 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 만만하게 보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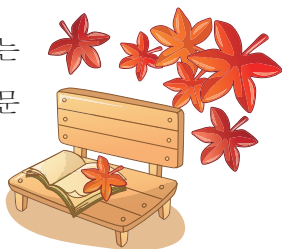


새로 온 실무자인 양 계장님은 또 하나의 넘어야 할 고개였다.

양 계장님, 저번에 보니 몸이 피곤한 것 같았는데 힘내세요! (비타민 한 병 건네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쉬실 때 읽으시라고 좋은 생각 준비했어요.

통계조사 이야기보다는 주변 이야기나, 아이 키우는 이야기 등 얼굴을 익히고자 하루 걸러 한 번씩 방문하였다. 드디어 양 계장님 입에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란 말이 나올 때는 속으로 얼마나 기뻐는지...



그 후 양 계장님은 미리 전화를 하고 방문하면 조사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즉시 알려주시는 나만의 베스트 응답자가 되었다. 가끔 그 사업체에 나가면 여태까지의 과정을 지켜보셨던 이 모 과장님이 통계청에 최인기씨 같은 사람이 많아요? 부럽네...이젠 통계청에서 잘 좀 부탁해. 하며 말을 건네신다. 이사님은 아직도 나에게 통명스럽게 대하는 무서운 존재지만, 나는 복도에서나 사무실에서 볼 때마다 안! 념! 하! 세! 요! 이사님! 하며 웃으며 인사한다.



∴ 나만의 응답자 설득 TIP

박 계장이 나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다시 온 응답자와의 유대도 강화하게 위해 출장 나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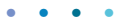


사업체의 자료를 사전 조사하여 광공업동향조사 기록부에 부착

첫 번째는 출장을 나가기 전 먼저 해당사업체의 제품 개요나 생산 제품을 홈페이지나 책자 등을 보고 정리하여 광공업동향조사 기록부에 부착하는 것이었다.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항시 가지고 다니는 기록부에 정리하면서 해당사업체의 내용이나 특이사항을 잊지 않고 조사하게 되었고, 사업체에 조사 내용을 보여주며 조사함으로 인해 그냥 와서 말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전 준비해서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주어 신뢰감을 쌓았다.

두 번째는 사무실을 빈손으로 가면 뻔뻔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매번 만 원이 넘는 음료수 세트를 사간다는 것도 많은 대상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야쿠르트 한 병이나 잡지 등 부담이 적은 작은 정성과 진심이 담긴 웃는 인사는 서로 간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었다. 응답자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나도 같은 월급쟁이로 서로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불응하는 사업체를 가려면, 출장 준비부터 마음이 무겁고, 발이 안 떨어진다. 불응 사업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수록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통계 조사에 회의도 느끼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설득해서 협조를 받으면, 성취감도 그만큼 높아진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내 자신의 삶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들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준다.



▲ 새로운 응답자 양 계장님(좌측)과 함께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지방청 장려상 •

문밖에서 내미는 따뜻한 손

죄송한데 다음에 오세요. 하고 문을 닫아버린다.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다. 결국에 나중에 연락되어
회수를 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응답자라서 나는 여전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동안 잘 해왔던 방식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내 조사구 이고 내가 DIY 할 거니까...

- 「내 조사구를 DIY하라!」 중에서 -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하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들은 무화과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와
윤 용 복

새로운 조사구를 시작하면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과 더불어 여린 새싹 같은 기대감이 앞서게 된다. 이번 조사구는 과연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가계부는 더 나오려나? 불응률은 적겠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두려움, 기대와 설렘으로 복잡하다

잠실 6동 장미아파트도 이런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여름 00호를 방문해 겪었던 일이다. 이 가구는 부부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과일노점을 하는 가구로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사는 4인 가족이다. 가계지역은 경제활동도 그렇지만 가계부 설득할 생각으로 특히 가구원과의 유대감 형성에 공을 들이게 된다.



여름인지라 문이 열려 있어 통계청이라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아주머니 맞은편에 앉아 날씨며 무더위로 노점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등의 말로 얘기를 풀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맞은 편 화장실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세상에나~ 어찌란 말인가! 서른 세 살의 장성한 아들이 손에 흰 수건으로 몸의 주요 부위만 간신히 가린 채 거의 알몸으로 거실로 나오다 나와 눈이 딱 마주친 것이었다.

정말 순간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내 두 눈은 당황함과 놀라움으로 튀어나올 듯 커지고 그때서야 상황을 알아챈 주인아주머니는 화장실 문 쪽으로 뒤돌아보며 당황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 문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 자리를 바꿔 앉으며 어머,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괜찮습니다. 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물론 주인아주머니도 놀랐는지 말을 잊지 못하더니 나중에는 오늘 회사 늦게 간다고 하더니... 왜 옷도 안 입고 저러고 나와. 하며 얼버무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너는 밖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냐? 하니까 아들이 안 들렸어. 하며 방에서 짧게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더 당황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우리 아들하고 딸도 그래요, 샤워하고 그냥 부담 없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조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애매한 게 손바닥에 진땀이 날 지경이었다.

어머니, 지난 주에 노점 과일가게는 몇 시에 일하러 가셨다가 몇 시까지 하셨어요?

몰라.

과일은 새벽 장에서 떼 오시는 거예요?

생산지서 부쳐와.

그럼 과일 팔러 나가시는 시간은 언제예요?

아 모른다니까. 방금 일도 돌아서면 잇는데 지난주 일을 어찌 기억해?

그래도 한 번 더듬어보세요. 정확하진 않아도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 쯤에 정리하고 들어오셨는지 기억을...

아니 통계청은 그렇게 통계를 대충 조사하러 다녀? 몇 시 쯤이냐고?

어머니, 우선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통계를 대충하면 절대 안 되죠.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여쭙보는 거잖아요.

아 모른다고 했잖어.

도대체가 이따위 만원 한 장 주구 별거를 다 물어보고 난리여...

어머니는 배부해 드린 상품권을 획 내팽개치셨고 통계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찍힌 답례권 봉투는 거실 바닥으로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떨어졌다. 거실 바닥에 하얗게 떨어져있는 봉투가 너무 애처롭고 처량해 보여 울컥 마음이 복받쳤지만 다시 주워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어머니, 오늘 결례가 많았어요. 또 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가구를 방문해도 마음 속 답답하고 무거운 돌덩이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

며칠 후 다시 가구를 방문하자 염려했던 대로 주인아주머니 표정이 얼음처럼 냉랭했다. 나를 보자마자 내가 지난 번 일로 아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알기나 해? 아무나 집에 들인다고 다시는 통계청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난리 쳤어.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딱 찍혔어. 다시는 오지도 말고 우리 아들 눈에 띄지도 마. 얼른 나가. 하며 등을 떠미는 것이었다.

이런...!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그날 아들이 침착하게 대답을 해 그나마



걱정을 덜 했는데 모자시간에 어지간히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난들 대낮에 화장실에 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으며 아무리 장성한 아들이 샤워하고 옷도 안 입고 나올 건 또 뭐란 말인가? 아무튼 급한 불은 꺼야하기에 다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정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대화하려고 맞은편에 앉은 게 잘못이네요. 어머니 옆으로 나란히 앉았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요. 아드님이 많이 화내죠? 왜 안 그렇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낯선 사람이 거실에 있을 줄 짐작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며 어머니의 화를 풀어드리기에 급급했다. 물론 가게부나 경제활동조사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말이다.

다음 날 방문하자 이번에는 아예 문도 안 열어주셨다. 나는 평소에 친하게 지낸다는 옆집 어머니에게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오해가 좀 있어서 문전박대하니 함께 가서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해달라며 부탁하자 사람 좋은 어머니는





흔쾌히 응해주셨다.

이십 여 년 넘게 이웃으로 살아오신 터라 정말 순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사이였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옆집 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난 어머니에게 아이구, 젊은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이 더운 날 매일 이렇게 찾아 오는데 어지간하면 좀 해줘. 나도 처음엔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그랬는데 통계청

이라잖아. 아, 자기도 장사하면서 사람 대해봐서 알잖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나 등골 빼는 힘든 일인지. 왜 알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 입만 조금 열구 말해 줘. 그럼 돼. 라며 단단히 부탁하셨다.

그 이후 어머니는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고 찌릿찌릿 레이저를 쏘던 눈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셨다.

오랜 기간 사람 대하는 노점을 하신 탓인지 어머니는 주로 이렇게 대화하신다.

어머니 저 통계청 직원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뭘 그렇게 자꾸 와? 사람 귀찮게.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조사구 다니며 만나는 일이에요. 귀찮으셔도 잘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 줘.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더운데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 다 그렇게 어렵지.



네. 그렇죠. 어머니 제가 통계청에서 쓰는 가계부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도시기구들이 소비는 어떻게 하고 지출은 어느 쪽으로 많이 하나 그런 거 통계 내는 거예요. 요즘 통신비 지출이 가계에 부담 많다고 매스컴에서 난리잖아요. 그런 자료가 다 이 가계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쓰라고? 못 써. 내가 육십 평생 가계부라곤 써본 적이 없는데 못 써. 다른 집 가봐.

알아요, 어머니, 힘드시다는 거. 근데 이 자료는 스무 가구 중에도 열 가구만 하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다른 집 가봐. 나는 못쓰니까.

어찌 하겠나 일단 일보 후퇴하는 수밖에... 아무래도 작전을 수정해야 될듯했다. 나는 장사하는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잘 못받는 것 같아 그 점을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사모님으로 호칭 전환했다.

사모님, 그럼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옆집 어머니는 쓰고 계시니까 어떤지 물어도 보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오긴 뭘 자꾸 와?

제가 이런 통계 일을 십 수 년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사모님처럼 무뚝뚝하신 분들이 한 번 해주시면 진짜 정확하게 잘해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을 믿어요.

시끄러~ 간다면서? 어서 가거나 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게 분명했다. 다음에 방문할 땐 그 집에 중학생 외손자가 함께 살고 있어서 나는 미니가계부를 들고 갔다.

사모님, 이게 미니가계부라는 건데요, 손자가 중학생이라서 학교에 봉사

활동 필요하잖아요. 이거 한 장만 써주면 한 달에 한 시간 봉사활동을 발급 해줘요. 일 년이면 열두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봉사활동 하려고 고생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하는 걸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사모님, 근데 이건 이 한 장만으론 안 되고요, 가계부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부 내용이 누락될까봐 보완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학생들은 지출이 별로 없으니까 손자는 쓰기 쉬운데 사모님은 가계부를 쓰셔야 되니까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돼요. 그 대신 슈퍼에서 주는 영수증 있죠? 그런 거 그냥 붙이세요. 공과금 나오는 것도 다 가계부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조금은 수월하겠죠?

똑딱, 똑딱... 10초 정도 물끄러미 가계부를 보던 어머니는 천천히 가계부를 집어 드셨다. 나는 얼른 가계부를 펴드리며 간단히 기입하는 법을 말씀드렸더니 별 말씀이 없으셨다. 유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걸... 쓰라고?

와우~! 이 정도면 어머니 성격에 오케이 싸인이 분명했다. 나는 영수증 모으는 거며 미니기입장 쓰는 법, 영수증 없을 때만 가계부에 기재해 달라는 등의 당부를 드리며 날아갈 듯 신이 나서 인사하고 다음 방문을 기약했다. 얼마 후 가계부 기입 상황이 궁금해 방문하다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계부 쓰시는 것 도와드리려구요.

나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누가 말하면 하다가도 내뉘지고 안하는 성격이야.

헉~ 나는 영수증은 빠뜨리지 않고 모아 놓으셨어요? 라는 목까지 나왔던 말을 꿀꺽 삼키고 대신 참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날려드렸다. 마음은 급



당황, 우울 모드였지만...

다행히 가게지역 응답자 간담회 상품으로 멸치세트가 배부되었다. 추석 명절을 얼마 남기지 않은 터라 명절 인사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아쉽게도 어머니는 시골에 가셔서 못 만나뵙고 옆집 친하게 지내는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부탁 드렸다.

그렇게 응답자 간담회를 마치고 얼마 후 다른 가구 가게부 내용 보완으로 방문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먼저 아는 체를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 눈인사에 감동받아 멸치세트는 맘에 드셨어요? 하자 주말에도 다녀? 하셨다.

네, 맞벌이 하는 분들은 평일에 만나기 어려워서요.

음... 끄덕끄덕 하신다.

나는 가게부 기입 상황이 궁금해 그 얘기가 입 속을 맴돌고 혀를 근질근질 간지럽혔지만 꼭 참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드렸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9월 가계부를 회수하는 날,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산나물을 볶는지 집안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웬지 기분 좋은 예감이 내 몸을 스캔하듯 훑고 갔다. 반찬 준비로 한손에 주걱을 들고 있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가계부 회수하러 왔어요. 하자 싱긋 살인미소까지 날리셨다. 나는 너무도 황송하고 감동해서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라 거실에 서 있었더니 거실장 위에서 주섬주섬 가계부를 꺼내 오셨다.

오~~ 이 감동이란...!

나는 얼른 가계부를 펼쳐보았다. 연필로 썼지만 필체도 좋고 내용은 그리 많진 않지만 영수증도 적잖이 붙어 있었다. 앞 관리비 칸이 비어있어 어머니 관리비가... 하고 말하는 찰나 안에 적었어. 하셨다. 그리고는 이거 하나 먹어 봐. 하시며 팔다 남은 듯한 무화과 하나를 건네 주셨다. 한 쪽이 슬쩍 무른, 시들은 무화과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어찌 그리 가슴이 찡해오던지 지난 몇 개월간의 설움이 가루가 되어 발밑으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이 었다. 속이 약간 짓물러 걸쭉한 무화과가 어찌 그리도 향긋하고 달콤하던지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를 연발하며 흡쇼핑 배우보다 더 맛깔스럽게 무화과를 폭풍 흡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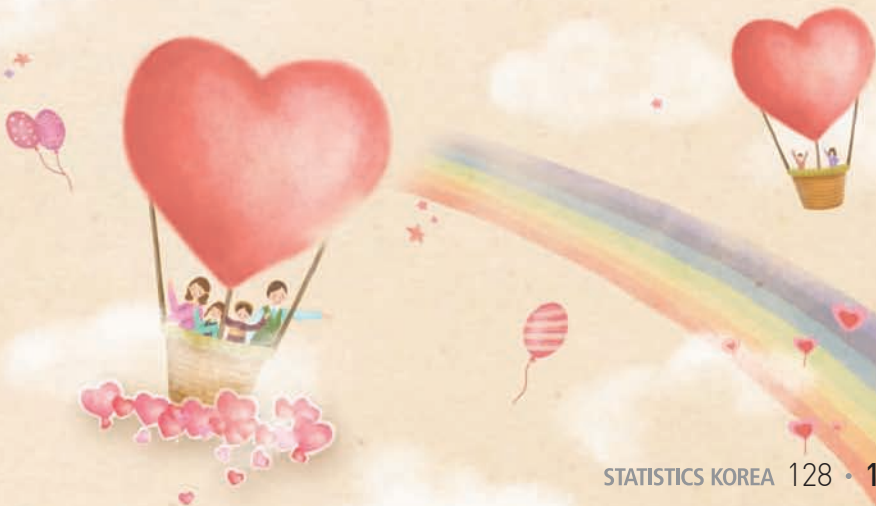




이번 체험사례를 쓰며 조사구 어머니께 조사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며 사진 한 번만 찍자고 부탁하자 자신은 못생겨서 절대 사진을 안 찍는다며 극구 사양하셨다. 내가 보기엔 잘 웃질 않으셔서 그렇지 미소 지을 때 얼굴은 미스코리아 울고 갈 정돈데 말이다.

통계현장조사는 일종의 산행이며 자신에 대한 시험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도 있다. 그러나 험한 산일수록 산세가 아름답다 하지 않는가? 정말 어려운 조사구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목표 달성했을 때의 기쁨, 그건 등반가가 힘겹게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감동 그 이상일 것이다.

더불어 바쁜 중에도 가계부 기입하느라 고생하시는 조사구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사구에 가면 절대로 화장실 문을 정면으로 보고 앉지 말라는 조언을 다른 조사담당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다.



장려상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둘

내 조사구를 DIY하라!

(Do it yourself-손수 만들어가다)

경인지방통계청 평택사무소
윤 화 림

❖ 뭐야, 바뀌는 거야?

임용 후 인수인계를 받은 첫 조사구. 저소득층이 많은 빌라 건물이다. 인계해 주실 선배와 같이 한 가구 한 가구를 방문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어머니가 계신다. 조사대상은 60대 초반 닭발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사시는 어머니. 그냥 떨렸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인데 잘해 낼 수 있을지 막막했다. 오로지 머릿속에 하나 무조건 밝은 표정과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뿐이었다.

선배님이 평동~ 하고 벨을 누르고 나는 마음 속으로 도레미파 솔솔솔 하고 있다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아도 너무 밝게 인사했다. 어색하게



따라 들어가서 그때부터 선배님이 조사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선배님은 정말 너무 친근하게 머느리 얘기, 가게 얘기부터 살림얘기까지 마치 동네주민끼리의 대화인 듯 말씀을 하시면서 가게부를 쓱쓱 쓰신다.

난 두 분의 대화에 쉼이 낄 수가 없다. 어머니는 60대 초반, 선배님은 40대 주부, 나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매실을 어떻게 담가야 맛있는지, 문틈에 곰팡이 생기면 어떻게 없애는지, 김장하는 법도 모르고...

엄마가 해주시면 먹어만 봤지, 크게 관심도 없었고 내가 해본 살림이라곤 청소기 밀고 설거지 하고 세탁기 돌리는 것뿐. 통계청 임용 전까지 학생이었고, 그 흔한 자취경험도 없는 터라 세금을 직접 내본 적도 없고, 살림을 도맡아 해본 적도 없다.

모르는 것 투성이인 내 머릿 속에 한 가지. 나중에 나 혼자 오면 무슨 얘기 하지? 휴... 를 연거푸 생각하는 와중에 조사는 끝났고, 선배님이 이제 앞으로는 이 친구가 올 거라며 어머니께 나를 소개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

뭐야, 바뀌는 거야?

선배님이 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아주 바쁘게 가게부를 정리하신 이유 때문이다. 60대 초반이시면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으실 법한데 어머니는 글을 읽고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 100% 청취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자존심도 상하시고 또 동네에 그 사실이 혹시 알려질까 싶었는지 어린 나를 못미더워 하는 눈치셨다. 일단은 노련하신 선배님이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나와서 어머니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다.

떨리고 긴장됐던 첫 만남이 그렇게 끝나고, 매주 찾아가면 부담스러워 하



실 것 같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간에 기입지도
도 할 겸 전화를 드렸다. 마음 속 다짐 잊지 말자 명랑
한 목소리! 도레미파 솔솔솔 을 떠올리면서.

어머님~ 저, 지난번에 방문 드렸던 통계청인데요. 기억하시죠?

아, 네.

어머님, 오늘 잠깐 들러도 될까요? 가게 나가시기 전에 잠깐 들를까
하는데요.

오늘? 음, 나 목욕 갔다가 올 거니까 두 시에 와요 그럼.

생각보다 차가우시다. 걱정이다. 문을 콧 닫거나 전화를 끊어버리는 불응은
아니지만 수화기 너머로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약속
된 시간에 찾아 왔는데 집에 안 계신다.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신다. 동네
에서 기다리다 마주쳤는데 가게 나가실 시간이라고 주중에 다시 오라 신다.
엄청난 허무함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렇게 다시 약속한 날이 되었고, 방문 전 나는 무엇을 조사할지 생각
하기에 앞서 어떤 대화를 할지 대화 주제 생각하기 바빴다. 어머님 가게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으니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지 싶어, 방문을 드려서 밝은
모습으로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는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금세 대화가 끊기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았다. 담당자가 바뀐 김에 그만해야겠다
생각이신 것 같았다. 조사를 대략 끝내고 횡설수설 1년은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 다음 방문에는 가게부를 회수해야 했는데 다행히 영수증을 다 모아
놓으시고, 지출내역을 꼼꼼히 기억하고 계셨다. 아무래도 2년간 가게동향
조사에 협조해 주신 터라 습관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았다.



조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또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았다. 더 이상 안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시다. 조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조사만 하는 자세 말고, 친숙하게 먼저 다가가 정정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어머님 가게에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먹어 봤지만 또 생각나는 맛이에요.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을 보며)어머님 손자예요? 진짜 귀엽다. 그런데 어머님은 할머니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조사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다가가 말씀드렸더니 한 마디 대답이 열 마디로 늘어간다.

아이고 우리 손자는...

가게를 내가 7년 전부터 했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마음을 점점 열어가셨고, 어느 날부터인가 글을 모르셔서 답답했거나 못하셨던 것들을 내게 부탁하셨다. 핸드폰에 번호 입력 하는 것부터, 모르는 우편 읽어드리기, 송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심성의껏 도와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가게부를 쓰고 버리려고 모아놓으신 우편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편물을 봤다. 버릴 것이라고 하시는데 봐도 되냐고 여쭙고 보았더니 어머니가 진료 받으셨던 개인병원에서 부당하게 추가 납부 받은 진료금액이 있으니 이를 환급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그거 또 뭐 홍보하는 그런 거 아니냐며 그냥 버리라는 걸 차근차근 설명 드리고 내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고 제출할 관련 서류도 챙겨드렸다. 그날은 유독 긴 가게부 기입지도의 날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추가 납부하신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었다.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 하셨고 이후에 언제 끝나? 나는 질문 없이 매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셨다. 풍량을 헤치고 이제 내 조사구가 된 것이다. 그렇게 1년 여의 조사 후 그 조사구는 올 6월에 끝이 났다.

어머니, 어머니 예전에 저로 바뀌고 귀찮아 하셨는데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니까 아쉽고 그러네. 지난 번 애기 엄마도 그렇고 통계청이 나 많이 도와줬는데, 종종 가게 와~

당연하죠. 저 퇴근할 때 지나가는 길이니깐 생각하면 들르게요!

그려 수고했어. 이렇게만 하면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아. 아들놈은 귀찮다고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하하.

따뜻한 이 한 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너무 뿌듯했다. 종종 나에게 머느리 욕도 서슴없이 하셨다. 나중에 그런 상황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럼 나는 말씀드린다. 통계조사 하러 왔다가 인생을 배우고 간다. 고.

나는 지금도 종종 지나가는 길에 가게에 들른다.



❖ 그녀의 유행어, 죄송해요. 안 해요. 바빠요. _____

통계청 임용 후, 채 반 년이 되기 전에 나는 연동표본을 맡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공포의 연동표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불친절했던 이 조사구는 가계부 설득이 유독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나씩 해나가는 와중에 마지막 한 가구. 서현이네 집이 문제였다. 서현이네는 30대 초반의 부부와 미취학아동 3명이 사는 5인 가족이다.



기초조사는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러 방문을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참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 그래서 가게부~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가게부의 그 자도 나오기 전에 죄송해요. 안 해요. 바빠요. 란 대답이 나온다. 서현이네 전에 두어 집을 설득하면서 나름의 가게부 설득 노하우가 생겼었다. 이 공식에 서현이네를 대입시켜보기로 했다. 가게부 설득작전 시작이다.

첫 번째, 답례품의 유혹

가계동향조사는 답례품인 상품권이 매달 2만원이 지급돼요.
 격월로 1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르게 매달 2만원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해드리고 설득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렸다. 하지만, 남편이 고소득 상용근로자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냉담하다.
 답례품 괜찮아요. 안 받고 안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거 같네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도 차질이 생길까 싶어 발을 돌렸다. 답례품 얘기로는 안되겠구나...

두 번째, 그냥 한 번 보세요~.

다음 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보조조사표 배부를 위해 방문했다. 우편함에 꽂아놓아도 되지만 이날은 아이들을 위한 과자도 사서 직접 방문을 드렸다. 가게부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지 어쩐지 너무 차갑다. 가계동향조사 리플렛과 가게부를 다 챙겨가서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릴 생각이었는데 무리일 것 같았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한 번 보기만 하세요. 하고 가게부가 담긴 봉투를 드리고 왔다. 너무 단칼에 자르니 더 이상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한 템포 쉬고 가자 작전이었다.

세 번째,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연락이 먼저 올 일은 전혀 없고, 또 찾아가면 분명히 싫어 할 것 같고...

대책이 필요했다. 연동 조사구이다보니 밤낮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파트를 방문했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이 아파트는 약 22평 정도의 아파트라서 그런지 신혼 혹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과 노인가구가 많다는 점과 다른 한 가지는 오후 즘엔 아기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아파트 앞 평상에서 항상 담소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서현이 엄마도 웬지 거기에 계실 것만 같았다. 따로 찾아갈 수 없으니 우연인 척 얼굴을 한 번 더 내비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을 미리 사서 가방에 넣어두고, 다른 볼일이 있는 양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반갑다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줬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그 전에 설득한 가구의 아기 엄마도 같이 있었다. 겹사 겹사 잘됐다 싶은 마음이었지만 조사에 대한 얘기는 함구하고 인사만 드렸다. 그랬더니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웬일이냐며 사탕이 고맙다고 하신다. 아주 조금은 마음이 열린 것 같다.

네 번째, 애절한 눈빛 일발 장전

보조조사표도 걷고 경제활동인구조사도 하려고 방문을 했다. 가계부 애긴 역시 꺼내지 않고 경제활동인구조사만 열심히 했다. 조사가 끝날 무렵, 부탁드린다는 눈빛을 일발 장전 후, 저, 그리고... 했더니

아, 가계부요? 그런데 그거 못 쓸 거 같아요. 애들이 셋이라 그거 쓸 정신도 없고 제 가계부도 그냥 영수증만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보기도 힘들



어요. 한다. 그래도 다행이다.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려면 조금 더 설득하기 쉬우니까 말이다.

아이들이 셋이서서 정말 바쁘시겠어요. 아무래도 가계부를 직접 쓰는 건 힘드시죠? (충분한 공감을 한다는 표정으로) 그러면 어차피 영수증을 모으시니까 가계부에 영수증을 모아주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그럼 나머지 기입하실 부분들은 제가 여쭙보면 되니까요.

아, 그런데 저는 영수증을 제가 보관하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못할 것 같네요.

음, 그럼 영수증을 제가 가져가지 않고 컴퓨터로 전자가계부를 입력해주시는 방법도 있으신데 어떠세요? 참고로 전자가계부는 매달 4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답례품과 상관없이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 거 같네요.

정말 애간장이 탄다. 하실 듯 안 하실 듯 하는 태도에 나는 더 밀어붙일 것인지 또 다시 한 템포 쉬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일단은 물러서기로 했다.

다섯 번째, 승부수 - 나는 급하지 않다는 듯이

안 해요. 바빠요만 하다가 가계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열렸단 증거. 이번엔 승부수를 띄울 차례다. 아무런 예고 없이 땡동벨을 누르고

네. 저, 통계청인데요, 옆 라인 들렀다가 혹시 계실까 싶어서 들렀는데 잠깐 시간 되세요?

사실 옆 라인은 들르지도 않았지만 정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는 생각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나는 전혀 급하지 않다는 듯이 사가지고 간 빵과

통계청에서 나온 센스 있는 주부들의 생활상식 책을 내밀었다.

잘 지내셨어요? 옆 라인 왔다가 이거 전해드리려고 잠깐 들렀어요.

나는 분위기를 봐서 말씀드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먼저 애길 꺼내주신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고 하셨죠? 그럼 그때 그 전자가계부로 할게요.

드디어 성공이다. 이전에 설득하면서 표본가구가 이사를 가시지 않는 한 계속 설득을 드려야 하는 임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정타였다. 그렇게 서현이네는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비록 처음 설득할 때는 오로지 설득을 위한 나의 작전들로 조금은 계획적으로 대했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나는 조카 선물을 사며 서현이 선물도 하나 사가게 되는 조사원이 되었고, 아이 셋의 육아로 전자가계부 마감을 제대로 못하는 응답자의 가계부를 보완해주기도 한다. 예쁜긴 해도 나중에 나더러 아이 셋은 낳지 말라는 얘기와 더불어 항상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응답자가 되어 계신 서현이 어머님. 그렇게 서현이네 가계부 설득과 함께 연동조사구는 내 조사구가 되었다.



❖❖ 사례3.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여는 중. 여전히 ~ing

연동표본조사구가 시간이 지나고 응답자와의 관계도 친밀해 지면 내 조사구에 대한 애정이 생겨난다. 나의 연동표본조사구에 애정이 무르익을 때 쯤 너무 너무 가계부를 잘 써주시던 가구가 전출을 가고, 냉랭해도 이렇게까지 냉랭하나 싶을 정도의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다. 처음 경제활동



인구조사 설득을 했을 때, 한 번에 설득이 돼서 운 좋은 사람이라며 어깨를 으쓱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막상 가계부 얘기를 조금씩 꺼냈더니 너무 일찍 꺼낸 것이 내 실수였는지 그 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굳게 닫혔다. 오로지 경제활동인구조사에만 응해주신다. 다행이긴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가장 힘든 가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답례품이 격월로 나온다. 답례품이 나오는 달은 현관 문을 연다. 정말 얼굴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조사가 끝나면 답례품만 획득하고 문을 꽁 하고 닫는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잡는다. 냉랭하고 짜증내면서도 조사에는 응해주시니까 뭐 이런 일쯤은 감수해야지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달, 답례품이 없는 홀수 달이다.

땡동 하고 벨을 누르니 인터폰을 받은 뒤, 그냥 여기에 말씀 하세요. 하신다. 그럼 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인터폰으로 조사를 한다.

조사는 완료되었지만 마음은 좋지 않다. 나도 집에서 귀한 딸인데... 이런 가구에 도저히 가계부 얘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가계부 설득을 위해 다시 방문을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서 저녁에 가야하는데, 이미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분명히 문을 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우연인 듯이 인사를 건네고 그냥 읽어만 보시라고 가계부를 내밀었다. 정말 아무런 큰 기대 없이.

그 다음 달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답례품이 나오는 달이었다. 오늘은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드렸더니 가계부를 작성

했다며 지금까지 쓴 가계부를 보여주신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감사하지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응답자이다. 가계부도 굉장히 꼼꼼히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기분이 좋아보이셔서, 가계부 기입지도를 했다. 하지만 자주 방문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여 이후에 우편으로 기입지도를 꾸준히 했다. 그렇게 지금 세 달째 귀한 가계부가 나오고 있다.

9월분 가계부를 회수하러 갔다. 평동 누르고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했더니 아파트의 그 두꺼운 현관문을 뚫고 차가운 한 마디가 들렸다.

아, 짜증 나, 통계청 또 왔어. 자기가 나가봐. 담에 오라고 그래.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남편분이 대신 나와서 죄송한데 다음에 오세요. 하고 문을 닫아버린다.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다. 결국에 나중에 연락되어 회수를 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지만 방문했을 때, 현관의 신발장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응답자라서 나는 여전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동안 잘 해왔던 방식대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내 조사구 이고 내가 DIY 할 거니까!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는 노인 분들도 많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애기 엄마들도 많다. 평범하게 도시에서 자란 나는 할머니와 살아본 적도 없고 남동생만 있는 터라 꾸준히 만나는 그런 가구들을 통해 할머니의 경험과 언니들의 조언을 들곤 한다. 이를 통해 가끔은 내가 하는 고민의 해답을 찾을 때도 있다.



응답자의 반응에 울고 웃는 햇병아리 통계조사원이고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훨씬 많은 통계청 공무원으로서 초심을 다시 되새겨 본다. 나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학생일 때도, 또 지금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돌보며 살아 갈 수도 있었지만 통계학 공부를 하고 통계청에 지원한 이유는 하나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도 그렇지만 학부시절 많은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다. 관련 법규 한 줄에 살기 힘든 국민의 한 사람이 울고 웃으며 어디에 처질지 모르는 복지울타리를 놓고 무기 없는 전쟁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정책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입안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며, 그 한 걸음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모든 통계조사 담당자들이 제자리를 정직하게 지켜준다면 반드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오리라 기대한다. 이것이 때때로 힘들게 느껴지는 현장조사업무를 하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통계주무관 나의 중심이다.

거창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하여, 그리고 이를 통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나는 오늘도 초심을 한 번 더 다잡으며 연동표본을 내 조사구로 만들러 간다!!





거북이 달린다

경인지방통계청 화성사무소
조 성 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알 수 있는 바로 그 국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나를 성실한 일꾼이다. 지난 10년 나의 공직생활을 들여다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묵묵히 일해 온 것 같다. 나는 타고난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이어받았다.

나는 어린 시절 길을 지나가다가도 애국가가 울리면 멈춰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애국소녀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애국가를 들으면 왠지 모를 뭉클함과



함께 마음이 경건해지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면 눈물 흘리며 감동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명의 평범한 국민이자 유치원생 두 아이의 엄마로 또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서른일곱 먹은 아줌마! 그게 바로 나다.

올해 5월, 나에겐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초임 발령 후 줄곧 근무했던 인천광역시청을 떠나 바로 이 곳, 경인지방통계청 화성사무소에 근무하게 된 것이다. 처음 경인청본부에 면접 보러 간 날이 생각난다. 너무나 긴장한 탓에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입으로 전달되지 않고 맴돌기만 해서 면접관님들께 통계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내 의지와 포부에 대해 제대로 말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날이었다. 하지만 짧고도 또 긴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그리고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한 지난 6개월 인간사 희로애락을 한곳에 모아놓은 듯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나 다채로워졌다. 울고 웃는 시간 속에 나는 한 단계 성숙한 사회인이, 공무원이, 통계청 직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되려는 6월의 어느 날, 처음으로 홀로 떠난 안산 출장 때의 일이다. 팀장님과 두세 번 다닌 길이지만 타고난 길치인 탓에 내비게이션 길 안내에 의지해 가고자 하는 업체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흐리고 보슬보슬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대형트럭들 사이에서 유난히도 버벅대며 운전을 한 것 같다.

운전경력 10년이지만 외근이 거의 없고 운전할 일이 별로 없었던 나는

부끄럽지만 사실 초보운전에 버금가는 운전 실력의 소유자다. 가까스로 업체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사무실에 올라가 응답자를 만났다. 생각보다 너무도 친절하고 예쁜 아가씨였다. 그런데 웃으며 하는 한 마디. 이달 말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상급자인 김 과장님이 들어오신다.

나가세요. 나가~. 이번 달부터 통계청 조사 안 해 주기로 했어요.

그쪽에선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과장님 제가요. 통계청 와서 처음으로 혼자 출장 나온 거예요. 처음 방문한 업체부터 저한테 이리시면 안 돼요. 운전도 엄청 잘 하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일부러 없는 애교를 최대한 짜내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

그럼 김**씨는 곧 퇴사하니까 나중에 후임자 오면 오세요. 통계청 업무는 바빠서 지금 당장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경상조사와 연간조사가 한꺼번에 있는 달이라 그래도 할 수 없다. 차근차근 우리가 하는 통계조사의 목적과 용도를 설명했다. 조용히 내 얘기를 조금 듣더니 후임자가 입사하게 되면 연락을 줄 테니 그래도 오늘은 가란다. 자꾸 가라고 채근하는 무심한 말투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미리 뽑아온 조사표와 연간조사 관련 자료를 전해드리고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김 과장님께 이메일을 보냈다. 진심이 담긴 인사말과 함께 조사표를 엑셀로 작성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보낸다며 파일도 첨부해 보냈다.



그 후로 조금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전 응답자가 퇴사하고 얼마 후 새로 들어온 남자직원은 본인의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배우는데도 정신이 없어 통 시간을 낼 수 없었고, 김 과장님은 새로운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재차 연락을 해왔다.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두어 번 김 과장님께 안부전화를 했다. 그리고 7월의 어느 아침, 김 과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작성된 조사표를 이메일로 보냈으니 받아보시고 이제 새 응답자가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 만나셔도 됩니다.

연간조사를 마감하고, 새 응답자를 만나러 그 업체에 다시 방문한 날 갑자기 비가 내렸다. 차를 주차하고 보니 내 차엔 우산이 없다. 문을 열고 나서는데 누군가 나를 보더니 뛰어와서 우산을 받쳐주었다. 바로 김 과장님이었다. 두 번째 만남이지만 자주 연락을 해서인지 낯설지 않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비 맞으니 현관까지 썩워줄게요.

얼떨떨하고 감동적이다. 처음 만난 날 나를 당황시키던 그 때 그 사람이 맞나 싶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어린 인사를 했다. 새로 만난 응답자는 젊고 잘 생긴 남자분이었다. 연간조사에 잘 응해주신 걸 감사드렸고, 통계조사의 목적과 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해드렸다. 현관까지 나를 배웅하는 모습이 너무 친절했다.

면담 후 업체를 나서는 길, 이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본다. 평소에 기도를 잘 안하는 내가 오랜만에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기도를 들어주어 이 사업체가 금탑산업훈장이라도 받을 것 같다는 말도 안 되지만 재밌는 상상이 들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마도 내가 김 과장님의 예의 없는 말투에 상처를 받아서 업체와의 연락을 기피했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대응했다면 아마 조사는 커녕 김 과장님의 우산을 써보는 환대는 평생 받아보지 못했을 텐데 아마도 상대방의 말에 귀기울여주며 시간을 갖고 기다렸던 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김 과장님과의 일화를 통해 비단 일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남편의 얘기를 경청해주며 배려하며 살아야겠다는 좋은 깨달음도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찾은 응답자 교체이다. 안산 시화공단에 주요 업체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업체를 맡은 이후로 응답자가 자주 바뀌곤 해서 당황하기도 한다.

한 사업체의 경우 9년 동안 통계청 조사를 홀로 담당해주시던 차장님이 퇴직한 이후로 새 응답자를 발굴하기 위해 부단히도 방문을 했었다. 하루는 전 응답자의 후임자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그분과 얘기 중에 단호하게 이 조사는 본인이 하기엔 너무 힘이 들고 통계조사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응답부서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할 수 없이 다음 번엔 사장님이라도 만나야 하나 걱정하며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필코 새 응답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얼마 후 공문을 가지고 다시 그 업체를 찾았다. 일단 후임자 이 과장님을 만나 접견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지나가는 한 직원 분을 잡아 끌었다. 바로 인사팀 김 과장님이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당황스런 상황이 펼쳐졌다. 내가 가져간 공문과 인터넷조사 안내책자를 서로 떠넘기며 말싸움을 벌이는 게 아닌가?

내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통계조사를 해야 된다고 언쟁을 벌였다. 결국 이 상황은 우습지만 해결하려면 내 역할도 필요 하단 생각이 들어 김 과장님, 이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공문을 일단 접수 하셔서 위에서 응답자를 정해주시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 씀드렸다. 두 사람도 말로는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리를 떴다.

결국 얼마 후 인사팀 김 과장님이 이 조사를 맡게 되었지만 그날 나는 이유야 어찌됐건 남자 둘이 나 때문에 싸우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참 이상하지만 그 후로도 내가 맡은 사업체 중에 이상하게 응답자가 자주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응답자가 바뀌어서 새로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면 한 달도 안됐는데 응답자가 퇴사했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기존 응답자가 퇴사해서 새 응답자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가보면 퇴사한 응답자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근무하고 있기도 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 응답자와의 유대가 아주 중요한데 몇 개월 동안 친해진 응답자가 퇴사할 때 참 아쉽고 서운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또 그 사람을 알고 적응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생활 속에 늘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직업군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때만 다섯 번을 전학을 다닌 그런 나에게도 늘 헤어짐은 아쉽고 새로운 환경은 낯설다.

2013년 10월의 어느 날,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두 아이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늦지 않게 사무실에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나는 아직 서툰 게 많은 신입이다. 배울 게 산더미처럼 많은 새내기 현장 조사 직원이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나는 바로 『거북이』다. 조금씩, 조금씩 내 영역을 만들고 그 길을 나만의 속도로 달려간다. 나는 거북이처럼 조금 느리지만 토끼를 이기는 저력을 발휘할 미래가 내게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젠 제법 운전도 잘한다. 통계청에 와서 운전 실력이 참 많이 늘었다며 남편도 매우 신기해한다. 스스로 베스트 드라이버 라고 자화자찬 농담도 가끔 한다. 신호를 지키되 적절한 속도로 매끄럽게 내 길을 나아간다. 업체 담당자들과 재밌는 농담도 하며 유대도 쌓아가고 있다. 처음엔 구만리같이 멀기만 하던 안산가는 길이 이젠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내 집 가는 것처럼 편하다. 비록 느리고 하찮아 보이는 거북이지만 묵묵함과 끈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내 일을 그리고 내 인생을 찬찬히 넓게 바라보면서 나의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거북이는 달린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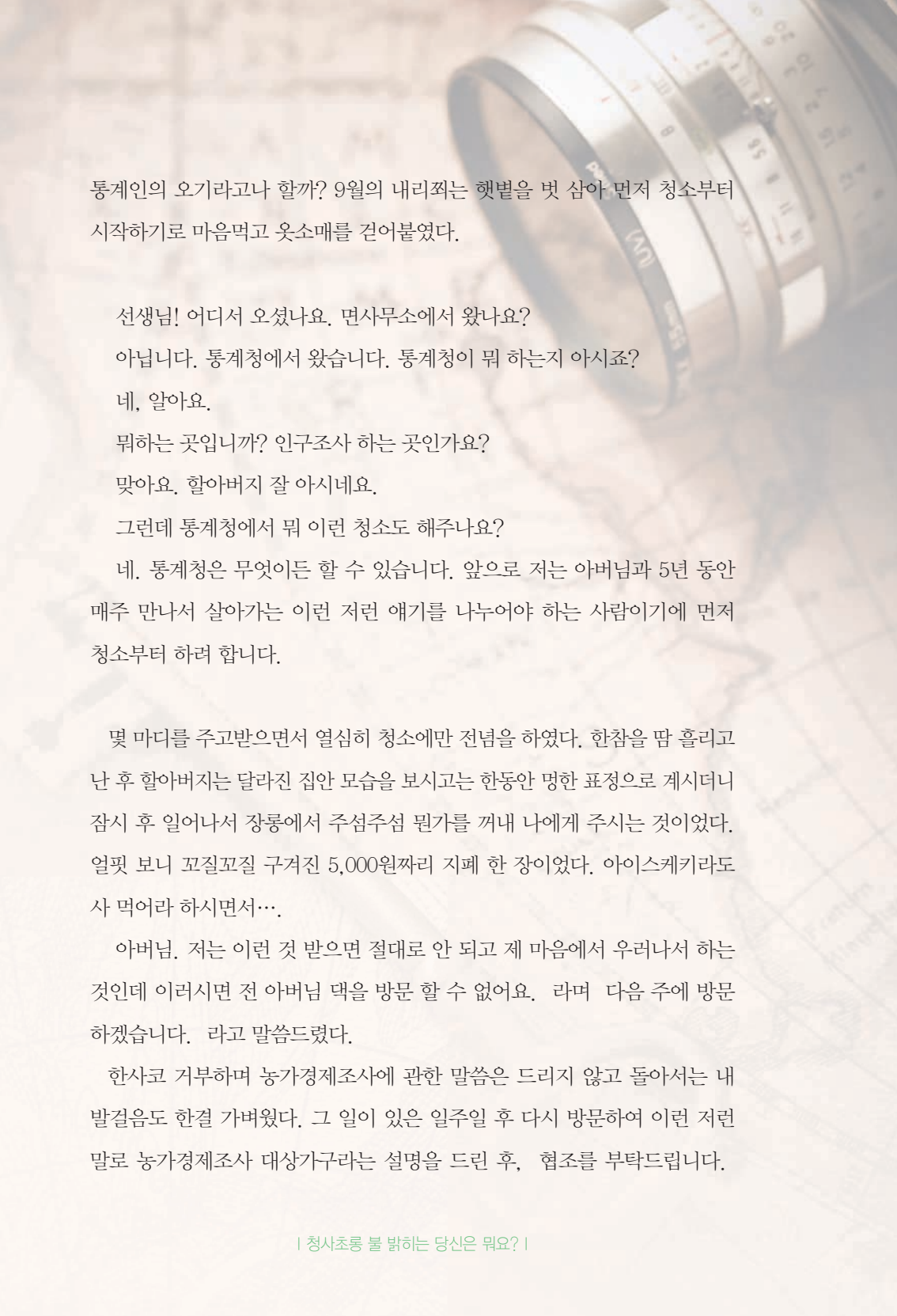
청사초롱 불 밝히는 당신은 뭐요?

동북지방통계청 경산사무소
류 태 현

농가경제조사 표본 개편 작업의 첫 걸음으로 5개 면 9개 조사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우선 동네 및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 집씩 순서대로 무작정 찾아 들어갔다. 어느 집 앞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약한 냄새의 진동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 자신도 모르게 악! , 아니 억! 소리가 절로 나오고 말았다.

언제부터 쌓여있던 것인지 쿼퀴한 냄새와 각종 물건과 옷가지들이 뒤엉켜 말 그대로 온 집안이 쓰레기 동산이었다. 왜냐면 일찍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멀리 객지를 떠돌아 집안을 잘 보살펴드리지도 않아 할아버지 혼자서 농사일을 조금 하면서 거주하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감히 신발을 벗고 들어 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계인의 오기라고나 할까? 9월의 내리찍는 햇볕을 벗 삼아 먼저 청소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나요. 면사무소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통계청이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알아요.

뭐하는 곳입니까? 인구조사 하는 곳인가요?

맞아요. 할아버지 잘 아시네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뭐 이런 청소도 해주나요?

네. 통계청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버님과 5년 동안 매주 만나서 살아가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기에 먼저 청소부터 하려 합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청소에만 전념을 하였다. 한참을 땀 흘리고 난 후 할아버지는 달라진 집안 모습을 보시고는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계시더니 잠시 후 일어나서 장롱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다. 얼핏 보니 꼬질꼬질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아이스케키라도 사 먹어라 하시면서….

아버님. 저는 이런 것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인데 이러시면 전 아버님 댁을 방문 할 수 없어요. 라며 다음 주에 방문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한사코 거부하며 농가경제조사에 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돌아서는 내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다. 그 일이 있는 일주일 후 다시 방문하여 이런 저런 말로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라는 설명을 드린 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래요. 그럼 묻는 대로 답만 하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신다.

80대 고령의 문맹인지라 2일에 한 번씩 방문 드리겠노라 하였더니 나아 좋지요. 하시면서 이야기 상대가 없는 시골이라 말벗도 되고 좋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의 작은 배려로 시작된 조사대상 가구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지금도 온갖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을 했다. 출발이 늦어져 급한 마음으로 달렸다. 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가다보니 밖에서 마치 솜털같이 보이는 하얀 먼지들에 눈길이 갔다. 그 순간, 내가 처음으로 통계청에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다.

1987년 3월 2일. 업무를 인계해주는 선배님(지금은 고인 되신)과 함께 대구 시내 골목 골목길을 찾아다니는 그때의 기억이... 난 속으로 깜짝 놀랐다.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구나! 그때의 혈기 왕성하던 시절을 되뇌면서 잠시 가을의 초입 길가에 늘어선 코스모스를 바라보니 그 가냘픈 모습으로 온갖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아! 그때서야 알았다.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통계조사원의 생활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사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그 그늘진 곳에서 작지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머금고 다시 출발!



이번에 찾아간 대상가구는 70대 후반의 노부부가 감 농사 및 논벼를 주로 경작하는 집이었다.

아버님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방 안에 들어갔다. 허리가 구부러진 노부부의 모습을 보니 오래 전 돌아가신 나의 선친이 생각나서 아버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갑자기 저의 선친이 생각납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니 왜 이러세요. 괜찮아요. 라면서 몸을 뒤트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시작한 것 10여 분을 주물러 드리니 굉장히 시원해 하셨다. 그런 후 내가 찾아온 이유와 어떻게 작성하셔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 드리니 그 효과일지는 모르지만 노부부는 내가 글은 잘 못쓰지만 열심히 한 번 써보겠다고 하셨다.

그 후로 난 매주 그 가구를 방문할 때면 나도 모르게 노부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있다. 지금은 자녀들보다도 더 좋다면서 얼마나 반기시는지 나 스스로 놀랄 때가 있다. 온갖 채소며 먹다 남은 찬밥을 내어 주시기도 한다. 물론 70대 이후의 분에게만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끈끈한 정으로 맺어준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 나의 조사대상 가구 어르신들을 찾아 뵈 때마다 작지만 나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성심성의껏 청소라든가 안마 등 내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뿌듯한 지 모르겠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자신은 어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공된 삶이 아닐까 싶다. 우리 통계에 종사하는 모든 동료들이 아마도 이런 성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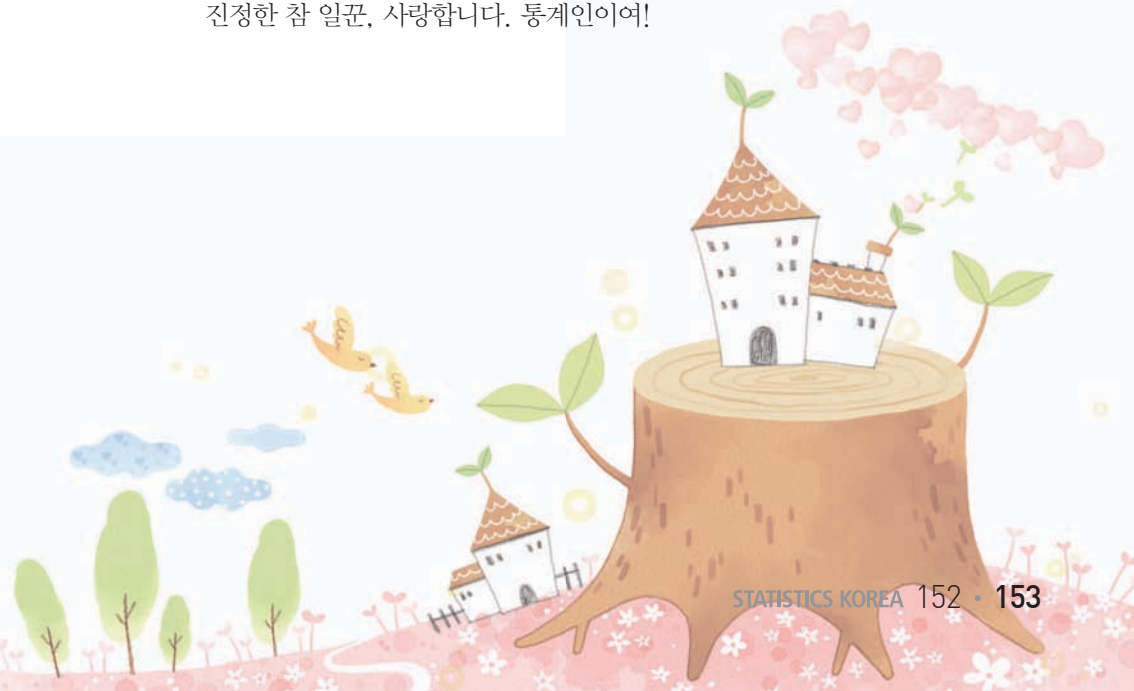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멀고도 험한 길, 어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불응에 온갖 설움을 스스로 다스리는 통계인이야말로 진정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앞에는 주어진 일들이 산재해 있다. 응답 거부 등 여러 난관들이 있겠지만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면 아마도 더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통계생산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다.

어느 그늘진 곳에서 오늘의 아름다운 선행과 묵묵히 주어진 현장 조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동료!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닌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도 어제처럼 통계라는 큰 수레를 이끌고 가다보면 내일은 수레가 아닌 세단자동차로 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로 통하는 한줄기 빛이 되어 국민과 함께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리라고 다짐해 본다.

오늘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으며 현장으로 달려가는 진정찬 참 일꾼, 사랑합니다. 통계인이여!





通計



통할 통,
통계(通計)를 꿈꾸며

동북지방통계청 속초사무소
최 승 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이요. 하면 몰라도 인구조사 하는 곳이요. 라고 하면 아~ 거기! 라고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통계 조사가 바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아닌가 한다. 이렇듯 유명세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나와 통계청과의 인연을 맺게해 준 연결고리이다.

별 거 아니라면서 쉬엄쉬엄 해보자는 이웃 동생을 따라 동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을 계기로, 농림어업조사와 두 서너 가지의 연간조사를 더 경험한 후 2007년 1월 입사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응답가구를 방문하기도 전에 나를 겁에 질리게 했다.

그동안 5년간의 현장조사 경험도 있고, 처음이 아닌 두 번째 표본개편이라 수월할거라 예상했건만 예상과는 달리 시작부터 이곳저곳에서 불응이라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통계조사냐 바빠서 못 해준다.

부모자식도 못 믿는 세상에 당신을 뭘 믿고 해줘?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에 일자무식이라 못 해준다.

사람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정부에서 해준 게 뭐 있다고! 등등 이런저런 구실로 불응한 것으로 모자라는지 옆 사람까지 조사 해주지 말라고 부추겨 어렵게 만드는 사람, 먼 발치에서 보고 반가워 달려가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야속한 사람, 답례품을 받고 약속만 잡아놓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사람들. 다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며 다신 찾아오지도 말라고 냉정하게 내뱉는 말 한 마디. 이런 냉랭한 반응과 매몰찬 말 한 마디는 더운 날 나를 더욱 더 기운 빠지고 지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운 날 고생한다며 얼음물을 한 컵 가득 주시고 흔쾌히 조사에 응해주신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 더운데 땀도 식힐 겸 샤워라도 하고 가라며 걱정해주시던 분, 점심 못 먹었으면 국수라도 먹고 가라며 챙겨주시던 감사한 분들이 계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장에 나가기 전 조사응답 선정가구의 사정과 주변사항 등 갖가지 정보를 담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곳저곳에 물어 많은 준비도



했다. 그리고 처음 30~40초에 설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였던가?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한 옷차림을 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어 마음을 열어보겠다는 욕심으로 마지막으로 차 안에서 밝은 미소도 거울 앞에서 한 번 연습해 보고, 답례품 챙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안고 현장으로 나갔다.

설득에 성공하는 날에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반면 불응이라는 패배를 겪었고 돌아오는 날엔 나의 무능력과 내 능력의 한계를 긴 한숨과 함께 토해내야만 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3개월의 준비조사기간을 거쳐 앞으로 5년을 함께 할 아홉 농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언니, 형부, 아버님, 어머님
호칭도 가지가지다.



숫기 없고 낯가림이 유난히 심했던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 분들과의 통할 통(通)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나니 낯가림, 쑥스러움 같은 건 내게서 멀어져 버렸다. 늘 밝게 생글 생글대는 나를 보면 덩달아 행복해진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행복전도사가 되어보려 노력하고 있다.

혹시라도 잦은 방문과 질문으로 귀찮아서 그만 두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우리나라 농업통계를 위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 방문 전에 찾아뵙겠다고 전화 드리는 일은 필수! 혹시 필요한 물건은 없으신지 여쭙어봐서 사다드리기도 하고, 병원이나 시장보기에 차량지원은 물론이고, 일손도 도와드리고, 가끔은 시간을 내어 세상 돌아가는 애깃거리도 주워 담아 조잘조잘 말동무도 되어 드린다.

밝은 미소로, 나의 신발이 아닌 상대방(응답자)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상대방(응답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상가구와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질 높은 통계조사 자료를 얻어내는 기술을 학습하는 현장으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간다.

언젠가는 머지않은 날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통계조사 표본대상응답가구로 선정되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어 보면서…….



당황하셨어요?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사무소
신 정 미

영월사무소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도 많이 교체되고, 신규자는 필히 거쳐 가는 곳이기도 하다.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거의 없는 이곳에는 업무분장 할 때 특히 가장 예민해지는 것 같다.

2012년 2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계업무를 담당한 지 딱 6개월 만에 또 농어업생산팀으로 오게 됐다. 팀원은 모두 7명. 그 중 여직원원은 1명. 바로 나다. 한꺼번에 3명이 교체되었고 교체된 직원은 모두 신규자!! 1명은 이제 갓 들어온 새내기, 2명은 업무 신규자, 게다가 여직원원인 나까지...

내가 여자라서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이 생겨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떡하지? 처음부터 겁도 나고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무슨 자신감이 생겨 그랬는지, 팀장님! 업무는 똑같이 주세요! 큰 소리를 쳤다. 다른 팀원들이 나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 것이 싫었다. 팀장님 께선 상황이 이러니 빼주지 못해 미안하네. 그럼 우선 해보고 하다 안 되면 곧바로 알려주고, 어렵거나 위험한데는 혼자 가지 말고 이야기하면 같이 가 줄게.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했다. 하지만 항상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바쁘신 팀장님을 잘 알기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직원 분들도 상황은 다 똑같으니 그냥 우선 부딪쳐 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난 매일 출근 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 주문? 같은 게 생겼다.

내가 힘든 건 남도 힘들다! 모든 일은 성별을 구별하지 말자! 남의 일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자! 어려울 땐 즉시 도움을 요청하자! 나 혼자 걱정하고 있는 동안 해결책이 한 가지씩 사라지니까! 라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여자의 몸으로 농업현장을 누비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짧지만 나에게 있어 가장 길게 느껴졌던 어느 시간의 일부분을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까 한다.



∴ 나 지금 떨고 있니? _____

평창군 방림지역 인수인계 받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좁다란 농로를 따라 꼬불꼬불 비포장 길을 한참 지나서 산 밑까지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겨우 농업면적 조사구에 도착하여 작물재배면적조사를 시작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직은 싸한 봄바람이 코끝을 자극했다. 작은 언덕길을 올랐다. 운동 부족인지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구부정한 자세로 숨을 헐떡이며 걷기 시작했다. 누가 내 모습을 봤으면 아마도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정복하는 줄 알았을 거다. 새 소리, 바람 소리, 흙냄새, 소나무 향기까지 아~~ 좋다! 를 연신 내뱉으며 언덕길을 올랐다.

언덕을 반 쯤 지나 모퉁이를 돌았을까.

구부정한 몸을 펴는 순간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우~~우웅, 우~~우웅 진동 소리와 함께 내 눈 앞엔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날 뻔히 쳐다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순간 엄마야~~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참이나 멍한 자세로 있던 나는 날 진정시켜줄 누군가를 찾아보았지만 산중에 누가 있을 리 없었다.

머리카락은 쭈뼛, 온몸의 솜털이 뽀족 세워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부르르 떨렸다. 바람에 머리만 둥둥 떠다니며 갑자기 나타난 마네킹 머리에 내 심장은 쿵닥도 아닌 쿵쾅! 쿵쾅! 두 방망이질로 요동을 쳐댔다. 조용하고 인적도 없는 외딴 곳에서 이러고 있으니 발이 더 이상 떨어지지않았다. 그래도 조사는 해야 하기에 심호흡 한 번하고 정상까지 올랐다. 비탈진 발에도 군데군데 나를 찌려보던 그 머리들이 여기저기 바람에 흔들대고 있었다. 경고 문구를 보니 사람들이 사유지에 들어와 이것저것 채취를 마구 해가서 아마도 그렇게 해둔 게 아닌가 싶다. 조사를 끝나치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날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현장 조사 중 작물재배면적조사를 위해 이렇게 외지고 인적도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조사구를 갈 때면 겁도 나고 특히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다. 뱀을 보는 건 기본이고 한 번 보면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뒤도 안돌아보고 뛰쳐나가는 일은 매회 조사 때마다 있는 일이다.



❖ 우리들 체면 좀 세워줘

생산팀 업무는 하면 할수록 내가 농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많은 업무 중 작년에 처음 배워 본 논벼생산량조사가 생각이 난다.

벼가 쓰러질까?

미끄러운 논바닥에 넘어질까?

주수는 제대로 세고 있는 건가?

머릿속은 온통 걱정 보파리로 가득 차서 형클어져 있었다. 보통 여직원은 눈에 들어가지 않고 조사표를 주로 작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여자라는 특혜를 받고 싶지가 않았고 조사표 작성도 겁이 나서 선배들과 함께 행동하는 업무를 택했다. 어느 누가 옷 버려가면서 따가운



벼 이삭에 베어가며 눈에 들어가 벼를 베고 싶을까?
생산팀 업무를 하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팀원들에게 맞추어 따라 가는 것이 당연
하다는 생각에 서툴지만 한 번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팀장님과 팀원들은 정미씨는 조사표 작성하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
하셨다.

아니에요, 저도 한 번 해 볼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허! 여성분을 눈에 들어가게 하면 우리들 체면이 서겠나~.

허허 웃으시며 그럼 한 번 해보라고 믿고 맡겨 주셨다.

벼도 베어보고, 벼단도 묶어보고, 벼단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들어보니
만만치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팀장님께서 정미씨~ 벼단도 들고
나오려고? 그건 좀 양보하지! 우리 체면 좀 세워줘.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수고했고, 이걸 막내가 들고 나오도록!

사실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다음 조사구로 이동을 했다.
그런데 하늘이 계속 울상을 하고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왕 시작한 일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굼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조사를
시작했다. 서투른 내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입고 있던 점퍼를 우산 삼아



뒤집어 쓴 채 조사표를 사수했다.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여 일은 일사천리로 착착 마무리가 되어 갔다.

벼는 팀장님의 지도하에 팀원들의 배려로 한 개, 두 개 끝을 내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벼를 베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다. 우리 팀은 모두 흙투성이에 녹초가 되어 완전 농부의 아들과 딸 그 자체였다.

하나같이 출출한 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큰 냄비에 온 직원들이 같이 먹을 라면도 끓이고, 간식으로 먹으려고 준비해 갔으나 그것을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먹지 못했던 삶은 달걀을 라면과 함께 먹었다. 많은 라면을 끓인 탓일까 금방 붙어버렸다. 하지만 땀 흘린 뒤에 먹는 라면의 맛은 꿀맛이었다.





:: 다시 그 곳에 심어 주세요!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져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들녘에는 가을걷이를 하느라 바빠 보였다. 그 황당한 일이 생기던 그 날도 다른 때와 같이 팀원들과 함께 총각무 생산량조사를 하려고 1시간 정도를 달려 봉평(메밀꽃 필 무렵)으로 향했다. 출발하면서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빗방울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비는 오다 말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무실 복귀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총각무생산조사 표본조사구는 집 바로 옆에 있었다. 집이 비어있어 담당구역 주무관님이 전화를 걸었다. 어렵게 그 댁 아드님과 연결이 되었다. 잠시 후 두 형제가 나란히 걸어왔다. 두 형제 분에게 생산조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서는 도착한 지 30여 분을 훌쩍 넘기고서야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형제가 모두 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시작부터 왠지 걱정스러웠다. 형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뒤를 졸졸 따라 다녔다. 그리고는 점점 굽어지는 빗방울을 우산도 없이 그냥 맞으며 감시라도 하는 듯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난 조사표 작성을 하고 팀원 두 분은 총각무를 뽑아서 무게를 달았다. 조사가 끝나고 이젠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이거 팔아야 하는데... 다시 그 곳에 심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갑자기 긴 한숨이 나왔다.

그 와중에 사진을 찍는 나도 참 한심해 보였지만, 이 황당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고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서 몇 컷을 찍었다.
무슨 007작전도 아니고 또 사진 찍는다고 뭐라
할까봐 얼른 찍고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두 형제의 감시하에 우린 조사를 끝마쳤다.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져 점퍼를 뚫고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우린 이곳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번개같이 처리하고 차에 올랐다. 그런데 저 멀리서 너무도 크고 또렷하게 아줌마~ 이것 좀 팔아줘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갑자기 당황해서 네? 제가 사 드릴 수도 없고 죄송해요. 라고 한 마디 하고서는 탄창을 부렸다. 빨리 이 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아줌마! 사실 난 아줌마가 맞다. 결혼도 했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니까 아줌마가 맞다. 그런데 웬지! 그 말이 가슴이 뻥 뚫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처량하게 비를 맞아서 더 그런 건지? 그 말이 무척 섭섭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내내 갑자기 밀려오는 피곤함을 감출 수가 없어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 앞으로는 제발 이같이 어려운 미션(?)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본다.





:: 끝마치며...

언제나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나의 고객님들! 언제나 고맙다. 힘들어도 그 따스한 미소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 하나 하나는 바닥난 나의 에너지를 채워 주신다.

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의 아버지!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신다. 그리고 처음엔 무뚝뚝하게 대해 주시던 어머니!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일도 도와 드렸더니 마음을 조금씩 열어, 이제는 먼저 반갑게 맞아 주신다.

농가판매조사의 농협 담당직원. 알고 봤더니 같은 학교 후배였다. 매번 자료를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

내수면(양식)조사의 송어장 사장님들 항상 좋은 정보 알려주시는 사장님.
커피며 음료수며 갈 때 마다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는 사장님.
답다고, 길이 안 좋다면,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시는
사장님들 너무 감사하다.



여러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 지역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요즘 흘러가는 추세나 정보, 동향 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때마다 하나하나 잘 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어 실전에 유용하게 활용한다. 그러면서 나름 뿌듯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가끔 이 조사는 왜 하는 거냐, 왜 우리 집에만 오냐 귀찮은 듯 따지듯 묻고 때론 심한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시기도 하여 곤란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대처해 나가는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기도 했다.

여자가 하기에 농어업생산팀 업무는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일이 분명하다. 남자 직원들 틈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가끔씩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가끔 내 옆 짝꿍이

형, 이거 뭐였지? 아~~ 누나 미안! 말이 헛나왔어!

난 그럴 때마다 또 한바탕 웃음으로 그 답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난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무지 무지 많다.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대처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즐겁다. 그리고 항상 내 옆엔 든든한 지원군으로 힘이 되어 주는 팀원들이 있어 나는 오늘도 힘이 난다!!!



| 당황하셨어요? |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일곱

설득 실패! 그 씁쓸한 기억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박 상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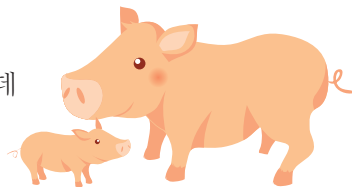
⋯ 농가경제조사 2년차, 멀고도 험난한 신표본 교체작업은 시작되었다.

농가경제조사와 축산물 생산비조사를 시작한 지 어언 2년 여~.

결코 쉽지 않은 생산비 연간 내용검토 마무리를 겨우 끝내고 한숨을 돌릴 즈음 10월부터 시작된 신규 표본농가와와의 사투가 시작됐다. 산재표본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농가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드라이브 코스였다. 특히 돼지농가의 경우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분 악취로 인하여 인가와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이라 늦가을 단풍이 더욱 더 눈부셨다.

정치를 뒤로 하고 표본 돼지농가를 찾아가는데 구불구불한 침첩산중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깊은 산중

이었다. 방금 전까지 감탄사를 연발한 감정은 온데 간데 없고 무서움이 앞섰다. 사전에 준비해 간 지도를 보고 겨우 도착한 농가는 두서너 집이 떨어져 살고 있는 천오백 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의 축사 농가였다.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란 것도 잠시 코끝을 진동하는 오물 냄새에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어렵게 찾아간 농가였지만 나를 반기는 건 대문 앞에서 노려보는 CCTV와 엄청나게 큰 불독 개 한 마리였다. 분명 사전 전화를 하고 갔건만 한 시간 여 동안 기다려도 응답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왕 온 거 실컷 농장이라도 둘러보려고 했는데, 사나운 개의 목청만 한껏 돋우고 되돌아 와야만 했다.

표본교체 시기 무렵, 돼지가격 폭락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때인지라 접근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단히 마음을 다졌지만, 며칠간 묵묵부답으로 전화기까지 꺼놓은 상태이다 보니 쉽게 조사를 허락할 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전화기를 수차례 눌러 어렵게 연결을 해서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며 수화기에 대고 간곡한 사정 끝에 응답자와 첫 대면이 성사되었다.

그렇게 두려움 반, 약간의 기대 반으로 막상 얼굴을 대하니 매서운 눈초리와 뼈딱한 말투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듯하였다. 협조 공문을 건네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한참 열과 성의를 다해 설명하는데, 바쁘셨는지? 아님 협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다짜고짜 공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니 다른 데 가보시오.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부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협조할 생각이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설득해야 된다는 일념에 무작정 사정을 해보았지만, 고압적인 자세로 안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렵게 찾아온 응답자와의 첫 번째 만남은 이렇게 아무 성과없이 끝나고야 말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사람 한 사람 거부하다 보면 표본이 남아나지 않게 되고 대규모 돼지농가를 대신할 대체표본 찾기도 수월치 않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설득과정에서 이런 일이 한 두 번도 아니지만, 그날따라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 불응에 대한 조바심과 긴장으로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앞으로 신규표본가구를 설득하기까지 엄청난 끈기와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상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불응가구 설득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그에 대한 노하우만 있을 뿐이다. _____

그 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축산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제대로 된 생산비 조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장님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먼 거리를 마다하고 직접 찾아가기를 두어 번, 매번 한 손에는 커피와 음료수 등을 챙겨 갔더니, 마음 한구석에는 짠~한 마음이 들었는지 드디어 굳게 닫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내가 조사하는 사람 얼굴 봐서 해주는데, 대체 통계청은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요?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빨리 물어보세요.

결코 쉽지 않은 설득이었지만, 그렇게 완고했던 응답자와의 생산비조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안부 문자로 거리감을 좁히며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축산일지 회수를 앞두고 갑자기 눈이 쌓이는 바람에 미끄러운 산길이 걱정스러웠지만, 응답자와 사전예고 문자로 약속도 돼있었고, 어렵사리 대면한 농가인지라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전화를 드렸다. 그때는 조사만 잘 해준다면 눈길도 마다하지 않는 넘치는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예상과는 달리 아이고 여기 산골은 눈이 녹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길도 미끄러운데 겁도 없이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 큰일 치를 일 있어요? 내가 오늘 포크레인으로 눈길 치울 테니까 조사는 너무 걱정 말고 눈 다 녹으면 천천히 오세요.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나의 안부를 걱정하는 따뜻한 말 한 마디는 그동안 힘들었던 내 마음을 한순간에 녹였다. 곳은 날씨를 뒤로하고 그 다음 방문은 활짝 갠 날씨만큼이나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대도 안 했지만, 축산일지가 기입돼 있는 것을 보고 반갑기 그지 없었다.



엄청난 마릿수의 결코 쉽지 않은 축사 노동시간과 단계별 각기 다른 사료 급여량 수시로 늘어나는 분만, 폐사 마릿수까지 일지에 써놓은 예시까지 눈여겨봤는지 내가 설명 못한 부분까지 빠곡히 적어놓았다.

사장님. 이렇게 잘 적어주시는데 그동안 괜한 걱정했네요. 제가 이제까지 봐온 축산일지 중 가장 잘 적어 주셨어요.^^ 어머! 글씨도 명필이네요. 이렇게 쓰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농장도 너무 깨끗하고, 산골 공기도 신선하고, 노랑게 주렁주렁 열린 감들도 정말 맛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내 혀 끝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자동으로 넘쳐 나왔다. 덕분에 오랜만에 응답자의 환한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이제는 설득이 돼서 걱정을 덜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응답자도 차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신이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따라다녔다며 나름대로 농업정책의 대한 소견과 현재 축산 유통과정의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서슴없이 내뱉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응답자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었다.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라 일부는 옳은 말도 있거니와 뭐라 딱히 대답할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럼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행여 응답자와 어렵게 얻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맞장구를 치며 장단을 맞춰드렸다.

조사하자면 간도 쓸개도 빼놓고 가야 한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닐 것이다. 더욱이 5년 동안 표본을 유지해야 하는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현장조사에서 응답자와의 유대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은 더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하루는 드링크제를 사가지고 갔는데 약속이 있다며 다음에 오라고 해서 음료수만 놓고 갑니다 간단하나마 문자를 남겼는데 전화를 걸어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자꾸 사오세요. 그런 돈 있으면 출장 다니는데 기름이나 채워요. 하며 극구 가져가라며 미안한 마음을 보이셨다.

두 세 달이 지나고 이제는 안심이라니 하고 방문한 날. 때마침 조그만 컨테이너 사무실에 배우자로 보이는 여성분이 와 계셨다. 그동안 가구원 현황을 여쭙 보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생활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던 차였는지라 나도 모르게 반가워서 어머 사모님이세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 반갑습니다. 통계청 직원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농업총조사를 참고로 동남아 국적인 배우자의 이름과 나이는 알고 있었지만 경영주와 적지 않은 나이 차이인데다 자녀란이 비어 있어서 조심 스레 여쭙볼 참이었다. 때마침 가져간 원부와 조사표를 밑에 내려놓고 있는데 또 다른 축산 장부에 배우자가 지출 사항을 적고 있었다. 잘 됐다 싶어 얼른 아는 체를 하며 장부정리를 사모님이 도와주시나 봐요. 사장님이 항상 바쁘 시니까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앞으로 제가 사모님께 여쭙 볼게요.

내 나름대로 편리를 봐 드리려 말을 꺼냈는데 응답자도 흔쾌히 알아서 하 라며 승낙했다.



❖ 다 된 밥에 재 뿌리다! 응답자 완전히 통계조사에 등 돌리다.

근데 자제분은 몇 분이세요?

남자아이 둘이요.



그럼 자제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고, 생일은 4월 00입니다.

우리말이 서투를 줄 알았던 우려와는 달리 배우자는 또박또박 친절히 대답을 해주셨다. 그렇게 가구원 조사가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경영주가 돌변하여 고함을 치셨다.

아니, 통계청이 조사한다고 남의 사생활까지 들먹여! 그냥 확~

때마침 적고 있는 원부와 공들인 조사표를 다짜고짜 뺏어다가 회를 억누르지 못해 그 자리에서 북북 찢으며, 금방이라도 사람을 칠 기세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해댔다. 붉으락푸르락한 얼굴과 귀청이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에 배우자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나 또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놀란 가슴에 어안이 병병했다.

돼지가격 폭락으로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외상값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꽤나 심기가 불편했던지라 그동안 참았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생활침해라는 점과 맞물려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이다. 연이어 아저씨의 고함소리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어디에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동물을 찌끄리러 갈 테니까 앞장 서! 설마 했는데 다짜고짜 밖으로 뛰어가더니 오물 운반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 말로만 듣던 등골이 오싹한 살기를 느꼈다. 놀라서 감정을 추스를 틈도 없이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급한 대로 허둥지둥 신발을 반쯤 끌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행여 아저씨가 따라오면 어찌나 조바심에 속력을 높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어찌나 멀던지...

뒤라 표현 못할 그 막막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공들여가며 이어왔던 응답자와의 신뢰가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통계청 조사원은 외풍에 견딜 아무런 힘이 없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나가떨어질 뿐이다.

혹시 무슨 말 못할 가족 내의 비밀이 있어 꺼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불미스러운 과격 행동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허탈한 마음에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있으려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조사원으로서 설득 실패 이전에 나 또한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마음의 상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동안 설득과정에서 불친절이나 고함치거나 문을 안 열어 주거나 하는 온갖 냉대는 나의 일상이 되어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무뎠지만, 돼지농장의 이해되지 않는 행패는 이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했다.

불응에 대한 실패의 기억은 씁쓸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욱더 강해져 있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현장조사 경험에서 쌓았던 설득 노하우 몇 가지를 부연하여 요약해 보았다.

첫째, 우선 지형지물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조사도 조사이지만, 겨울철 눈길이나 장마철 빗길에는 사전 준비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눈길의 경우 큰 대로변에는 다 녹았으니 안심하고 산길이나 동네 좁은 안길도 같으려니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사전에 동네



안길이가 녹았는지 농가에 꼭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전에 조사했던 산골마을에서 대로변에는 별 이상이 없어 영농일지를 회수하러 갔는데 막 들어선 산길은 완전히 판판이었다. 미끌미끌한 살얼음판으로 변해 대변에 바퀴가 미끄러져 손에 땀을 쥐며 핸들을 잡아야 했다. 후진도 불가능해 오도 가도 못하고 조사구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산길의 응달은 십사리 얼음이 녹지 않기에 바퀴에 충분한 안전장치와 하고 진입해야 함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현장조사에서 운전은 필수지만 이에 대한 기상여건 변화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둘째, 농가에 맞는 정보를 수집할 것

귀농을 한 농가나 평소 지병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새로운 작물이나 약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귀농한 지 3년째로 한창 농사를 익히고 있는 우리 조사농가의 경우, 맑은 공기를 찾아 조용히 살고 싶어 해서 동네 주민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으며, 낯선 외부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던 차에 통계청에서 조사한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협조될 리 없었다.

몇 번의 대화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시고 아버님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머리숱이 적어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알고 나서 그 즉시 다른 농가에 부탁을 해서 황매화와 진한 꽃자주색의 철쭉 한 그루, 희귀한 국화꽃 등을 얻어다 드렸더니 무척이나 좋아하시며 나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또한 아버님은 어성초와 곱보배추, 오가피, 여주씨앗 등을 얻어다 드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선물에 대단히 만족해하셨다.

나의 수고는 단지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른 농가에서 얻어다 드린 것뿐이었는데, 그분들께는 음료수나 수박 한 덩이 보다 더 값지고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 후 조사는 일사천리였다. 아버님 어머니의 신뢰를 완전히 쌓고 그동안 함구로 일관하셨던 논과 밭도 원부까지 보여주셨으며, 사생활 침해라며 꺼려하셨던, 집 지을 때 얻었던 부채규모와 매달 차곡차곡 받으시는 연금까지 숨김없이 알려주셨다.

지금은 점심은 꼭 자기 집에서 먹으라는 신신당부를 하시며, 동네 다른 가구에 대한 농사정보도 귀띔해 주시곤 하는 어느새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셋째, 때로는 농가의 상담사 역할을 자처하라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태반인 농촌에서 조손가구인 농가가 있었다. 몇 만평의 관상수를 재배하는 부농이었는데,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 살던 손주가 갑자기 내려왔다. 이유인즉, 사춘기인 손주가 아빠와의 불화로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시골학교에서 같은 또래 사이에서 왕따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니에게 통계조사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방문하면 항상 깊은 한숨을 쉬시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한테 하소연하기 바빴ся다. 나 또한 조사할 게 산더미 같았지만, 우선 접어두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세대 차이가 나는 탓에 요즈음 청소년들의 왕따를 이해도 못하셨고, 무조건 엄하게 호통을 치시며 손주 탓으로 돌렸다. 나는 요즈음 왕따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한참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의 불안한



정서를 이해해 주시라는 조심스러운 조언과 함께 학교폭력 대처 방법까지 인터넷에서 찾아드렸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꿈꿨지만 했던 어르신들은 그제야 심각성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 후 내가 방문할 때면 눈 빠지게 기다리시며 이것저것 상의하시고 한시를 놓으셨다.

이를 계기로 꼬박꼬박 영농일지 기입은 두말할 것도 없고, 바쁜 와중에도 손수 운전하신 차에 나를 태우고 논밭을 데려가 주시며 꼼꼼하게 작물까지 설명해 주셨다. 밭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를 한 가득 실어주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서 말이다.

넷째, 농가와 의 직거래로 상부상조하라

동기작물인 양파를 재배하는 조사농가의 경우 수확기에 한창 못자리와 보리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일손이 모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평상시에 농촌 정책에 불만이 많아 조사 자체를 믿지 못하시고 적극적인 협조가 아쉬운 가구였는지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던 차에 사무실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기에 적극적으로 그 농가를 추천했다. 한나절 동안 열심히 양파를 수확하고 직거래로 적지 않은 양을 사주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아버님도 통계청이 아니었으면 이 많은 양파를 수확 못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를 계기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양파 · 논 · 벼 군지회장으로 모르시는 게 없었다. 아버님의 도움으로 양파에 대한 지식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언제나 모르는 게 있을 때에는 스스로없이 여쭙보게 되었다.



물론 나는 현장조사를 하는 직원이다. 하지만 조사를 하자면 그 농가의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게 농가경제조사의 또 다른 면이다. 그 어떤 조사보다 많은 항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유대강화를 필요로 한다. 가령 토지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토지면적에 자가인지 임차인지, 소유현황에 임차료와 토지위치, 거래가격 등 열 두 가지 넘게 물어봐야 할 항목이 많다. 이런 연유로 조사가 돼도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언젠가부터 내 차의 트렁크에는 고추나 고구마 등 항상 뭔가가 실려 있다. 고추 시세가 떨어져 판로가 막혀 걱정이라는 농가의 하소연에 김장 고추를 구입하고 고구마를 샀다고 하면 고구마 한 박스를 사드리다 보니 그렇다.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잊지 않으면서 끈끈한 유대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 마음의 표현이다. 땀땀한 글씨로 써놓은 영농일지를 볼 때면 이런 나의 노력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덜 들도록 만든다. 아울러 그동안 설득 과정에서 받은 온갖 냉대나 조사 거부에서 좋은 관계로 진전되어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그분들까지도 아! 통계청, 통계청 하며 웃으면서 받아 주도록 도와준다.





장려상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여덟

잠시만요~

농가부채 확인하고 가실게요!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박 봉 자

업무를 마치고 주차장을 막 나가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잠깐 순간 내 머릿 속에 그때 일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한시계약직을 맡고 한 달쯤 11농가 경제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위기의 상황을 맡게 된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에는 부침개를 부치면서도, 송편을 빚으면서도 대체농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혼자 속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지내온 터였기에 그러던 중 울리던 전화벨 소리는 내 맘을 쿵,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말하자면 2012년부터 이후 5년간 계속해야 할 농가 경제조사에서였습니다. 매달 농가의 작업 상황과 가계지출을 파악하여 농가와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5년 동안의 농가경제의 표본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농가에서 꺼려하는 부채와 자산과 같은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물어봐야 하는데 성질이 급한 나는 종전 조사원이 조사한 내용에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부채 부분과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할 날짜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엑셀 작업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나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기회가 되면 내가 뽑아 놓은 자료랑 맞는지 여쭙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출력한 뒤 가방에 넣어 조사지인 서귀포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세 번째 가구 방문을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가구는 강원도에 계신 친정아버지, 엄마랑 연세도 같으신 농가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두 분이 모두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드린 후 일주일 노동투입 내역을 확인하고, 지출 부분을 이야기하니 먼저 아버님이 이번 주에 대출을 갚았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 뒤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뽑은 부채 상황표를 꺼내서 자신있는 목소리로 아버님! 농협 거요? 아님 감협 거요? 하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님께서 이건 뭐고? 하시며 종이를 보시며 이거 누구 맘대로 내 부채를 조사했노? 하셨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목소리 톤으로 집이 울리도록 소리치시는데 그때 상황을 지금 생각하면 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난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종전 조사원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일 년 동안 아버님께서 써 주셨던 영농 일지를 보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절대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거구요. 하고 말씀을 드려도 한 번 기분 상한 이상 내 말이 들리시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내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업무가 서툴러서 그렇다고 해도 들으시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무서워하는 말 이제부터 안 쓸 테니까 다른 데 알아봐. 내일 당장 통계청으로 전화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는 맴맴 돌았지만 내 입에서는 죄송합니다. 다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왜 그러냐! 이 양반이 한 번 화나면 소리치고 앞 뒤 안 가린다. 가만 있어봐라, 커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해라. 하시며 따뜻한 커피 두 잔을 손수 끓여 오셔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 번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비록 농가 조사를 위해 만난 인연이지만 저에게는 웬지 강원도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고 해도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일로서만 이 인연을 생각했다면 분명 몇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며 말씀드렸을 테고, 그러다 지치면 맘을 잡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면 제가 맘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버님도 이렇게 해서 저를 안 보게 되시면 아버님 성품에 분명히 맘이 무거우실 것 같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신 어머니가 내 손을 이끌며 뒤 뒷밭에 세오리(부추) 좀 가져가라시며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앉아서서 세오리를 칼로 자르시면서 아버지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그러니 이해해라. 내가 오십 년을 살아도 아직 그 비위를 못 맞추고 산다.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비닐 한 가득 세오리를 손에 들려주시며 나를 배웅해 주시고 대문을 나서는 저를 향해 여하튼 다른 데 알아봐요 하시는데 아버님의 목소리가 내 뒤통수에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서귀포에서 사무실로 넘어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나 자신의 무능함이 싫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 팀에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평소의 거리가 두 배로 느껴지는 시간이 더 늦어지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난 애써 웃으며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하늘같은 선배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과 부채 상황을 적나라하게 뽐은 인쇄용지를 보여주며 나의 실수를 질책해달라며 그리고 해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징징거렸습니다.

나이 44살에 창피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선배들 앞에서는 얼굴에 첩판을 깔고 어머니가 주신 세오리를 보여주며 희망의 실오라기로 위안 삼으며 해결 방법을 구걸하였습니다.

난 무서운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돌아오는 선배들의 말씀은 봉자야! 너무 빨랐다. 우리도 부채와 자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선뜻 꺼내지 못하고 기회를 봐서 조금씩 조사를 하는 분위기인데



너는 그 앞에서 들이대고 했으니, 아마 부채부분도 있고 해서 네 앞에서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가구 방문을 가게 되어도 안부 인사만 하고 나오든지 해라.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너무 맘 쓰지 마라. 하시며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대체농가를 다시 조사하는 것보다 기존 가구를 설득해서 이번 연말까지라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괴로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각 농가에 작은 추석선물을 준비해서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비한 김 선물 세트와 특별히 아버님 덕은 소주를 더해서 추석을 잘 보내시라는 메모와 함께 대문 안에 들어서서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어 빨리 마루에 선물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리나케 뛰쳐나왔습니다. 꼭 죄 지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주위에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뒤끝도 없고 쿨하다는 등 좋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얘기해 주었지만, 그렇지도 않은 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이 끝나고 새로운 영농일지를 갖다 주어야 될 날짜가 다가오자 맘이 또 무거워지며 어떻게 상품권이랑 10월 영농일지를 갖다 드리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편지였습니다. 강원도 친정아버지도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지만 편지를 써서 드리면 좀 화가 풀리셨던 생각이 불현듯 나서 잘 쓰지 못하는 글로 마음을 움직여

보자는 생각이 들어 잘 보이라고 굵은 사인펜으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 조금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0월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전화도 하고 싶었으나 아버님의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 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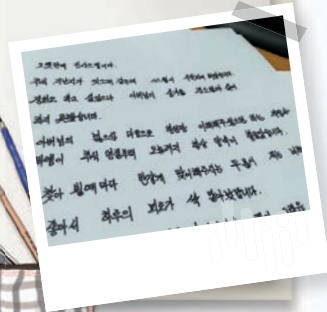
아버님의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걱정과 바람이 추석
명절부터 오늘까지 항상 맘속이 힘들었습니다.

찾아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 주시는 두 분이 저는

너무나도 좋아서 하루의 피로가 싹 달아났답니다.

만나서 얼굴 뵈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이 그리운 저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쓴 편지랑 10월 영농일지와 상품권을 우편함 속에 넣어 두고 온
그 날 전화벨이 울린 겁니다. 두근거리는 맘을 애써 감추며 아버님, 안녕
하십니까? 하고 먼저 인사를 드리니 수화기 저 너머에서 예전 내게 들려주
었던 따뜻한 음성의 목소리로 박 양! 왔으면 얼굴을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나! 풀이 있어야 종이를 붙이지, 풀도 없이 어떻게 종이를 붙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아버님, 이제 아버님, 어머님 얼굴 뵈러 가도 됩니까? 난 아직
아버님 맘이 안 풀려서 제 얼굴을 보면 더 화를 내실까 싶어 덩치에 맞지 않게
겉이 나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전화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표현을 하였고 다음 주 약속 날짜를 먼저 정해 주셨습니다.

약속 날짜는 올해 처음 제주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 다나스가 서귀포를 지나가는 날이었고 아침부터 출장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말들이 오가고 했지만, 내 맘은 벌써 가기로 정해졌고, 내 차가 작은 경차라 혹시 비바람에 흔들릴까 싶어 애들 아빠 차로 바꿔 타는 치밀한 준비(?)까지 했기에 걱정 없었습니다. 온통 내 생각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사에서 밖으로 보니 태풍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어 어두컴컴해지고 바람이 불고 다나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서서히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난 개신장군의 맘으로 서귀포로 갈 준비를 하고 다들 조심하라는 염려를 안은 채 나섰습니다.

출발한지 얼마 안 되어 앞 1m도 보이지 않는 안개로 차는 완전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가야 했고 비는 비대로 앞 유리창에 난타질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내가 맘 고생하던 일이 해결이 되는데 태풍이 대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며 속으로 태풍이 오는 데도 약속을 지킨다고 내가 왔으니 날 더 믿어주시고 앞으로 더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땀에 콧노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출장 나오려는 사무실 팀에게 현재 안개 상황을 내가 날씨 리포터인 양하며 승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귀포를 넘어가는 유수암리 직전의 안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이 1m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하며 유머스러운 행동을 했고 다행히 평소 웃음이 많은 승희 언니는 내 전화에 빵 터지는 웃음을 참으며 네. 잘 들었습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하고 받아주니 내가 달리는 이 길은 태풍이 오는 비바람 치는 미끄러운 도로가 아니고 내 차 타이어를 비바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뽕송뽕송한 스펀지를 깔아 놓은 듯한 도로였습니다.

그 뽕송뽕송한 길을 달려 도착했지만 아버님은 과수원에 나가셨고, 어머님과 저는 만나자마자 서로 껴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추석에 내가 갖다 놓은 김 선물 세트가 마당에 몇 번이나 내팽겨쳐져서 다시 주워놓고 하셨다고... 나중엔 어머님이 화가 나서서 안 주워뒀더니만 아버님이 주워 들여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화가 좀 풀리셨나보다 생각하셨습니다. 아들, 딸 삼형제 모두 시집, 장가갔지만 아직도 아버지 성격 때문에 가까이에서 와서 얘기하기를 어려워하고 한 번 화가 나시면 말도 한 두 달도 안 하고 집에 오지도 않는다며 나보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뒤끝 없고 성실하고 정직한 부분은 많으시다며 나를 많이 다독겨려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늦어지시는 것 같아 전화를 드렸더니 태풍 때문에 과수원에 있다면서 9월 영농일지 다 적어놔으니까 가져가고, 차 마시고 태풍 더 오기 전에 어서 넘어가라 하시며 다음 주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코 끝이 찡함을 느꼈고 다시 한 번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로 달렸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순간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조사를 해야 되나? 국민으로서 당연히 조사에 응해주어야 하는데 왜 다른 나라처럼 안 해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강력한 법을 우리나라는 안 하는 걸까? 하고 나의 잘못보다 국가 정책을 곱씹으면서 혼자 토로해가며 나 자신의 잘못을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된 지금은 아무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끝까지 인간관계의 연결 고리를 쉽게 끊어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조사를 해온 통계청 가족들의 대단한 능력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 있어 조사를 쉽게 하는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곳곳이 맡은 일들을 해 나가는 통계청 가족 모두가 국가 정책 수립에 결코 없어서는 안될 기초 경제의 뿌리들을 조사하는 중요한 임무에 흐트러짐이 없이 임하는 모습을 직접 느껴본 한시계약직 2개월 차인 제가 감히 윗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통계청 직원들은 탁상행정의 무수한 말들과는 너무나 먼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농업, 어업, 임업 기업인들 모두를 만나서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조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다면 간, 쓸개 다 내어놓고 조사하는 통계청의 위상을 제일 효과가 좋은 방송매체에 자주 알리고 싶습니다. 나라 살림 정책 수립의 일등공신인 뚜벅이 통계청. 국민에게 자신 있게 다가서서 정확한 통계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와 통계청이 함께 힘쓰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체험사례에 적은 내용 그대로 저의 부족한 업무 미숙으로 팀장님, 총괄자님, 사무실 팀원들에게 걱정을 안겨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까지 최선을 다해 농가경제 조사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통계청 직원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특히 제주사무소 직원분들(너무 속 보였습니까?), 파이팅입니다!





내 마음의 아가징끼(발)난약)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고민정

사람들은 일기예보 관측상 비나 눈이 내릴지에 따라 준비하는 행장이 달라지듯, 나 또한 언제부터인가 아침방송 일기예보에 바람세기의 강약에 태풍이 북상하는지, 파도는 몇 m로 일지를 중요한 생활의 포인트로 시작한, 나는 어업인이다.



∴ 2012년 9월

2008년부터 시작한 5년 동안의 농·어가경제조사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농·어가경제조사의 신표본가구를 개척하고 설득해야

하는 시기라 농·어업팀 직원들한테는 제일 바쁜 시간이 아닐까 싶다.

고민정에게 주어진 미션 - 어가경제조사 신표본 7가구, 비계통표본 17가구
설득 예정 - 우선 조사구요도와 명부를 살펴본 나는 심호흡 세 번 하고
고민정이 가는 거야 ~♪ 구좌읍 하도리로 고고씹~



:: 나의 구역에 도장 찍기

그 누가 시작이 반이라 하였는가! 문주란 꽃의 서식지인 토끼섬이 있고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고 아빠 어디가~를 촬영하기도 한 구좌읍 하도리가 나의 표본설계도면이다. 하도리에 도착한지 세 시간이 지났지만 동네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마침 지나가던 우편배달부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이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자들은 물때가 되면 물질하러 가고, 바다에서 나오면 다들 밭으로 일하러들 가서 대부분의 가구는 비어 있을 겁니다.

헉! 동네사람들이 다 해녀 마썸? 물질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밭에도 갈수 있덴 마썸?

그렇다. 이곳은 해녀 특구지역으로 제주도에서 해녀의 수가 제일 많은 곳이라 한다. 예전부터 해녀는 반농반어의 생업으로 해녀라는 직업을 갖고 농사도 겸하여 일단 밭을 들여놔으니 뭔가를 해야만 했다.

해가 하도리 수평선 너머로 반 쯤 넘어갈만한 시간이 되어서야 동네 어귀에서부터 삼촌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계세요~? 삼~촌~!



누구시강?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 직원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아시죠?
인구조사! 호구조사! 하는데요!

아항! 통계청! 근디 왜~~?

장화를 벗고 있던 삼촌이 통계청이라 하면 문을 닫아버린다는 말을 선배들에게 누누이 들어온지라 내 몸을 일단 닫히는 문을 막아서서 마루 끝에 걸터앉은 채 통계청에서 어가경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이 집이 표본가구이며 어업가구 중 대표가구임을 강조하며 열띤 설득을 시작했다.

에잉~ 우리 집 대표 안하켜! 이젠 늙어 부난 물질도 잘 못하고 농사도 많이 해서 바쁘난. 다른 집 가서 허라게.

아~ 삼촌이시여! 설명할 때는 진지하게 잘 들어주며 고개도 끄덕이시고는 그런 해맑은 눈빛으로 거절하면 어찌합니까요?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신 어르신께 내 욕심만 부리고 너무 했나라는 생각에 다음에 다시 한 번 들르겠노라며 오늘은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생각하며 인사를 하고 나왔다.

늦게까지 기다린 보람인지 여러 가구를 돌며 일단 내가 통계청 고민정이라는 인사와 다음에 다시 들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왔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원하게 해본다는 가구는 없었지만 대문 밖으로 내쳐지지 않았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며 다음 날을 기약했다.

출발할 때의 그 기백은 어디로 갔고, 다부지게 맘먹었던 내 의지는 돌아오는 내내 먹먹하기만 했다.



::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첫 만남에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인사만이라도 나눴다는 것에 맘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도리 입구에 차를 세워 놓고는 마을을 걷기 시작했다. 하도리 해안가로 올레길이 조성되면서 제법 관광객이 많이 보인다. 간혹 동네를 거닐다 보면 우편배달부 아저씨, 마을 큰 풍낭에서 웅기종기 모여앉아 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이 골목 저 골목 지나다니는 내가 궁금한지 처음엔 뉘 집 딸인지? 어느 집 며느리가 잠깐 시댁을 다녀가는 줄만 알고 지내다가 달달한 사탕이라도 한 움큼 쥐여 드리면서 저 통계청 직원입니다. 하고 인사도 나누고 하는 사이가 되면서 이젠 아이고게 통계청 아가씨(?) 오늘은 누구네 집 찾아 온거라? 그 집은 오늘 아무도 없어. 다들 시내 불일 보러 가서. 라며 동네 사정을 먼저 얘기해 주신다.

그런데 이놈의 넓지도 않은 오지랖이 나중에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해안가를 거닐다 보니 해녀들이 나올 시간이 되었는지 탈의장 근처에서 소리를 뜨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처음 접한 나는 호기심 발동, 발길은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었다. 검정 고무옷을 입은 해녀들은 허리에는 납덩어리를 차고 몇 시간 동안 물질을 해서 지칠 터인데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소리로 가득찬 테왁 망사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바다에서 나오고 계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가슴 속에서는 뭉클한 그 무언가가 구부정하게 무거운 소라 망사리를 짊어진 삼촌에게로 이끌어 삼촌! 그 망사리 이리 주세요! 제가 저기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며 망사리를 빼앗아 들고 앞서 걸어나가는데 나를 쳐다보던 삼촌은 니 누구 딸이고? 어머 찾으러 와시냐?



아이고 이리 주라게. 옷 다 버린다게. 하시며 만류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망사리를 옮겨 드렸다. 모두 검은색 고무옷을 입고 있으니 누군지도 모르겠거니와 다들 똑같아 보여 우리 가구 삼촌인지도 구분이 가질 않았다.

니 누계고?

소리를 저울질 하던 아저씨가 물으셨다.

저는 통계청 직원 고민정이라 합니다. 하도리를 제가 담당하는데요. 하도 바다에서 해녀들이 잡아 올리는 어획물과 어획량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하도리 전체 해녀들이 조사 대상인 거 아니고 표본가구 일부만



조사하는데 삼촌들 만나기도 어렵고 다들 안 하신다고 해서 속상해요.

그렇구나. 내가 해녀들한테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부탁도 드려볼까?

아저씨는 누구시길래?? 나를 도와준다고 발 벗고 나서 주시는 걸까?

양~ 삼촌들! 여기 이 직원 양지(얼굴) 한 번 보십세! 몸도 튼실하고 시키지도 않은 구쟁기(소리)도 막 날라다주고, 통계청 직원인디 바닷에서 잡양 판매한 거랑 먹은 거 나눠준 거 그런 거 조사해야 된다니깐 집에 찾아가면 잘 해줘양! 알아서들 잘 대답해주고양~!

오잉??? 고민정이한테 이런 형재가! 속으로는 로또 복권에라도 당첨된 기분이다. 해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들 자기 집에 오라고 하신다. 나중에 알고보니 큰 소리로 나를 대변해주던 아저씨는 하도리 조합장님이셨다. 난 마치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이었고, 지금도 조합장님은 최고의 나의 통계 조력자로 활동 중이시다.



:: 군중심리를 이용하자

조합장님의 활약으로 나의 하도 입성은 전보단 훨씬 수월해졌다. 어가경제 조사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영주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도 중요하지만 경제 조사라는 게 가구를 이루는 가구원의 협조도도 필요로 한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어가경제조사는 어선가가 없는 경영주가 해녀가구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물질에다 발일을 겸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기장지도 갈 때 마다 안하고 싶다, 다른 집 가서 하면 안되겠냐, 돈 쓴 거 없다, 그만하면 안 될까? 등등 가끔 내 가슴을 철렁거리게 할 때가 부지기수다.

하도리는 우뚝가사리가 많이 나는 곳이다. 우뚝가사리 작업을 할 때면 동네 모든 남자들은 바닷가에 가서 해녀가 작업해온 우뚝가사리 망사리를 건져 올려줘야 한다. 남자들은 해녀들이 물속에서 작업하는 동안 물에서 2~3시간 대기하거나 바닷가 청소를 하신다.

우리 팀에서도 하도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몇몇 있기에 나는 팀장님 대동하여 직원들과 같이 하도리바다 공동작업(우뚝가사리작업)때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갔다.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삼~촌!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000 삼촌네서 조사하는 통계청직원이고요. 다들 고생하신다기에 음료수 드시고 힘내시라고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가구 배우자 삼촌에게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며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삼촌도 흡족해하셨다. 주변에서 통계청 무슨 조사냐고 물으시기에 설명드리려 하자 우리 삼촌 왈 그 조사는 아무 집이나 가는 거 아니라 대표로 선정된 가구만 가서 바다에서 잡은 거, 판 거, 먹은 거 적어야 되고 집에 쓴 거 다 적어야 되는 거라!

헉! 못하겠다고 저리 치우라시던 삼촌은 어디 가셨나요? 이제는 아주 가계부 베스트 기장 왕이며 자칭 하도리 통계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시다.



❖: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열 손가락 다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 이 가구는 더 아픈 손가락이다. 처음 명부를 받았을 때 비고란에 적혀 있던 문구는 <2011년 집안에 큰일로 몸이 좋지 않아 어업활동을 잘 못하였지만 우뚝가사리 작업은 한다고 함>이었다.

그 집에 처음 방문했을즈음 촌에 살고 있는 집인데도 집 입구서부터 정리가 잘 돼 있고 집안이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삼촌의 첫 인상은 아주 왜소하고 어딘가 많이 불안한 게 느껴졌다. 내 소개와 어가경제조사를 설명하니 선뜻 본인이 가계부를 쓰고 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며 해준다고 하신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외치며 가계부를 놓고 왔다.

며칠 후 방문하니 침대에 누워 계신다.

계세요? 삼촌~ 삼촌~!

주무시고 계시나 싶어 옆집 갔다가 다시 들렀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

삼촌! 좀 전에 주무시고 계셔서 갔다가 다시 들렀어요.

대답이 없으시다. 저러다 안하신다고 하시면 어찌지 아~ 불안하네.

삼촌, 저번에 조사원이 조사한 거 보니깐 작년에 집에 큰 일 있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인지...?

애기 아빠 상(喪)...

에이궁... 나는 애깃거리가 없어서 던진 질문인데 분위기만 더 이상해져 버렸다.

죄송해요. 전 모르고 삼촌 말벗이라도 할 심상으로 여쭙 본건데... 오늘은 불편하신가 봐요. 담에 찾아뵙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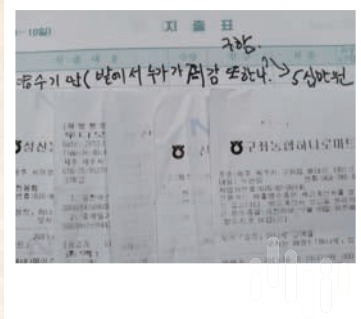
시에서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커피를 타 오시며 삼촌이 말씀하신다. 애기 아빠가 안 좋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아들 이외에 남자는 옆에 있거나 남자소리가 나도 소름이 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그래도 조사할 수 있냐고 나에게 물어 보신다.

에휴 다행이다. 못하신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 있을 수록 병은 치유가 되질 않는다고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힘내고 이겨내시라고 나도 자주 찾아뵙고 말벗도 해주겠노라며 약속을 했다.

그래서인지 기장 출장을 내기 전에 꼭 삼촌한테 집에 계시냐며 찾아뵙겠다는 전화를 드리고 방문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편지라도 적어 놓고 오기도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경영주와 말로 풀어 가는 청취기장으로 가계부를 적다가 어느 날은 볼펜으로 밖에 양수기를 도둑맞아서 양수기를 새로 샀- 50만 원- 속상하지만 농사도 지어야 하니 구입 했음. 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촌구석에 와서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들은 대체 어떤 얼굴일까?

가끔 탄소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가계부에 몇 자 적어놓는 걸 보니 어린 내가 말뼉이 되나 보다 했다. 친정이나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얼굴보고 안부를 묻곤 하는데 표본가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해서 얼굴보고 안부 묻고 아픈지 안 아픈지, 간식거리 사다 드리고 부재중이면 전화 드리고, 농번기에는 싱크대 위에 쌓여 있는 그릇을 씻어놓고 돌아오고, 가끔 병원 방문을 도와 드리는 일을 마다 않는, 찾아가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원들이다.



전여사!

황금들판 논구디와 친구되다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와
전 옥 순

유난히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던 여름날, 푸르디 푸른 초록빛 들판을 헤매고 다녔는데 그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걸 보니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내가 통계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13년이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고, 입사 후 계속 사회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2월 농어업조사과로 발령받아 농업면적, 농작물생산량, 가축동향 등의 구수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큰일이다

이 일을 어찌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농어업조사의 필수는 운전이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은지라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보니 더욱더 마음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저는 업무보다 운전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가족들이 잠든 새벽시간에 도로연수를 시작하였고, 연수 2주 만에 설렘 반 걱정 반을 뒤로 한 채 온 신경은 초긴장 상태로 무장하고 출근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첫 운전

왕초보로 운전 및 시야확보가 서툴러 혹시나 하는 마음에 30분 소요되는 출근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찍 집을 출발하여 겨우 사무실에 도착하니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지각은 겨우 면하였습니다. 퇴근하면서도 출발이 서툴렀고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내려서 보니 차바퀴가 도로 옆 난간 위에 올라가 있고 차 앞 범퍼는 이미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나질 않고 그냥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한숨만 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만 할지 난감하기고 하고 눈물도 나고 겁도 많이 나서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있잖아요, 주차하는데 차가 난간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않네요. 하니 남편 알,

당신은 괜찮나?

예. 저는 괜찮아요.

그럼 그대로 기다려 지금 갈테니..

이렇게 통화를 하고 기다려 남편이 도착했는데 보니 기가 막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웃으면서 참 재주도 좋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아닌 척 웃으면서 남편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남편이 차를 움직여 봐도 되질 않아 결국은 정비업소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불러 해결을 했습니다.(차는 정비공장으로 보내고...)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운전을 하면 할수록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려 신호를 받고 기다릴 때마다 잠깐 동안 다리를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겨우겨우 사무실에 도착하면 현장에 나가야 하는 걱정에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이런 나를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과 동료들이 넌 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운전을 배웠다. 파이팅! 하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위로 덕분에 어느덧 나는 초보자를 벗어나지는 못해도 출·퇴근, 조사대상 처는 스스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고 그런 나를 보며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럽고 스스로도 대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운전도 초보, 단위구 찾기, 면적조사 지적도도 잘 볼 줄 모르는 농업 생산 업무도 초보인 내가 인적조차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을 혼자서 헤쳐나가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동료나 선배님들처럼 잘 할 수 있는 날이



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조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물재배면적조사는 그나마 목측이나 실측을 반복해서 자신감이 붙어 가는데, 논벼생산량조사는 아직 생소하며 불안하던 차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팀장님과 선배님들이 꼼꼼하게 사전설명을 잘 해주셨고 현장실습까지 무사히 끝내고 처음으로 접해보는 논벼예상량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생소한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지만 동료나 선배님들의 설명에 불평할 새 없이 고된 업무를 감수하며 뒤를 따라다니기에 바빴습니다.



●● 논벼예상량조사

농업업무를 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것입니다. 팀원 전체가 각 조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푼푼 뭉쳐, 1~2일 만에 조사 완료하여 단기간 내 예상량을 결정하여야 하는, 농업분야의 최정점에 있는 중요업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업무로 인식되다보니, 나로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조사업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조 3명은 준비물(조사표, 물신, 100m줄자, 5m줄자, 칼, 노끈, 깃발)을 챙겨 논벼예상량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황금빛의 논 앞에서 물신을 신고 눈에 들어가는 순간! 이른 아침 이슬이 내린 논이라 입고 있던 바지는 금방 축축해지고 두 발은 진흙에 푹 빠져 겨우겨우 발을 빼내어 앞으로 나아가려니 깊숙이 빠진 발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하자마자 파김치 되네. 현장조사도 조사지침서처럼 딱 맞아떨어지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A포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분명 사전 교육을 받을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자신있었는데, 이건 낭패 그 자체였습니다. 머릿 속이 하얗고 멍하니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선배님들이 다가와 하나도 모르겠제? 하는 거였습니다.

잘 보고 듣고 차근차근 한 번 해 봐라. 하며 다정하게 설명해 주셔서 겨우 허리를 구부려 이슬 축축한 벼들 사이로 얼굴을 숙여 가로, 세로 10포기 간 길이를 재고 또 재어 확인하고, 10포기 이삭수를 세어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 허리를 편 채 누가 우리를 공무수행중인 자들로 봐줄까? 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청명한 가을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은 내 마음도 모르는 듯 너무나 맑고 청명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좌충우돌 하면서 처음에는 허둥지둥했는데 자꾸 연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제법 내가 생각해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련한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하셨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도 잘한다는 말을 해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한 곳이라도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기장군 일광면부터 시작하였고 나는 병아리마냥 부지런히 뒤를 따라 다니며 현장업무를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필지 한 필지 조사를 해 나가다보니 점심시간도 놓치기 일쑤. 통통 부은 발과 흙탕물에 젖은 옷을 볼 때, 내 모양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잠시, 늦은 점심을 먹을 때 너무 점심이 맛있어 이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에 밥을 먹으니 그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허리도 제대로 한 번 못 펴보고 우린 얼른 밥을 먹고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우짜겠노?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 자~ 남은 필지하러 갑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우린 힘든 몸을 일으키며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했을텐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배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는 나머지 하나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같이 손을 맞추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예상량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실수확량조사였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터라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눈에 들어가서 벼 한 포기를 잡고 낫으로 베니, 그것 또한 싹 베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다시 시도하여 겨우 벼 한 포기를 베어내는 순간 내가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와 보니 못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벼 한 단을 만들기 위해 매듭을 묶고 벼를 베어서 소복이 쌓여지면, 다시 묶어서 이삭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대에 담아서 나오기를 얼마나 했던가? 나도 모르게 벼 한포기를 잡았던 손은 어느새 두 포기, 세 포기까지 잡고 쓱쓱쓱 베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즐겁게 일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벼를 베고 사무실 옥상에서 첫 번째 탈곡 시작, 탈곡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라 한 사람이 한 움큼의 벼를 챙겨주면 한 사람은 탈곡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탈곡한 벼단을 받아서 묶어 벼짚 무게를 재고, 한쪽 옆에서는 선풍기 바람으로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팀원 손발이 척척 맞아 빠른 시간 내에 일찍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직원 남자직원이 따로 없이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업무를 처리하는 팀의 팀원이 된 것이 나는 무척 자랑스러웠



습니다. 농산물생산량조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농어업조사과의 첫 논벼예상량조사, 실수확량조사를 마친 후 바라본 황금 들판 위의 가을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만큼이나 덥고 긴 가을 날씨에 농어업조사과의 새로운 업무시작으로 인해 진정한 현장조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내가 무척이나 감동스럽습니다. 오늘도 남은 실수확량조사를 위해 혼자만의 일이 아닌 농업통계팀의 팀원으로 다시 한 번 힘찬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파이팅!





난 행운아!이다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와
손 선 옥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고 도로 옆 가로수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올해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갔음을 느낀다. 평소 같으면 별다르지 않았을 하나의 계절이 올해는 무언가 남다르게 느껴진 이유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을 지닌 기장군에서의 특별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 고되었지만 진실했고 뜻깊었던 이러한 나의 경험이 나 자신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언제나 새로움을 갈망하던 난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와 기간제 근무에 도전을 하여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농어업조사와 어업통계팀의 어가경제조사였는데, 매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꾸준히 조사해야 하는 업무였다. 첫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조사내용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당시 어업관련 지식이 부족한 나로서는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복잡한 마음을 지닌 채 어가경제조사 대상처 11가구, 비계통표본조사 8가구를 맡게 되었다.

내가 맡은 지역은 부산 기장군! 한 가구 한 가구 전일 담당자가 정성껏 조사를 한 지역이다. 그리 많지 않은 가구였지만 가정사는 다양했고 어업분야 인지라 대부분의 조사대상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다. 업무 인수를 받고 혼자 처음 대상처를 방문했을 땐 마음이 무척 떨렸다. 준비해간 질문도 잊어버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기도 했다. 모든 가구의 현황과 특성, 어선 출어 현황 등 수입과 지출, 자산 동태파악 및 어가원부 내용 등 여러 가지의 어가정보를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내가 맡은 가구 중 2가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구들은 담당자가 바뀐 것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지만 두 가구는 이번 기회에 이제 그만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난 어떡하든 설득해서 조사를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에 자주 찾아뵙고 안부도 묻으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유난히 나를 애태우시던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덕!!

할아버지 덕은 노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이혼하면서 데려온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손녀와 함께 셋이서 생활하는 어가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세입자 가구였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날씨 탓에 방문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속옷 차림으로 계셔서 참으로 조심스러웠다. 더욱이 매일 술에 취해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좋지 못한 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문할 때면 늘 가슴 속 외침으로 하나~ 둘~ 셋~ 용기를 내서 아버님~ 잘 지내셨나요? 라는 인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다. 처음에는 힐끔 쳐다보며 하시는 대답이 대충 적어 가소! 라고 말씀 하실 때가 많았다.



할아버지는 질문에 그럭저럭 대답을 하시다가도 예민할 수 있는 방세, 세금, 용돈 등의 금전 지출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여쭙볼 때면 대충 하면 되지. 돈 많이 써서 돈 없으면 보태줄 건가? 응? 혀 꼬인 말투를 하시면서 눈을 슬그머니 뜯 채 꺾려보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만 가라고 호통하실까 싶어 무척이나 마음을 졸이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였고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업 복지 분야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치인들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어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겠어요? 어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기초자료 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 애교도 부리며 요즘 방송에 나오는 화젯거리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며칠 후에 뵈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기를 몇 번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가끔씩 방문하여 꼬치꼬치 여쭙어 봐도 그다지 반가워하시진 않았지만, 통명스럽게라도 대답을 해 주시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할아버지 부부의 생일이 일주일 간격으로 8월 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할머니 생일 때는 예쁘게 포장한 롤케익을 사서 방문하여 축하를 드렸고, 일주일 후 할아버지 생일 때는 양말을 구입하여 포장을 예쁘게 하여 선물하고,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눈시울을 붉히시며 자식들은 자주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하질 않는데 자식보다 얼굴을 자주 보고 생일도 챙겨주는 마음이 정말 고맙네.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고맙게도 뭐 하러 선물까지 사왔노~ 라고 하시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난 할아버지와 조금씩 친해져 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조사에 응하겠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던 분이 그 이후부터는 일절 그런 말씀이 하지 않으셨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기에 아버님!~ 우리 사이 정들 때까지 5년 동안 협조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리니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에 응해줄게~. 라고 하시기에 역시 아버님 멋쟁이세요. 라고 하면서 꾸벅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큰소리로 야! 이거~ 내가 담당자 꼬임에 넘어 갔다 아이가. 하시면서 껄껄껄 웃으셨다. 그 날은 내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기분 좋고 보람을 느꼈던 하루로 기억된다.

요즘은 어르신 댁을 방문할 때면 어서 와라~ 하시며 일지 적어놓고 영수증 잘 챙겨 꽂아 두었다. 는 말씀을 들으면, 할아버지의 마음 한 곳에 반가운 사람으로 내가 자리한 것 같아 너무나 편안해진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지만 정이 참 많으신 할머니

7000원에 구입한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와 함께



15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할머니는, 10여 년 전 왼쪽 귀 밑에 선종이라는 종양이 생겨서 수술하다 신경을 건드려서 하마터면 입과 눈도 빠들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다.



할머니는 글도 잘 모르시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어가일지를 쓰는데 무척 힘든 조사기간을 보내셨다고 한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는 기회에, 조사에 그만 옹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난 할머니께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 목요일에 방문을 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가게의 모든 비용을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어가일지 작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조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다.

방문 초기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린 거리를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가 외출을 하시고 계시지 않아, 만나 뵙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기다렸던 날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방문 약속 시간에 안 계실 때는 할머니께서 나 여기 밭에 왔다~, 시장인데~, 병원인데~ 하고 전화를 주신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은 내게 마음을 열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이라, 행복함과 보람을 느끼곤 한다.

할머니 댁 대문을 들어설 때면 성가시게 짙는 뽀빠라는 예쁜 강아지가 있다. 할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 그러는 것 같아 무척 귀엽기도 하다.

어가일지 작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여쭙어 보면, 할머니께서 오늘~, 어제~, 그제~ 오늘 병원 차비 갈 때, 올 때 2,400원, 오이 4개 2,000원, 고등어 3마리 5,000원. 두 마리는 씻어 간 해놨다가 아들 오면 줄까다. 하시면서 음, 어제는 고추밭에 갈 때 둘째 아들이 태워줬고, 올때 차비 1,200원, 몸빼바지 7,000원. 아~ 몸빼바지 샀는데 구경 함 해 볼래~ 하시길래 어머니~ 색깔이 세련되어 보이고 잘 사셨네요. 라며 맛장구치니 너무 좋아 하셨다.

별 때마다 혈압약은 꼬박 꼬박 잘 드시는지, 무릎은 괜찮으신지 이빨치료는 다녀오셨는지 등 할머니의 건강을 물어볼 때면, 밥맛도 별로 없고 돈을 쓸 때도 없어 조사에 기재해 줄 내용도 많지 않다고 뉘두리를 하시면서도, 딸과 아들 셋 자녀가 있지만 다들 생활하기에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한다고 방문해주니 고맙다고 텃밭에서 키우는 고추랑 부추, 양파 등을 봉지에 싸주시기도 하신다.

얼마 전 명절이 다가오니 김장고추를 살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다. 어머니, 고추 한 근 가격은 얼마예요? 라고 여쭙보니 내가 세 번이나 정성스레 씻어서 깨끗하고 빛깔도 곱다 하시며 고춧가루 한 근을 13,000원에 팔아달라. 하셨다. 순간 올해 고추 농사는 풍년이라 고추 값이 떨어진 것을 모르시나?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 값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다가도, 할머니 얼굴을 보면 가격이 비싸다고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도와 드릴 생각에 지인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통계청 알뜰매장 게시판에 홍보도 하였지만, 한 건의 주문도 들어오지 않아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비록 8,000~9,000원 정도의 고춧가루 시세였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먹을 15근을 신청을 해버렸다. 할머니가 목돈이 생겼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내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휴대폰이 왜 잘 안되지? 고장인가? 휴대폰 한 번 바꿀래? 말씀하셔서 휴대폰을 보니 아주 오래된 폰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휴대폰은 사용하는 방법 배우기 어렵제? 라고 말씀하시기에 자꾸 반복 연습하다보면 쉬워요. 라고 하니 대리점 주인이 지금 폰이랑 비슷한 모양을



콜라 그냥 쓰란다. 아들도 그러고 해서... 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휴대폰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으로 내심 바꾸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니 통화가 잘 되고 요금이 싼 지금의 폰과 비슷한 폰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어때요? 라는 가게 주인의 얘기가 못내 서운하셨던 듯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난 어머니! 스마트폰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제가 방문 할 때마다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편리한 것이 많은데요. 어머니도 여러 번 연습하면 잘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 핸드폰을 갖고 같이 눌러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겨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씩 적어서 연습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전화통화, 수신, 발신 부터 같이 연습을 해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 얼굴사진 한 장을 찍어 보낸 후, 문자로 할머니 얼굴 보는 것부터 연습을 했다. 어머니. 편지 모양 누르고 이것 살짝 누르기만 하면 되니 한 번 해보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직접 해보시더니 기분이 좋아지신 듯 해맑게 웃으시던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처음 하는 일이자, 행복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 업무가 단순히 조사업무에 그치지 않는 누군가와 교감하고 세상을 공유하는 일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조금은 쌀쌀해진 가을 날씨를 느끼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는 온 몸이 긴장을 한 탓에, 귀가하면 녹초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을 뵈러가는 발길이 가벼워진다. 어르신들이 내게 마음을 열어 주신 것처럼, 나의 마음가짐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다.

적지 않은 나이에든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얻어 통계청 업무를 경험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과 눈높이를 맞춰 한사람의 소중한 인연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위의 두 사례 외에도 따뜻한 많은 분들과 세상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물론 나의 업무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을 마무리 할 것이다.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면접에서 뽑아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또한 어업 분야를 잘 몰랐던 나에게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무리 없이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잦은 질문에도 성심껏 대답해 주신 분들, 또 체험 수기까지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농어업조사와 모든 분들께 같이 근무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난 생각한다. 난 행운아!이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둘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닌 틀니가 있다!!!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문 영 선



:: 두려움 그리고 설렘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나선 출장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계속 조사해 오던 조사구라면 그나마 마음이 좀 가벼울텐데 업무 조정으로 나에게 하나의 조사구가 더 배정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도 이제 연동 시작한 조사구!

처음 사회통계 일을 하면서 시작된 연동이라는 굴레는 나의 꿈 속에까지 쫓아와 괴롭히곤 했다. 연동 시작 전에는 잠도 잘 오질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들은 하나 둘 퇴색되어 가지만 그래도 연동이라는 어려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새롭게 설득을 해야

한다는 건 만만치만은 않은 일이다.

그런 조사구에 난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어떻게 첫 단추를 낄까?
곰곰이 생각하며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혼자서 미친(?) 사람
처럼 연습까지 해본다.

아니나 다를까 시골이라 내심 쉬울 거야 괜찮을 거야를 마음속으로 바라
면서 다가선 내게 조사구 사람들은 그리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조사구 특성상 외지에서 들어와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서 그런지 시골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함, 포근함은 없었다. 쫓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자! 고 나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매달
조사에 임했다.

매월 변동도 없는데 뭐 땀에 또 왔냐? 라고 핀잔주는 어머님께는 내가
뭐 통계조사 하러 왔냐? 어머님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 왔지. 하고 딸같이
애교를 부리며 안부를 물었고,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삼촌뻘되는 가구주들은
카톡 친구를 맺어 일상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

매일 야근이라 출장가도 통 만날 수 없는 조사구 언니에게는 갈 때마다
메모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꽂아두고 왔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쓴
편지가 좋았던 건지 아님 통계조사에 조금은 우호적이었는지 쉬는 시간을
내어서 나에게 전화를 주시곤 했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두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상품권으로 조사구 어머님, 아버님을 꼬시기도 했다.

왜 우리 집은 조사하지 않냐? 며 이웃 아주머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들어야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다.



:: 되로 주면 말로 받는다

2013년 7월 바쁘다는 핑계로 벌써 몇 번이나 미루어진 조사대상처 간담회를 내가 맡은 조사구에서 하게 되었다. 간담회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에는 내가 왜 내 조사구에서 간담회 한다고 손을 번쩍 들었을까? 하는 후회가 앞섰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그 후회는 곧 없어지리라란 걸.

조사구 어머니, 아버님들께 뭐라도 해 드리고 싶었다. 그 방편으로 찾은 것이 조사대상처 간담회였다. 큰 사무소였으면 내 조사구까지 차례가 올 수 있었을까? 그나마 감사한 맘으로 간담회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는 감사함 그 이상으로 돌아왔다.

외지에서 들어와 생활하며 홀로 지내는 조사구 젊은 아버님은 평소 동네 어르신들과 왕래가 별로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동네 분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평소 쑥스러워 내가 가도 먼발치에서 쳐다만 보던 아버님도 이젠 내가 동네에 들어서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날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조사 갈 때마다 이가 하나 밖에 없어 턱이 쏙 들어간 어머니가 맘에 걸렸다.

이 하나로 저분이 도대체 뭘 드실 수 있을까?

죽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준비한 음식은 드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웬걸!

나의 고민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간담회 때 점심을 먹으면서

알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틀니가 있다는 것을! ㅎㅎ





::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것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출장길에 나선다. 처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인사이동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진주로 발령날 가능성이 컸기에 어쩔 이번 조사가 이 조사구에서 마지막 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 가슴 한구석이 살며시 아려움을 느낀다.

어느 순간 시나브로 이분들이 조사대상처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 가족 같은 존재로 내 가슴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조사 나갈 때마다 무뚝뚝한 말투로 또 왜 왔어? 하며 타박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께 어머니! 나 어찌면 다음 달부터 못 올 수도 있어요. 하고 말하니 깜짝 놀라며 왜? 왜 안 올 건데? 하곤 되물으신다.

그런 어머니를 살짝 안아주면서 발령 날 것 같아요. 진주로...

잘 됐네~ 가까운 곳으로 가서 잘 됐어. 하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머니 눈가에, 나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힌다.



|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닌 틀니가 있다!!! |



처음 이 조사구에서 조사를 시작할 때는 20가구 전부를 조사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사가구 수는 한 가구 한 가구씩 줄어들었다.

한 분.

또 한 분.

또 한 분...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워낙 평균 연령이 높은 조사구라 조사를 가서 안 보이시면 내심 걱정이 된다. 또 어디론가 가 버리셨나 하고... 내내 건강하게 지내셨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또 다른 인연으로

2013년 9월 1일자로 진주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왔다. 일 년 중에 제일로 바쁘다는 9월에 농업생산통계팀으로 배치된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작물조사 중 아는 이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었다.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터라 전화를 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 또다시 나의 핸드폰이 울린다. 구OO 안면이 있는 이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할 때면 항상 메모나 편지를 꽂아놓고 나왔던 조사구 언니 이름이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기를 드니 가까운 곳으로 갔다는 소리는 들었다. 며 축하를 해주신다.

제대로 인계를 다 하고 왔다고 생각
했었는데 먼저 전화를 주시니 맘 한구석
으로 미안함이 들었다. 문자로, 전화로 자주
연락하자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신다.

나의 카톡 친구들, 나의 카카오 스토리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맡았던
조사구 사람들이 계신다. 이제 그 분들은 내 조사 대상처는 아니지만 나의
친구(?)들로 일상생활을 나누고 이야기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우린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
으로 만날까?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
일 것 같다. 내 필요에 의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이젠 그 필요가 아니라
사람 사는 끈끈한 정으로 또 다른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



살랑 살랑 봄바람 부는 어느 봄날.

이 조사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카카오톡에 올린
글이 있어 함께 읽어 본다.

비온 뒤에 나선 출장길
봄이 성큼 다가와 버렸다.
날도 따듯
꽃도 활짝
하늘은 푸르고
절로 봄바람 나지 싶다

| 이가 없으면 잇몸...아 아닌 틀니가 있다!!! |



조사가구 어머니님 말씀 중 어제는 이놈 올까 저놈 올까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한 놈도 안 와 서러워 펄펄 울었댄다. 참기를 짜놓고, 썩도 캐 났었는데 하면서...

울 엄마 생각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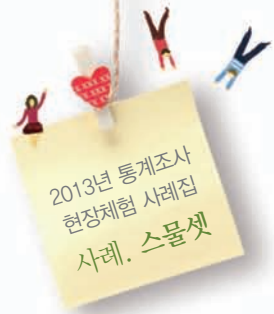
울 엄마도 자식이 그리울 때가 있겠지? 나쁜 딸 이지만 오늘은 전화라도 한 통 꼭 해야 쓰겠네~.

조사 끝내고 나오니 저만치서 들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조사구 어머니께서 날 보더니 집으로 가잔다. 냉동실에 있는 떡국 한 봉다리 들고 가라고..

때론 힘든 통계조사지만 날 딸처럼 여기고 반가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래도 일할 맛 난다.

아자~ 아자~ 파이팅이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셋

행복한 Yes를 만드는 지혜의 심리학

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김 성 숙

청명한 가을하늘을 보고 있노라니 파노라마처럼 흐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동안 각양각색 계층의 사람들을 현장조사를 하면서 만나고 헤어졌다. 또한 그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기술도 익혔다. 현장조사 5년이면, 심리학 박사가 된다고 하는데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각기 바쁜 일상생활이라 통계조사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부야쇼조의 「상대의 심리를 읽는 기술」 역시 심리학의 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부류의 응답자들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 성향에 따른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사담당자들의 능력 또한 시부야 쇼조 만큼 높음을 자부한다.



불응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개개인의 이유가 분명하다. 그들의 상황과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대처방법을 가늠하기도 전에 차가운 표현들로 나타낸다. 거부하는 응답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설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 동안의 노하우로 알기에, 이젠 심리파악을 즐기면서 자칭 통계조사의 심리학 박사 라고 자부하며 파이팅! 파이팅!을 외친다.

생각을 거슬러, 가을날이 되면 노부부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그 당시 말았던 조사구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연구소 직원들로 구성된 아파트였는데 대부분 가구가 연구소에 근무하고, 노부부는 그 중 유일한 카이스트 교수의 가구였다. 대전지역에서 최고의 학력과 중상위층 가구들로 통계 조사하기엔 최상의 조사구로 예상되어, 설렘 반 두려움 반의 감정으로 조사에 임했고, 대부분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역시 난 베테랑이야! 하며 조사가 다 되어 갈 무렵에 땡동~ 남자분의 목소리.

누구세요? 아, 네~통계청에서 귀댁이 통계조사 표본으로 선정이 되어 방문하게 되었어요. 문 좀 잠시 열어 주세요.

조용하다, 아니 너무 조용하다. 난감한 상황... 다시 한 번 땡동~

잠시 문 좀 열어 주실 수 있으세요? 공무원 신분증도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 뵈 수 있을까요?

... 역시 대답이 없다. 그리고는 금세 내 머릿속엔 이 가구는 가계지역인데... 이러면 안되는데...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계단식 아파트라서 불응하는 가구를 계속 설득하고 애원하는 소리가 울려서 다른 가구들이 듣게 되면

연쇄 불응이 이어질 수 있기에 일단 오늘은 후퇴하고 다시 작전을 짜 설득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섰다.

조사하기 딱 좋은 유형의 조사구인데, 그 맥은 왜? 침묵으로 거부할까? 앞집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다정한 교수 부부네라며 사전 정보까지 주셨는데... 그동안 쌓아온 내공으로 심리파악에 또 빠져든다.

왜 불응을 할까? 오늘은 어디 아프셨나? 아님 샤워 중이셨나? 아니면 내 목소리가 공손하지 않았나? 흠...

다시 방문을 했다. 때마침 두 분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 웬 행운인가 싶어 너무 좋아서 급히 달려가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이에요. 그런데 두 분 표정은 무엇을 잘못 보신 듯 찡찡한 표정을 지으신다.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앞을 휩~지나가 버린다. 마치 나를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그래도 난 밝은 목소리로 많이 바쁘신가 봐요? 조사목적 취지 팜플렛 놓고 갈게요. 다음엔 시간 좀 꼭~ 내주세요. 간절한 애원조로 말을 하며, 꼭 읽어봐 주세요. 다음에 또 뵈러 올게요. 내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부부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다.





60대쯤으로 보이는 그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다정히 가시는 모습으로는 꽤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통계조사는 거부할까? 현장조사 담당자들은 이유 불문 100% 설득을 해야 한다는 자존심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현장 조사의 불응은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응답자와의 원활한 유대관계는 정확한 통계자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신경을 쓰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불응은 경제적인 부분? 가정불화? 정부불신? 나홀로형? 민감형?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이 가구는 도통 어떤 느낌도 떠오르지 않아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또 다시 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을 했다. 이번엔 아저씨께서 문을 여시더니 몇 번째십니까?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부한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하며 버럭 화를 내신다. 우린 조사에 응할 수 없으니 우리 집은 빼세요!

아! 가구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제외를 시키면 얼마나 좋으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계속 설득해서 정확한 조사로 이끌어 내야 한다.

난 다시 밝은 목소리로 열심히 목적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저씨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으로 아내가 이인실 청장이랑 선후배인데 우리 집은 제외하라고 했으니, 이 청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거요. 하시고는 문을 뒹달고 들어가신다.

흠... 충청청장님도 아니고 본청 청장님께 확인을 해 보라고?? 말단 공무원 입장을 아시려나? 아니면 못 할 거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난감하다. 가슴이 탁 막힌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떻게까지 거부를 하시는 걸까?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아저씨만 댁에 계신다. 실업자신가? 아님 퇴직?

아직은 조금 더 일을 하실 나이이신 것 같은데...

이 맥의 대답은 언제쯤 나올까?

또 다시 저녁 무렵 방문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앞으로 쿵. 어질하다. 정신이 없었지만 나는 얼른 내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얼굴을 드니 앗! 그분이셨다!! 유일하게 불응하는 그 가구주의 아내분.

아주머니는 자신의 운전이 서툴러 낸 사고라며,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신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차 사고는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나는 바로 설득에 들어가 통계청 조사에 응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었다.

사고로 내 어깨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었다. 오직 지금은 이 맥에서 조사만 응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것이 현장조사 담당자 모두의 현실일 것이다.

사고로 인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내분은 가구명부 작성에 응해주셨다. 그런데 학력란에 아주머니는 박사, 아저씨는 김정고시 고졸이라고 기입하시며 아저씨가 민감하니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신다.

아~ 이거였구나! 드디어 해답을 얻은 것 같아 기뻐다.

남편은 밤에만 경비로 근무하셔서 맥에는 주로 낮에 계신다고 하셨다. 최고 학력들로 구성된 아파트에서 아저씨의 학력은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섭섭하게 대해야 했던 아저씨의 맘이 전해 오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한 느낌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가게지역이라 가게부를 써 주셔야 한다고 설명하니, 살림을 남편이 도맡아 하고 있어 가게부는 정말 어렵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날 명부작성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좀 전의 사고로 어깨 아픔이 서서히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다.

내 작전명 짝사랑 편지. 난 아저씨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짝사랑 편지를 썼다. 그리고 우연히 뵈 뻔 때면 큰 소리로 제 편지 받아보셨어요? 제가 편지는 잘 쓰나요? 느낌은 어떠셨어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 아저씨도 어이가 없으신지 픽~ 웃으신다.

아저씨 웃으신 거 맞죠? 저보고 웃으신 거 맞죠? 신이 나서 말하니 내가 췌소. 췌어. 통계청 대단해요~ 하시며 웃으신다.

누가 이 기쁨을 이해할까? 이처럼 기분 좋은 가을날이 있을까~ 싶다!

아저씨와 진솔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남들한테 숨기고 싶은 학력과 와이프가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자각지심이 있으셨다고 한다. 두 분은 열렬한 연애로 결혼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시며 자신의 직업을 아파트 사람들에게 꼭 비밀로 해 달라고 당부 하신다. 어쩌면 아저씨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고 싶었을 것이다.



아저씨와 난 많이 가까워 졌다. 친밀한 유대 관계는 정확한 통계조사로 이어지는 법! 아저씨는 나한테 모든 걸 내려놓고, 가계부 작성법에 대해 그 어떤 가구보다 꼼꼼히 자세히 물어보신다.

그 후 아저씨 댁 가계부는 보완이 필요 없을 만큼 훌륭했다. 아저씨는 가계부 쓰기 전국대회 나가시면 1등 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칭찬 릴레이를 해 드리는 나는야~ 심리학 박사!!

가계부 회수 때 뵈지 못하면, 아저씨는 30분 거리를 자전거 타고 우리 사무실까지 손수 가계부를 들고 오시는 노력과 정성을 보이셨다. 내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운동하려고 일부러 온 거야. 말씀하시고 되돌아가는 자전거를 탄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힘든 심리전이 오늘의 밝은 신뢰 희망으로 이어지는구나 생각했다.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가을 풍경 속에 자전거를 탄 아저씨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했다.

갈수록 다양한 응답자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의 심리학이 필요하다. 오늘도 난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또 다시 도전해 본다. 아자! 아자!!



장려상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넷



연동조사구 첫 달 가계부 회수율 100%, 전자가계부 50% 달성기

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이 경 민

연동이란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계나 장치 따위에서 한 부분을 움직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잇따라 함께 움직이는 일이라 쓰여 있다. 하지만 통계청 사회조사과에서 하는 연동은 다르다. 기계나 장치가 아닌 사람을 연동한다. 3년 동안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구 역할이 끝난 표본조사구를 새로운 표본조사구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결국 새로운 마을을 찾아가 새로운 응답자를 만나 3년 동안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연동 하면 무섭다. 사회와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한다. 주로 오랫동안 농가경제조사를 하면서 사회팀 직원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보면 하나같이 연동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한숨을 땅이

꺼지게 내쉬고, 쓴웃음을 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연동은 무서운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청주사무소에서 사회조사과로 발령 나면서 인수받은 8번 연동조사구는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엇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경활을 같이 해야 하는 연동지구다. 공주 탄천면 가는 길은 너무 멋졌다. 그 옛날 백제의 숨결도 느껴지는 듯한 멋드러진 산천을 따라 54km를 달리면 탄천면 삼각리 연동조사구가 나온다.

연동조사구에 나가는 조사원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가게부 회수율 100%, 10권이 다 나오게 하겠다는 다부진 맘으로 다가가는 간 큰 조사원은 그리 많지 않다. 나 또한 제발 불응가구만 없었으면... 혹시 공동체의식이 강한 면 단위 조사구라 마을 전체가 단체 불응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걱정이 조사구로 향하는 1시간 내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한 분 한 분 응답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나의 의식체계에 맞춘 대화가 아닌 공감하는 맘으로 대하며 래포 형성을 해나갔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만남에서의 깨달음이 있다. 래포 형성은 꾸준한 만남과 공을 들여서도 형성되지만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한 순간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기분 좋은 일이다. 농가경제조사 업무를 오래 한 탓에 특히 농가 어르신들 하고는 잘 통한다.



래포 형성은 너무나 잘 이루어져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나 이제부터가 문제였다. 글씨도 서투르신 분들에게 가게부라는 것을



쓰시라고 부탁드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 그럼 내가 뭘 뭘 써줘야 하는 거? 말 만 혀. 내가 소싯 적에는...

어르신 가계부라는 것을 쓰셔야 해요.

잉? 그게 뭐디? 난 쓰는 거는 자신이 없구먼. 판 거 도와주면 안 되남?

그 옛날 공부를 거의 못하신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은 무엇인가 써야 된다는 말에 초반의 자신감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셨다.

어르신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 집을 기준으로 우리 집으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또 얼마가 나갔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딴 건 왜 하는 거. 세금 땀에 그러남. 난 세금 안 띠먹어. 띠먹을 거도 없지만서도 저~기 높으신 양반네들이라면 모를까.

어르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 벽에 걸린 사진들 보니까 자녀분들을 너무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자녀 몇 분이나 두셨어요?

나? 응, 우리 집 새끼들 여섯이나 났어. 고놈에 고추 하나 만들려고 내가 무지 애쓴 거. 그러다 보니 좀 많아졌구먼.

삼천포로 너무 쉽게 빠져나가시는 어르신들의 대화법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기분 나쁘지 않게 빠져나오게 하는 법도 너무 잘 안다.

어르신도 자녀분들 키우시고 가계 꾸려나가실 때 어느 자식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들쭉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등등 알아야지 어르신이 계획을 세워서 돈도 더 벌고 또 나눠주고 하시잖아요.

이~잉. 글치...

크게 보면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또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충은 알아야 취약계층에 돈도 지원하고 하면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전국에 999개 마을 통계용어로는 조사구 라고 하는데요. 가구로 치면 8,700개 가구를 항상 조사를 해서 소중한 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3년씩 돌아가면서요. 지금까지 전국에 어느 분인가가 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도 받으시고 장수연금도 받으시고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 마을이 표본조사구로 선정되었고 어르신 집은 표본대상가구로 선정되신 거예요.

이잉, 그런 거구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 하는구면. 근디 워떠케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 이게 가계부라는 건데요...

가계부를 왜 써야하는지는 잘 이해를 하셨고 10집 모두 잘 쓰겠노라고 약조하셨다. 이렇게 기쁠 수가. 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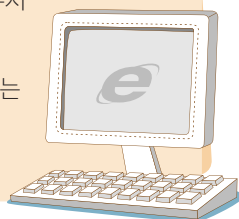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누가 그랬던가. 한 가구 한 가구 눈높이 맞춰 10가구 다 설득이 되니 전자가계부 회수율에 욕심이 생겼다. 이 곳 탄천은 먼 단위인데도 10가구 중 5가구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제는 전자가계부를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부터가 난코스다. 가구관리명부를 한참 동안 곰곰이 이리저리 훑어보고 살펴봐도 영 만만찮다.

고민하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 맘속에 있는 열정이란 놈이 이런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었다. 그래 해보는 거야. 전직(?)을 잘 살리면 될 거야.

나는 결혼 전에 컴퓨터 강사로 몇 년 근무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게 다르다. 우선 나의 제자(?) 될 분들의 이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 2호집 : 이름 잔디홍반. 나이 25세로 머리 영특하나 베트남에서 얼마 전에 시집온 새댁으로 한국말 무지 서툰. 컴퓨터 실력 중하.
- 4호집 : 이름 이OO. 나이 53세. 전문대 전자공학과 나옴. 엘리트심. 별 문제없이 진도 나갈 수 있음으로 보임. 컴퓨터 실력 중.
- 6호집 : 이름 최OO. 나이 67세. 전직 퇴임 목사님으로 인자하고 적극적임. 그런데 눈이 거의 안보이심. 한쪽 눈은 실명. 다른 쪽 눈은 실명 직전으로 커다란 돋보기 사용해야 조금 보임. 컴퓨터실력 중하.
- 9호집 : 이름 강OO. 나이 49세. 학교소사로 근무하며 무지 바빴. 예전에 큰 병 앓으심. 컴퓨터 실력 하.
- 그리고 마지막 10호집 전OO 어머니. 나이 57세. 혼자사시는 분으로 성격 무지 적극적임. 컴퓨터는 가끔 오는 자녀들 때문에 설치됨. 컴퓨터 실력 극하.



시작이 반이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 진도가 잘 나갔다. 우선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부터 해서 전자가계부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을 정도를 학습 목표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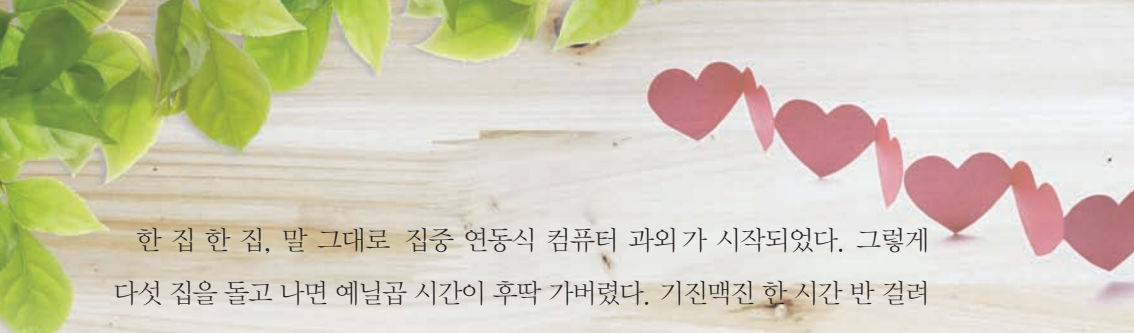
어르신. 여기다 어르신 아이디, 비번 적고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가지는 거예요.

클릭이 뭐여? 아이디는 모고 비번은 모여? 선택은 어떻게 혀?

역시 열정 하나만은 최고였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질문에 알기 쉽게 원시적으로 답변해가며 어르신 훌륭하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온갖 정적 강화물을 쏟아내며 학습동기를 고조시켰다.

허허~ 그러, 내가 모랴. 내가 소싯 적에는...

어르신 입력 한 번 해보고 계세요. 옆집 목사님 댁 설명해드리고 한 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한 집 한 집, 말 그대로 집중 연동식 컴퓨터 과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다섯 집을 돌고 나면 예닐곱 시간이 후딱 가버렸다. 기진맥진 한 시간 반 걸려 청주에 있는 우리 집에 밤 아홉시가 넘어 도착하기를 거짓말 조금 보태 밥 먹듯이 했다. 그리고 퇴근을 했어도 퇴근한 것이 아니었다. 밤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이 열성적인 제자들께서 전화로 질문을 쏟아 부었다. 특히 잠이 없으신 혼자 사시는 10호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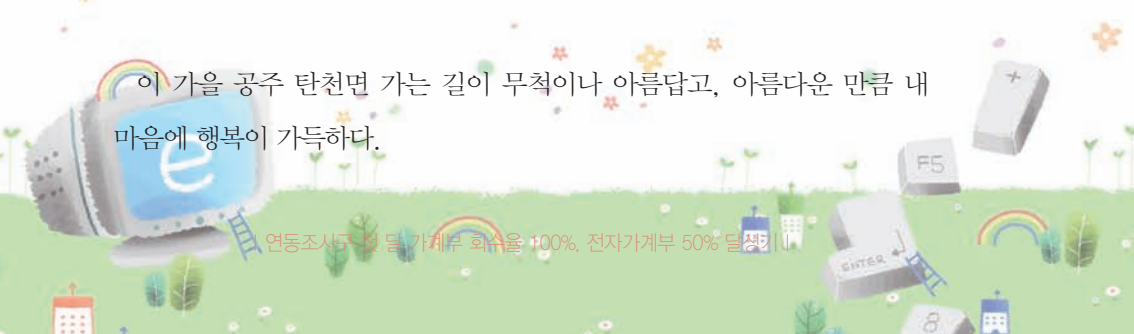
여보세유 탄천이유~ 아이고 죄송해유. 어찌쥬 또 안 넘어가유. 주무신 거 아니쥬? 아, 어머니 괜찮아요. 뭐가 안 되세요?

내가 요플레 있잖유. 손주들 와서 26개 샀다고 썼는데 안 넘어가네... 돈을 쓸 수가 없슈.

어머니, 요플레 라고만 치시고 26개는 지우셔야 해요.

그 시간 나는 당연히 자고 있었다. 밤 열한신데...

3일에 한 번 꼴로 3주 만에 무려 8일을 왕복 100km가 넘는 공주 탄천면이 내 집인 양 드나들고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 과외로 보충하고 하기를 수도 없이 한 결과, 어느덧 어르신들의 실력이 전자가계부를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렀다. 컴퓨터를 일 년에 서너 번도 안 만지면서 매달 이삼만 원씩 내는 인터넷 이용료가 무척이나 아까웠는데 지금은 통계청 덕분에 컴퓨터도 배워 매일 하고, 또 매달 나오는 답례품으로 인터넷 이용료 내고도 남는다고 무척이나 좋아하신다. 서로를 의지하며 믿고 손을 맞잡아 이루어낸 행복한 결과이다.



이 가을 공주 탄천면 가는 길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만큼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다.

연동조사가 3달 가계부 회수를 100%, 전자가계부 50% 달성!!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다섯

아주무이에서 과장님이 되기까지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이 영 미

가을별이 따갑게 내리쬘던 작년 늦가을 어느 날, 농가설득을 위해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농가를 찾아 갔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심한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아들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낯선 나를 보자 매우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 아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다가 나를 보고는 서둘러 들어가 버렸다.

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농가경제조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농일지 작성을 부탁드렸는데 글을 잘 모르신다며 난감해 하셨다. 게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다른 부잣집으로 알아보라며 거부하셨다. 더군다나 아들 때문에 창피하다고도 하셨다.

그분들 가슴 속에 들어있는 돌덩이가 내게 느껴지는 듯 했다. 나는 조곤조곤 말씀드렸다.

아버님. 제가 농사일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니듯이 어머님 아버님이 글을 모르시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글이야 저랑 함께 배우면 되는 거구요.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농사일을 배워서 통계자료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우선 일을 하신 날을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면 영농일지에 내가 대신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조사를 시작했다.

몇 주에 걸쳐 나를 친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버님은 어서 오라고 인사를 건네시더니 전기요금을 여쭙는 내게 대뜸 아주무이네는 전기요금이 월 얼마나 오납유? 하시기에 당황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네? 저는 남편이 공과금을 다 내서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했더니 젊은 양반들인데 꼭 끌어안고 자면 전기고 뭐고 필요 없을 거 아녀유? 껄껄껄~.

순간 땡~~

이분은 나한테 농담을 하신 걸까? 그것도 야한 농담? 이 기분은 뭐지?

별의별 생각이 들었다. 계속 이런 식이시면 어떻게 하지?

농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입지도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가 되어 초콜릿을 사들고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세 분이 점심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오빠주려고 초콜릿 사왔으니까 세 분이 함께 드세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며, 이런 건 처음 받아보셨다고 하셨다.

아버님은 나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셨다. 쌀을 사러 가야되는데 집 앞에 있는 정미소 주인과는 싸워서 왕래를 안 하니 번거롭지만 차를 타고 먼 곳까지 가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번 농담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흔쾌히 사다 드리겠다고 하고 실어다 드렸다. 그리고 더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몇 번을 망설이시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다.

아들의 장애인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일 년에 두 번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게 있는데 이동 자체가 어렵다고 하셨다. 환자 스스로도 차를 타본 일이 없어서 차멀미를 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저랑 쉬엄쉬엄 천천히 갔다 오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다.

막내 사위랑 가도 되긴 하는데 막내 사위는 서울에서 살고, 평일에는 일을 하니까 참 어려워. 그럴 거 뭐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제가 편하지요. 그러자 변변하게 대접도 해드린 게 없는데 매번 신세만 끼치네. 라며 미안해 하셨다. 제가 대접받으러 오는 사람이던가요? 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언젠가면 되냐고 하니 눈물을 글썽하시더니 이내 눈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신다.

나는 명량한 목소리를 한 톤 다운시켜 차분히 말씀 드렸다.

사실 저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 관심도 있고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에요. 특히나 저는 오빠 같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미안한 마음은 절대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라고 하니 끄덕 이신다.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님은 맥 마음씨가 참 곱네 그려. 하시며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다.

그 이후 아버님은 내게 아주무이라는 호칭에서 맥이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부르셨다. 나의 마음 씩씩이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글을 잘은 모르셔도 써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줄을 맞춰 글씨를 써주시려 하신 나름 노력의 흔적과, 저 몇 줄을 쓰기 위해 달력 뒷면 같은 다른 종이에 연습을 하셨을 아버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바쁘신 와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셔서 다시 영수증을 끊어오셨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셨다.

어느 날 농가경제 간담회를 앞두고 간담회 참석여부를 여쭙었더니 흔쾌히 참석을 하겠다고 하셨다. 몸이 불편한 아들 때문에 망설이시긴 하셨는데 아들이 먹을 점심을 미리 준비해 놓고 두 분이 함께 참석을 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 날 아침 난 그분들을 모시러 가서
간담회 장소에 좀 일찍 도착하여 도란도란
많은 얘기를 나누고 두 분의 사진도 여러 장
찍어드렸다. 간담회를 마치고는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다.



그 다음 주에 방문할 때 사진인화를 하여 예쁜 액자를 만들어 가져다
드렸더니 두 분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신 채로 평생에 이런 호강은 처음
누려본다고 하셨다. 사실 우리는 아픈 아들 때문에 어디 둘이 같이 나가서
밥을 먹어본 적도, 더군다나 사진을 찍어본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주었다며, 과장님 덕분이라고 하셨다. 이제 호칭을
과장님으로 바꿔 부르셨다. 나는 어느새 아주무이에서 과장님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었다.

그 다음 주에 방문을 하니, 서울에 있는 딸들이 주말에 다니러 왔다가 부모님
액자를 보고는 내 칭찬을 많이 하고 갔다고 했다. 속스러움을 뒤로 하고 조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막내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납부하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지로 용지를 발견했다. 이 가구의 미혼 장녀가 서울에서
방사선치료사로 근무하는 것을 아는 나는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고 본인과 통화하게 한 후 필요
서류 등을 딸과 통화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인데 항상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딸의 문자 한 통은 하루 종일 나를 기분 좋게 해 주었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응답자 부문 •

내일로 함께 가는 길

조사원이 되고 난 후 저의 큰 변화는 조사자와 응답자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사업무에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응답자를 만날 때는 내가 응답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떠올라 좀 더 조심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이 아니기에 더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 「뽕질이 달라졌어요」 중에서 -





뽕질이 달라졌어요



응답자 : 인천광역시 이 경 수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두 명의 아이를 동분서주하며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전업 주부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집에서만 콧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일로 친구들 만나러 가고 또는 운동도 하고 할 일도 너무 많아 항상 바쁘게 생활하고 있죠.

남편 회사 문제로 인천으로 이사 온지 몇 달 정도 지났을까요? 무슨 명함과 안내장이 우편함에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사실 저는 전단지 알바하시는 분들이 꽂아 놓은 광고전단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직구를 날리며 버리기 일수였죠. 가끔 저의 오지랖이 발동 걸리면 우리 라인의 우편함 속 모든 전단지 수거를 해주기도 하구요. 그러기를 몇 회 반복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분이 오셨어요.



통계청에서 근무하신다고 했고 무슨 조사를 위해 우리 집하고 우리 동네 몇몇 분들을 못 만나서 저녁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이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셨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며 밖으로 돌아다니며 일하지는 않잖아요? 전 솔직히 진짜 멍~때렸죠.

주부라고 우습게 보고 뭔가 사기 치러 왔구나! 와~ 진짜 짜증 지대로다! 하지만 분을 간신히 참고 그분의 얘기를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들어봐야 사기를 치는 건지 뭔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통계청 분들은 말도 참 조곤조곤 차분히 잘도 하시더군요. 몇 분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 입에서는 술술 우리 집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있더라구요.

솔직히 믿고 싶진 않았는데 상품권을 주더라구요. 상품권 봉투에 통계청 이라고도 찍혀 있었고 더욱이 직원분의 인상이 참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구요. 뭐 그러저럭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길래 일단 속는 셈치고 이것저것 훑새처럼 다 알려줬죠. 물론 제 손에는 1만원권 신세계 상품권이 꼭 쥐어져 있었구요.

그 분이 가시고는 솔직히 찻찻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며칠 지나니 또 오셨더라구요. 또 온 걸 보면 제가 답변을 무지하게 잘했거나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 당황도 됐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은 방문한다 해서 사실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아니 한 번만 와도 될 걸 뭘 그렇게 자주 오냐니까 가계부를 쓸 수 있도록 이것저것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난 가계부 같은 거 안 쓰고 있고 무슨 통계청이 그런 걸 하느냐? 고 막무가내로 신경질을 부렸어요. 우리 집은 저의 남편이 그렇게 가계부 쓰라고 신희 초부터 잔소리를 10년째 하다가 포기한 지가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제가 가게부를 어찌 쓸 수 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멍~때리다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얼른 통계청 직원분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가게부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엄청 좋아하시면서 가게부랑 뭐 이것저것 많이 놓고 가시더라구요.

그렇게 며칠 지났는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정말 나 너무 싫고 불편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차로 10분 거리에 사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많이 오신다. 통계청이 뭐라고 우리 친정엄마보다 많이 들락거리냐. 난 가게부 같은 거 쓰기 싫으니까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만 오던지 아니면 전화로 물어볼 거 물어봐라 그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인터폰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난 달에 질문했던 직장 같은 걸 이번 달에 또 똑같이 질문하길래 짜증도 났었구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우리 집에 계속 오시는 통계청 직원분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면 없는 척도 해봤구요, 전화가 오면 수신거부도 해 봤어요. 또는 아파트 입구에서 통계청 직원분 목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다른 출입구로 몰래 빠져나가 집을 비우기도 수 차례 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지간히 뻔질거리기는 했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안면물수를 거듭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안 좋더라구요. 통계청 직원이 우리 집 올 때는 빈 손으로 오지도 않는데 제가 너무 밍살스럽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 때 좀 참 변죽도 좋은 통계청 직원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주 오지 않으면 조사해주겠다고 했더니 알겠어요. 편하신 대로 헤드릴 테니 걱정마세요. 라면서 우리 집을 정말 자주 오셨어요. 허~ 참 기가 찼죠!



어쨌든 귀 얇은 저는 그 분 말에 훌쩍 넘어가서 가계부를 쓰다가 인터넷으로 가계부 쓰면 더 좋고 통장으로 돈도 넣어준다고 해서 또 훌쩍 넘어갔어요. 전자가계부라고 하는 가계부는 그냥 막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좀 까다로웠어요. 집에 있는 카드를 다 등록도 해야 했구요, 현금영수증도 국세청에서 받아서 등록 했어요. 정말 찝찝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은행보안을 사용하니 해킹 염려가 없다고 안심시켜서 좀 찝찝했지만 그냥 했죠. 또 가계부 잘못 쓰면 전화가 오더라구요.

품목을 한꺼 번에 쓰면 안 되고 요목조목 나눠서 기입하라고 할 때는 제가 육해서 가계부 안 쓸려고도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핸드폰 요금도 할부금하고 나눠 써야한다고 할 때는 정말로 쓰기 싫었어요. 그거 정말 귀찮거든요. 하지만 또 직원분이 요목조목 설명하면 전 최면에 걸린 듯 순한 애기처럼 그대로 따라서 가계부를 써 줬죠.

남편 월급도 세금을 얼마 공제하는지 밥값 술값 담배값 정말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서 남편한테 타박 당했던 적도 있었죠. 지금은 뭐 카드 명세서가 있으니까 저도 남편 용돈의 사용처에 대해 눈 감고도 줄줄 외우네요.



그렇지만 가계부 쓰는 걸 귀찮아했던 저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전기료 아낀다고 동동거려도 한 달에 5만 원 아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자가계부 기입하면 5만 원도 받고 또 누구나 쓰고 싶다고 해도 아무나 쓰는 가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하여튼 통계청 직원분하고 말을 섞다보면 별 걸 다하게 되더라구요. 뭐 그분들은 통계조사에 응답자의 자료가 대한 민국 정책에 반영이 되고 어찌구 저찌구 거창한 말들을 꺼내지만 저 같은 주부는 정책보다는 일단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느냐가 가장 빠른 계산이거든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정책 신경 쓰면 됐지 우리 같은 주부가 뭘 그렇게 골치 썩을 필요 있나요?

그렇게 저렇게 인연을 쌓다가 가계부 쓴 지 1년 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저보고 통계청에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는데 알바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야 집에서 시간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처지에 알바 내용은 물어보지도 않고 좋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가방을 뒤지시면서 조사지원서라는 걸 꺼내셨어요.

그 지원서로 전 통계청 임시조사가원이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죠. 처음 조사하기 전 교육을 받을 때는 내가 뭇하러 이 짓을 하려고 하였을까! 정말 너무 너무 후회막급이었지만 나를 소개시켜준 통계청 직원분을 생각해서 죽을 힘을 다해 참았어요.

처음 현장에 나가서 조사라는 걸 하는데 이걸 2년 전 저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전 조사자가 되었고 낯선 사람들은 저의 응답자가 되었던



거죠.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통계청 직원한테 뻔질이 짓
한 게 내가 업보를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조사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모두 집에 안 계시고 집에 계셔도 무조건 화내고 밀치고 문 닫고... 정말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요. 통계청 직원분들은 그런
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상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달인이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소개시켜준 직원분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겨우 겨우 통계조사를 하나 끝내고 나니 정말 죽어도 통계청 알바는 안하기로
마음을 잡고 또 잡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통계청 직원이 오시면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완전 공감
할 수 있었거든요.

통계청 언니는 조사를 또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또 저를 조곤조곤 설득시키더라구요. 그렇게 힘들게 경험한건데 왜
아깝게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힘들어도 두 번째는 나름 노하우가 생겨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나름 맞는 말 같아서 또 통장에 알바를 했던 돈이 들어오니 욕심이 슬슬
나더라구요.

그래서 겁도 없이 또 지원서를 들고 인천사무소에 갔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통계조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건 맞아요. 전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으면서 조사를 시작했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렇게 저를 위로 하면서 전 두 번째 조사를 마쳤어요. 여전히 사람을 상대하는 부담으로 힘든 것은 나아지지 않고 완전 어려운 숙제 같은 현장조사지만 웬지 저도 두 번째 조사를 완료하고부터는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도 살짝 들기도 했어요.

제가 임시조사원 일을 하면서 통계청 직원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면접시간 활용하는 요령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저 역시 응답자의 입장에서 가계부를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지만 제가 담당하는 응답자들은 저보다 더 가계부를 꼼꼼히 잘 쓰는 분도 계셔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해놓고 전자가계부 기입할 때도 조사자의 입장에서 마트에 갔다 오면 그 즉시 그 내용을 꼼꼼히 입력했어요. 또한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인터넷 접속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품목누락 같은 걸 정말 많이 주의했었죠. 그러다 보니 월 마감을 더 꼼꼼히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지금은 벌써 2년차 조사원이 되었습니다.

조사원이 되고 난 후 저의 큰 변화는 조사자와 응답자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사업무에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응답자를 만날 때는 내가 응답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떠올라 좀 더 조심할 수 있었고요. 또 조사자들의 입장을 떠올리면서 마감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했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이 아니기에 더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전업주부는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다 보면 일명 순발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다시 하고는 싶지만 선뜻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런 저에게 몇 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안겨 주었던 통계청 직원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뻔질거렸던 저를 기억하기보다 항상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주던 직원분께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든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통계청 직원 분이라면 정말 고생하시는 말단 공무원 분들께 수고하신다고 토닥거리 주고 싶구요. 혹여 응답자 분이 계시다면, 사람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열심히 솔직한 응답으로, 조사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결혼 후 경력단절로 고민하시는 엄마들! 통계청 조사원에 도전해 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나름 보람도 있어요.

가을에 이렇게 길게 글을 쓰다 보니 저도 커피가 그립네요.

커피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는 귀한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상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일곱

나라살림의 기쁨인 가계동향조사



응답자 : 박 병 규

이른 새벽잠을 깨우는 새들의 문안 인사로 하루를 분주하게 여는 사람들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대문에 붙여놓은 광고지를 살짝 떼며
힘들었을 그 누구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지금껏 힘들다 생각하며 살아온 길이 너무도 초라하여
누더기를 입고 선 추운 겨울의 벌판 같습니다.

- 박병규 시 “보이지 않는 지금도” 중에서 -

매일 많은 사람을 집 대문에서 맞는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사람이 있다. 두툼한 서류봉투 속에 귀한 홍보자료를 가득 담아 우리
집을 찾아준 통계청 직원. 그동안 무수한 사람을 대문 앞에서 만났지만
통계청 직원분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공무원 중에 집배원 아저씨나 소방



공무원, 경찰 등과 같이 우리 삶 가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빛을 발하는 분들만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었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통계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냈던 게 사실이다. 부끄러울 만큼 초라한 집이었으나 안으로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나누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분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카랑카랑한 말투에 조리있는 말솜씨며 환한 표정에 인사성까지 갖춘 모습에서 아주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나도 지난 날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라 더욱 호감이 갔다. 그리고 통계조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한날 호구조사나 인구동향의 흐름을 조사하는 단순 앙케이트(enquête) 설문 조사로만 알았었는데 그분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계란 단순히 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나라살림의 기틀을 세우는 과학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알고는 흔쾌히 허락하여 가계동향조사의 대상가구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가계동향조사란 가구의 가구 수별, 세입자별, 자가 소유별, 가게 규모별 등 구조별로 구분하여 가게 동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약 9천 가구가 참여한다고 했다. 우리 가구도 2천 가구를 대표하여 조사대상 가구에 선정된 것이라 했다.

우리 가정의 통계자료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인구주택통계, 실업통계 등 나라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54종의 통계를 산출하는데 직접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 분기별로 가계소득 및 지출 등이 통계로 작성하여 국민 생활의 분석 자료로 쓰이는 국가 살림의 기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는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다짐하고 2013년 8월부터 참여하였다.

[8월 첫째 주] 통계청 조사직원분으로부터 마치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 아이처럼 통계조사에 대한 기초부터 상세하게 교육을 받았다. 첫째, 가계 동향 조사란 무엇이며 둘째,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며 셋째, 누구를 조사하는 것이며 넷째,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며 다섯째, 누가 조사하는 것인지 배웠다.

[둘째 주] 가계부의 기재 요령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또한 인자한 선생님이 어린이를 가르치듯 알려주셔서 이해가 쉬웠다. 가구 모든 사람의 수입원과 지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그날 기록해야하는 이유와 자료를 꼬박 챙겨야 하는 까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았다.

[셋째 주] 그동안 배운 대로 기입한 가계부의 기록사항을 점검받았는데 숙제 검사를 받듯이 너무나 엄격했고 부족한 점에 대해 다시 알려 주셨다. 가정 살림의 청사진을 보듯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지적도 받았다. 금액이 크든 작든 하나도 빠지 말고 기입을 해야 한다길래 가게에서 소소하게 산 물건 값을 빼도 되지 않느냐? 고 했다가 질책도 받았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작성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잘 쓰라는 충고 겸 독려로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좀 더 진일보하여 9월부터는 전자가계부로 대체하여 작성하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9월분 전자가계부 기재도 잘하여 칭찬을 받았다. 칭찬이 약,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칭찬은 아무리 받아도 싫지가 않다.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다.



우리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국민이 되어 숨은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통계조사 참여를 통해 통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배웠음은 물론 비인기부서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시는 숨은 일꾼인 통계청 공무원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고마운 그분들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적극 참여하여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에 우정사업부로부터 휴면계좌의 잔고를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내용인 즉, 10여 년 전에 통장에 남아있는 200원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이 통지서를 들고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 200원을 무엇에 쓰나? 사람들은 대부분 하찮게 생각하고 찾으러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체국에 들어선 순간 통지서를 들고 직원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이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음에 영광이요, 기쁨이 넘치며 살맛 납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자부심을 토했더니 직원들의 시선이 내게 모두 집중되었다. 그리고는 창구 직원에게 200원을 청구했다. 이 일로 은행 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좋은 이야기꽃이 한동안 감돌았다. 이렇게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배려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무척 기뻐다.

통계청 역시 비인기 부처임에도 나라살림의 가장 기본이요, 기저인 동향조사를 통하여 국가 살림의 초석礎石으로 헌신하고 계신 박직樸直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특별상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여덟

엄마의 소원



응답자 : 광주광역시 채민성

2008년 여름 한창 결혼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조용히 책 한 권을 내미셨다. 그건 바로 금융권에서 얻은 가계부였다.

엄마는 내 손을 잡으시며 자그마한 결혼 선물 중 하나라고 하신다. 나는 속으로 뭐 이런 걸 결혼 선물이라고 이렇게 내미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며 투덜거렸다. 엄마는 결혼을 하던 그 해 197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계부를 써 오신다고 하시며, 나에게 가계부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혹시 헛되이 돈을 쓰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출을 해 나가야할지 계획도 세우는 현명한 아내가 되었으면 한다는 깊은 뜻을 전하셨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엄마가 주신 가계부에 띄엄띄엄 생각나는 대로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와 가계부와의 첫 만남이었다. 쓰고 싶으면 쓰고 생각 안 나면 안 쓰고 그렇게 내 맘대로 가계부를 쓴 지 5년 쯤 어느 날, 통계청 직원이 조사 차 들렀다며 집에 오셨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 저것 물어보시더니 가계부 쓰냐고 물으시길래 난 의기양양하게 원래 가계부 쓰는 여자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통계청 직원 분께서 잘됐다며 그럼 통계청에서 쓰는 가계부를 써 주겠느냐며 이런 저런 혜택들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 젊은 사람이라 잘 할 것 같다며 당근까지 마구 마구 주시니 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올 3월부터 쓰게 된 통계청 가계부는 내가 생각한 것 보다는 아주 살짝 힘든 작업이었다.

사실 지금 나는 48개월 된 딸과 16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것도 혼자서... 남들보다 더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자면, 아이들의 아빠는 올 초 해외발령으로 해외지사에 나가 있고 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창 힘들 때겠구나라며 위로를 건네는 시기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내 정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안드로메다를 왕복 주행하는 것 같다.

돌이 지나면서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는 아들 덕에 요즘은 맨붕으로 낮이 나갈 때가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서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보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나에게 너무나 힘든 과제인 것이다. 더군다나 하루를 정리하며 한 칸 한 칸 채워야할 가계부를 쓸 시간은 아이들이 잠든 밤 시간 뿐인데, 사실 아이들을 재우며 나도 같이 자버리는 날이 더 많아 가계부 쓰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래도 첫 3월은 통계청 직원 분께서 직접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알려도 주시고, 프로그램도 깔아주시고 너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첫 도전에 성공을 했던 것 같다.

가계부를 쓰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물가에 대한 예민성이다. 사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수백 번 장을 보면서 난 한 번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본 적이 없었다. 혼자 가계부를 썼다고 하지만 그냥 마트에서 산 물건에 총액을 적을 뿐,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본 적은 없었다.

전자가계부는 마트에서 산 총액이 아닌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으니, 난 가계부를 적으면서 어쩔 수 없이 우유 1,000ml가 얼마인지, 양파 한 마가 얼마인지를 볼 수밖에 없고 최근처럼 우윳값이 오를 때 전에는 체감하지 못했을 가격상승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집 앞에서 산 치즈의 가격과 대형 마트에서 산 치즈의 가격의 차이를 보고 앞으로의 치즈 구매에 대한 장소 결정을 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장점을 말하자면, 남편과 떨어져서 내가 경제권을 쥐고 돈을 사용하다 보니 남편이 한 번씩 의심하는 투로 잔소리를 할 때가 있다. 어디다 썼냐, 왜 그리 많이 썼냐 등등 검사하는 투로 확인을 하려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난 큰 소리로 말한다. 검색창에 통계청 찾아 들어가서 전자가계부 다운받아 봐. 내가 아이디랑 비번 알려줄 테니 거기서 봐!! 라고, 그럼 남편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잔소리를 멈춘다.

물론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알뜰살뜰 살림을 잘 하는 주부 9단은 아니지만, 적어도 숨김없이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가 쓴 가계부가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자료로 사용이 된다는 자부심도 포함된 외침인 것이다.

한 달 치 가계부를 입력하고 나면 항상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또 동시에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과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 각각의 항목을 보며 쓰지 않아도 될 돈, 조금은 아꼈어야 할 돈 등등을 보며 반성하고 또 지출이 잘 된 항목을 보며 웃음을 짓기도 한다. 가계부를 쓰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미래다. 전 달의 소비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다음 달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세우며 한 달 한 달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다.

물론 가계부를 쓰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소중한 사례금. 그 소중한 사례금 역시 내가 안드로메다를 왕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계부를 쓰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한다. 혹자는 말한다. 밖에서 밥 한 끼만 안 사먹어도 되는 돈인데, 왜 머리 아프게 사냐고 하지만 사례금이 가진 의미는 생각 이상이다. 주부로만 생활하며 소득 없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 나로서

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소중한 시간을 쪼개가며 이뤄낸 성취감에 대한 보상이며, 내가 쓴 가계부가 통계청의 표본이 되어 수많은 가구의 대표 자료로 활용된다는 자부심에 대한 보상이며, 또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내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 말이다.

내일이 되면 나는 또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고 영수증을 잊지 않고 잘 보관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컴퓨터 옆에 놓아둔 종이가계부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진 않을까, 찢어버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종종거리며 다니겠지만, 이렇듯 가계부 작성이 나에게서는 의미 있는 일이기에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가계부를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우리 엄마. 통계청 가계부를 쓰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뻐하시던 엄마께도 나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면 한국으로 휴가를 나오는 남편에게 남편의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나도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소 하고 자랑하며 남편에게 가계부를 보여 줄 것이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아홉

나의 꿈 나의 도우미 전자가계부

응답자 : 울산광역시 000

11년 전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은 작은 15평 임대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 녀석이 맘껏 기어 다닐 수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막연한 내 꿈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가 않았다. 그저 아이들과 내가 먹는 것들을 조금씩 줄이는 것 밖에는...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했던 막연한 내 꿈.

5년 후 우리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우리 집을 무리한 대출을 안고 갖게 되었고, 커진 집만큼이나 우리는 대출이라는 짝어지기 버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가끔은 여유 있게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운 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늘 생각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들을 부러워만 하면서 살지는 말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남편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평생을 논밭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에 농사를 지으시면서 힘들게 자식교육에 모든 걸 쏟아 부으신 어머니가 가난하신 것 또한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므로 나와 남편이 할 수 있는 한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는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열심히 살기 위한 나의 선택은 세 살, 다섯 살 어린 아이를 두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차마 잠을 깨우지 못하고 자고 있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그런 아이를 업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면서 나는 가슴으로 참 많이도 울었다.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또한 그것이었기에,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말자고 이 악물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나에게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전 여름날 우연히 직장에서 돌아온 나에게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냈다.

우리 집이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로 선정이 되었다네. 그러면서 전자가계부 작성이 가능하냐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잘 할 거라고 얘기해줬는데 괜찮겠어?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날 믿어주고 우리 아내는 늘 잘 할 거라고 생각해주시는 남편이 결정한 일이기에 나에게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매달 사례비로



준다는 5만원이라는 돈이 아이들 과자 값이라도 되겠다 싶어 더욱 거절하지 못했음이 나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네~~ 해보죠.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게 시작한 통계청 가게 동향조사 전자가계부와의 만남!

통계청 직원의 설명대로 전자가계부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전자가계부 프로그램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였다. 평소에도 가게부 쓰고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가게부에 시도를 해보았지만, 꾸준히 작성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한두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고, 뭔가 좋은 가게부가 없을까?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내가 찾고 있었던 그런 가게부가 통계청 전자가계부였다.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나는 너무 신기하고 편리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계좌,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1년에 몇 번 쓸지 모를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걸 입력하고 전자가계부 작성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확한 방법을 잘 몰라 꼼꼼하게 작성하기가 힘들었지만 통계청 담당자분이 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하나하나 익히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습관처럼 전자가계부에 클릭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컴퓨터를 켜고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전자가계부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가게부에 들어갔던 것 같다. 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출을 했는지 아침부터 확인하면서 입력을 하다 보니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출을 해야 할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 어제 이 지출은 조금 과했나??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한 품목씩 세세하게 입력해야 하는 전자가계부의 특성상 나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두부 한 모를 구입할 때도 아! 이 브랜드 두부보다 저 두부가 더 저렴하네 하면서 이름도 모를 판 두부 한모를 손에 쥐게 되고, 세제를 구입 할 때도 100g당 단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되었다. 무심결에 아이들에게 사 주었던, 몇 천 원씩 지출한 군것질 비용도 한 달 모아서 보니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소소하게 나가는 지출부터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집 앞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 수십 번은 그냥 지나쳐 온 것 같다. 그 대신 명절이나 제사 이후에 무심결에 받아왔던 떡들을 반넝 식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음식쓰레기통에 버렸었던 일들을 반성하며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냉동실에 박혀있던 떡이며 어른들이 보내주신 감자 고구마를 구워주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이게 되었다. 진작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줄 것을 하며 많이 뉘우치는 순간이었다.

남편에게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줬다. 전자가계부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매일매일 불러와서 입력을 하다 보니 몇 천원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귀찮아서 발급하지 않았던 현금영수증을 이제는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줄때 현금영수증 꼭 받아오라는 심부름도 이제는 우리 집의 흔한 광경이 되었다. 나에게 찾아온 이런 작은 변화들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저녁시간이면 남편과의 대화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대화 중심에는 늘 통계청의 전자가계부와 관련하여 한 달 수입 지출 및 세부항목 사용금액을 출력해서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다.

자기~~ 이달 우리 수입은 000만원인데, 지출이 000만 원이어서 이달에 대출을 000만 원 갚을 수 있겠어요.

유류대가 지난 달에는 00만 원이었는데, 이달에는 00만 원으로 엄청 줄었네요. 카풀하는 효과가 이렇게 커요.

매일 매일 종알대는 내 모습을 남편은 기분 좋게 들어주며 챙겨달라는 각종 영수증과 급여명세서까지 귀찮기도 한 그런 일들을, 귀찮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함께 노력해주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노력해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커져갔다.



우리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초등 3학년, 1학년 아이들에게도 경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아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많이 도와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정말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은행에 돈을 빨리 갚아야 하는 것 이고 나머지 돈으로 정말 필요하고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에 현명하게 잘 써야만 해.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다 이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힘겨운 가정 경제를 굳이 모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 지는 길이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아이들도 달라졌다. 마트에서 엄마가 과자나 먹을 걸 많이 샀다고 느낄 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작은 아이한테도

엄마, 오늘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돈 너무 많이 쓴 거 같은데?

에고~ 아들에게 잔소리까지 듣게 된다. 엄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구나!!
요 녀석이!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대견하기도 하다.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무조건 아껴야지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살던 나에게 전자가계부는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몇 개월 동안의 정확한 자료까지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내 자신이 계획을 잡거나 생활 하는데 상당한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전자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보여야 하는 부담감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나에게 안겨주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솔직한 모습이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내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자긍심을 갖고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연히 만나게 된 통계청 전자가계부와의 만남!!

남편과 나는 오늘밤에도 커피 한 잔을 놓고 마주보면서 이야기한다.



자기~ 우리 좀 더 열심히 계획성있게 살아서 우리 퇴직하고 난 후 우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작은 땅 마련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다. 남편과 나는 아직 더 많이 노력해야 우리가 그 꿈을 이룰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희망을 보게 된다. 그런 날이 꼭 오리라는 희망을.

울퉁불퉁 험난한 자갈길을 걸어야만 할지도 모를 그 길을 전자가계부라는 도우미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아스팔트가 깔린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왜? 하필 우리 회사를...!



응답자 : 대전광역시 오 정 석

안녕하세요?~ 통계청 000입니다.

반갑기까지 한 익숙한 음성의 전화입니다. 처음에는 통계청이라는 말만으로도 이유 없이 너무 짜증이 났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매월 만나는 익숙하고 친숙한 목소리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 와서 얘기이지만, 처음엔 정말 귀찮았습니다. 매 월, 매 분기, 매 년마다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많은 통계와 설문관련 부탁 전화들...

왜 하필 우리 회사일까?!

| 왜? 하필 우리 회사를...! |



바쁘고 힘든 업무 와중에 신경 쓰기도 싫은 전화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마다 문의하는 통계나 설문이란 것이 거기서 거기 같았고, 응답에 응한다하여 회사에 도움이 될 일도 없다는 생각과 무엇보다 바쁜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처음 서비스업동향조사 신규표본이라고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관련 공문을 받고 전화가 왔을 때에도 건성으로 답변을 해드렸고, 성의 없이 협조하겠다고 했지요. 방문약속을 잡는 전화가 오면 일부러 외근 나왔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마음속으론 그냥 안 해요 하고 끊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전화와 친절함에 방문 약속을 잡았고, 통계청 직원 분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귀찮고 싫은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매번 거절과 자리 비움이라는 핑계를 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미안한 마음으로 통계청 직원 분을 맞았습니다.

첫 만남이었습니다. 통계조사에 참여해도 사실 어떤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일이란 마음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다른 회사도 응답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계청 직원 분도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 하는 측은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꺼려하는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직원 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셨습니다. 친절한 음성과 꼼꼼함 그리고 예의 바름에 저도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줄어들고 조금씩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조사에

통계조사의 필요와 즉각적인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번거롭다는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내가 협조하는 통계조사가 국가 정책과 교육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가 되어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협조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야겠다. 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니 매월 통계조사를 위해 방문하시는 직원 분을 만나는 시간은 얼마 전 처음 조사 때 귀찮아했던 저 자신을 반성할 정도로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의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매월 조금씩 변동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다시 세어보고 나열해보니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 응답을 통하여 우리 회사에도 규모는 작지만 통계자료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만남으로 친근해지면서 직원 분께서도 위트 있는 말씀씨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통해 통계조사를 홍보해 주고, 세상이야기도 재미있게 하면서 통계조사를 진행해주셔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도 않아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투명스러웠던 지난날의



미안한 마음에 처음 조사 시작 때에 너무 전화로 짜증부렸던 것은 아닐까?
다음번에는 좀 더 친절하게 해드려야지. 마음먹어 봅니다.

다른 회사 응답자들도 제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귀찮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꾸밈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2013년 조사를 시작할 때 응답협조용으로 받은 통계청 수첩을 보면서 우리
회사의 짧은 30분의 배려가 정확한 국가통계에 도움이 되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2013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문을 두드리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사람을 만나야 설득을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나는 잠복경찰이었다. 며칠을 기다리고 기다리길 반복..

그러던 어느 날 열린 대문..

...

나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저씨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조심스럽게 조언도 했다. 나는 중간 중간에 아저씨 집을 방문해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물었고 아저씨는 1년 이상 가계부를 써 주시다가 문막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 와중에 가슴 몽클한 일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나를 만나고부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바깥외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상 밖으로...**

— 대상작 「회수율 100%에 담긴 인생철학」 중에서 —